

ISSN 2713-9638

經 學

6

2023. 12.

韓國經學學會

經學 6

2023. 12.

〈특별기고〉

이 퇴계의 論語學 金彦鍾 / 1

〈연구논문〉

문헌 연구로서의 경전 연구

— 『논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강재 / 23

『논어』 人物 研究와 선진시대의 문헌 이규필 / 51

경의(經義)를 주제로 한 책문(策問) 소고 윤선영 / 85

『論語』의 치유적 독법 시론

—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를 중심으로 김승룡 / 119

〈학술토론: 서양철학과의 만남〉

〈공자의 말들: 몇 가지 새로운 읽기〉에 대한 토론 이수정, 함영대 / 137

〈부록〉

한국경학학회 회칙 / 151

한국경학학회 논문 투고 규정 / 155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162

한국경제학회 연구윤리 규정	/ 167
經學 論文 審査書	/ 177
한국경제학회 임원	/ 178
회원가입안내	/ 179
원고 모집 안내	/ 180

이 퇴계의 論語學*

金彦鍾**

-
- I. 序言
 - II. 《論語釋義》에 대하여
 - III. 論語解釋에 있어서 퇴계의 특징적 면모
 - IV. 結語
-

I. 序言

《論語》는 퇴계가 接한 經書 가운데서 최초의 것으로 보인다. 퇴계가 열두 살 때 숙부 松齋 李堦에게 《논어》를 배웠다는 기록이 《增補退溪書》 몇 군데 보인다.

「七年 壬申(明武宗正德七年 朝鮮中宗七年 西紀1512年 筆者注)에 선생은 12세였다. 논어를 숙부 송재공 우께 배웠다. 學而의 ‘弟子入則孝, 出則弟’句에 이르러 두려워하며 자신을 경계하기를 “사람의 자식 된 도

* 본고는 「외대어문논총」 제4호(1991.12.)에 수록된 것으로, 한국경학학회의 요청에 의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재수록하게 됨.

** 당시 경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전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현 한국고전번역원 원장.

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루는 ‘理’字를 두고 송재공께 물기를 “모든 일의 옳은 것이 理입니까?”라 하였다 송재가 크게 기뻐하면서 “네가 이미 文義를 깨달았구나!” 하였다.»¹⁾

門人 鶴峰 金誠一의 《實紀》에 의하면 송재는 亡兄의 遺子를 教導함에 무척 근엄했던 모양으로 어린 퇴계가 《논어》 正文은 물론 朱子の 集註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어도 칭찬의 말 한마디 없었을 정도였다고 한다.²⁾

그러나 ‘理’에 대한 퇴계의 해석을 듣고는 기쁜 나머지 그 ‘不假辭色’의 태도를 잠시 거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퇴계가 위대한 性理哲學者가 되는 데는 시대적 상황이 큰 작용을 하였음이 결정적인 것이지만 ‘天資穎悟’³⁾함을 알면서도 獎許의 말 한마디 없던 숙부의 갑작스러운 칭찬은 어린 퇴계가 ‘성리학’을 대하는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門人 雪月堂 金富倫의 《言行割記》가 年譜보다 더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길 “내 나이 열두 살 때 송재공께 논어를 배웠는데 茫然히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某篇의 注에 있는 ‘理’字에 이르러 恍然히 마음에 얻어지는 것이 있는 듯하였다. 이에 여쭙기를 ‘무릇 사물의 당연한 것을 理라 하는 것입니까?’ 하였더니 송재께서 기뻐하시며 ‘네가 이제부터 학문이 무엇인가를 알겠구나.’ 하셨다.”⁴⁾

1) 七年壬申, 先生十二歲, 受論語于叔父松齋公, 至弟子入則孝出則弟, 惕然自警曰“人子之道當如是矣”一日, 將理字問松齋曰“凡事之是者是理乎?” 松齋喜曰“汝已解文義矣!”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刊 《增補退溪全書》 四 pp. 113~114 以下簡稱‘全書’)

2) 先生嘗曰“叔父松齋公, 勸學甚嚴, 不假辭色, 嘗背誦論語, 兼集註, 自初章至終篇, 不差一字而亦無獎許之言.” (全書四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3) 이는 月川 趙穆의 말이다. (전서 四 p.9 《퇴도선생언행통록》 권1)

《年譜》는 퇴계의 손자 李安道の 기록에 바탕한 것⁵⁾인데 弟子인 金富倫의 기록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이라면 퇴계의 물음에 있어 ‘凡事之是者是理乎’와 ‘凡事物之當然謂之理乎’가 보이는 차이점, 송재의 탄사에 있어 ‘汝已解文義矣’와 ‘汝自此有悟於學矣’가 보이는 차이점이다.

모든 일의 옳은 것이 理이냐는 물음과 사물의 당연한 것을 理라고 하느냐는 물음에는 前者가 일반적인 것이라면 後者は 이미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當然’이라는 용어는 ‘本然’과 함께 이미 性理學의 전문술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송재의 탄사에 있어서의 ‘文義’와 ‘學’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 文義가 문장의 사상 내용이나 문장의 涵義를 뜻하는 말인 것과는 달리 ‘學’은 구체적으로 性理學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良齋 李德弘의 기록에 의하면 ‘理’字에 관한 질문은 《子張》편을 읽던 중이었다고 한다.⁶⁾ 자장편 集註에는 ‘雖或未盡合理’ ‘理無大小’ ‘理則一’ ‘理同而事異’ 등 네 차례나 理字가 보인다.

어쨌든 《논어》는 퇴계가 접한 최초의 경서였고 正文은 물론 注文까지도 암송할 정도의 학습 과정을 거친 퇴계에게 일생동안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퇴계의 《논어》에 대한 견해는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論語釋義》 외에도 大野 柳健休(1768~1834)가 편집한 《東儒四書解集評》과 퇴계가 조카인 李窩의 質疑에 대해 講解한 《論語講錄》에 集約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퇴계가 門人知舊들과 주고받는 書信 가운데 퇴계의 논어학과 관계되는 자료가 적지 않을 것이다.

《논어석의》가 解釋學的인 면에 치중되어 있다면 《동유사서해집

4) 先生曰“余年十二，受論語於松齋，茫然不和其味，至某篇註理字，恍然似有得於心，便請曰‘凡事物之當然者謂之理乎?’松齋喜曰，‘汝自此有悟於學矣。’”(全書 四 p.23)

5) 全書 四 p.169.

6) 同上.

평》에 輯錄된 22條와 《논어강록》에서 발췌하여 《퇴도선생언행통록》에 실려있는 15條는 義理學的인 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本稿는 퇴계 논어학에 있어 우선 《논어석의》에 나타난 특징적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퇴계의 논어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리의 基礎로 삼고자 한다.

II. 《論語釋義》에 대하여

《논어석의》는 퇴계의 《四書釋義》의 일부이다. 《사서석의》의 유래와 출간 경위에 관해서는 퇴계의 門人 勉進齋 琴應燾(1540~1616)의 後識에 간략히 나타나 있다.

위의 경서석의는 우리 퇴계선생께서 諸家の 訓釋을 모아 이를 增訂한 것이요, 또 門人들과 일찌기 問辯한 바를 연구한 것인데 모두 선생께서 친히 정서하셨던 것이다. 임진년의 난리통에 친필본을 잃어버렸으므로 후학들은 이 때문에 더욱 어쩔 줄 몰라했다. 戊申年 겨울에 監司 崔灌이 도산에 와서 祠宇를 배알하였는데 이 경서석의를 후세에 전해야 함을 간곡히 거듭하여 이야기하더니 출판비용을 보내오기까지 하였다. 이에 士友間에 傳寫되고 있던 것을 求索하여 약간 교정한 후 간행하게 되었다. 乙酉年 봄에 일을 시작하여 세 달 후에 마쳤다. 아! 선생께서 경학을 발휘하신 뜻과 후학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공이 이를 통해 기억될 것이다. 우리들이 어찌 서로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⁷⁾

7) 右經書釋義，惟我退溪先生，哀聚諸家訓釋而證訂之，又因門人所嘗問辨者而研究之，皆先生手自淨錄者也。壬辰兵燹之慘，手本亦失，後學益爲之悵惘然。戊申冬，崔監司灌，來至陶山，展謁祠宇，唯以釋義傳後之意，丁寧反覆，而又送餉工之資，於是求索士友間傳寫之本，略加讎校而刊之。始役於己酉之春，三閱月而就緒，噫！先生發輝經學之意，嘉惠後學之功，亦可因此而想之，吾黨蓋相與勉之哉！（全書 三 p.193）〔편집자주〕 본래 8)번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을 살펴본바, 주석으로 7)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친다. 이하 번호 또한 하나씩 당겨 나옴을 여기에서 밝힌다.

이처럼 이 책의 原本인 퇴계 친필본은 임진왜란 때 잃어버렸고 寫本으로 전해져오고 있던 것을 퇴계가 易簣한지 거의 40여 년이 지난 1609년에야 時任 경상감사 최관의 도움으로 출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初頭에서 말하는 諸家の 訓釋이란 퇴계 이전의 언해본을 지칭하는 것인데 《논어석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퇴계 당시에 최소한 두 종류의 언해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一 예로 《爲政》 제7장에 「子遊問孝，子曰“今之孝者，是謂能養，至于太馬，皆能有養，不敬，何以別乎?”」라는 문답이 있는데 이 가운데 「是謂能養」句에 대한 퇴계의 釋義를 살펴보면

能養을 니르느니 能養호야△卜호리라나라느니 今按下說極無理，不足辨，上說亦未按 當云 是를 닐은 能히 養호요미니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언해를 인용하여 그 오류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예는 전편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인다.

眉岩 柳希春(1513~1577)의 《眉岩日記》，李肯翊(1736~ 1805)의 《燃藜室記述》，그리고 《國朝人物志》 등에 成宗, 燕山君 때 활동했던 柳崇祖(1452~1512)가 최초의 경서언해를 썼다는 기록이 있다.⁸⁾ 이에 대해 “野史에서 유송조가 언해를 완성한 것으로 전하고 있으나 그는 유명한 유학자이지 懸吐(口訣)나 언해에 종사할 사람은 아니다.”⁹⁾라는 견해도 있지만, “퇴계는 유송조의 언해를 비롯한 경서 언해 수 종을 참작하여 사서와 삼경의 석의를 저술하였다.”¹⁰⁾는 견해도 있다. 前者의 견해에 의하면 《미암일기》 등의 책은 한낱 신빙성 없는 야사에 지나지

8) 《國語國文學辭典》，新丘文化社，柳崇祖 條 參照.

9) 李崇寧，〈四書諺解題〉，影印本《四書諺解》，保景文化社，1983.

10) 柳承國，〈四書栗谷諺解題〉 p.7，影印本《四書栗谷諺解》，成大養賢齋，1974.

않으며, 유명한 유학자인 유송조가 언해 따위의 일에 종사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 《미암일기》 등과 같은 중요한 史料를 신빙성 없는 자료로 치부한다거나 퇴계 율곡 같은 大賢들도 기꺼이 정력을 쏟은 언해 사업에 종사할 리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怪論이 아닐 수 없다.

퇴계 이전의 언해서가 모두 失傳된 지금 확실한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퇴계가 참고한 언해서 가운데 유송조의 것은 아마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암일기》 등의 책이 야사 따위나 적는 책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유송조는 퇴계가 열두 살 때 歿한 前輩學者였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이후 사서언해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있던 통행본은 선조 18년인 1590년에 완성된 官撰 《사서언해》이다. 퇴계의 《사서석의》는 관찬본보다 20년이나 늦게 간행되었지만, 그러나 언해에 있어 퇴계의 주요한 說은 거의 대부분이 관찬본에 수용되어 있다. 이에는 鄭介淸, 崔永慶 등과 함께 언해 사업에 참가했던 퇴계의 及門弟子 寒岡 鄭述(1543~1620)의 역할이 컸으리라는 것을 짐작키 어렵지 않다.

Ⅲ. 論語解釋에 있어서 퇴계의 특징적 면모

경서는 동아시아 諸國의 오랜 봉건사회에 있어서 배움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논어는 必讀의 것이었을 뿐 아니라 必暗誦의 것인데다 儒學의 근간이었으므로 지금까지 注釋書를 남긴 사람만 해도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이천 명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人云亦云式의 인습이 아니라 어느 한 句節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創見을 남긴다는 것은 그 是非를 떠나서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퇴계는 《논어석의》를 통해 五

條의 창견과 二條의 특기할 만한 견해를 남기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견해란 당시의 일반적인 의견과 軌를 달리하는 견해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그 細目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易色

《學而》 제7장의 子夏가 말한 ‘賢賢易色’의 ‘易色’을 해석함에 있어 漢代 以來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었다. 이 ‘色’을 ‘顏色’으로 보는 說과 ‘女色’으로 보는 說이 바로 그것이다. 女色說은 최초의 논어주를 쓴 漢 孔安國이 주장한 것이며 顏色說은 宋 程頤가 최초의 주창자인 듯하다. 程說은 《論語集註大全》에도 수록되어 있다. 주자는 集註에서 孔說을 따랐다. 동시에 주자는 제자 周明作과의 대화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얼굴빛을 바꾼다는 것도 틀린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천박한 느낌이 든다. 賢者를 만난 잠깐 사이에 누군들 그리 못하겠는가? 그러면 그에게 과연 賢人을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이다. 好色說을 따라야만 賢人을 존중하는 誠意를 볼 수 있을 것이다.¹¹⁾

또한 寥德明과의 대화에서도 얼굴빛을 바꾼다는 것은 위선자의 행위일 수 있으므로 顏色說을 따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¹²⁾

퇴계는 이 점에 있어 程子の 說을 따르고 있다. 《논어석의》에서 「色을 易하며」라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율곡은 《논어언해》에서 「色과 易하며」라 풀이하여 朱子가 인정한 女色說을 따르고 있

11) 只變易顏色亦得，但覺說得大淺斯須之間，人誰不能？未知他果有誠敬之心否，須從好色之說，便見得賢賢之誠處。(《朱子語類》 卷第二十一)

12) 變易顏色，有僞爲之者。不者從上蔡說，易其好色之心，方見其誠也。(同上)

다. 퇴계가 어찌서 여색설을 따르지 않았는지 아무런 설명을 남기지 않고 있으므로 함부로 추측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은 퇴계논어학의 특기할 만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안색설을 따를 경우, 어진 이를 대할 때 공경을 다 해야 한다는 뜻을 볼 수 있으며 心態와 動態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 주자와는 달리 진실한 사람에 있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란 점이 퇴계의 생각이었는지 모른다.

(2) 不以其道得之

《里仁》 제5장에 다음과 같은 孔子의 말이 있다.

富與貴，是人之所以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貧與賤，是人之所以惡也，不以其道得之不去也。

여기서 두 번이나 나오는 ‘不以其道得之’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 위의 것은 ‘어든’ 아래의 것은 ‘라도’라고 따를 달았던 듯하다. 율곡도 《사서언해》에서 이를 따랐는데 이는 주자의 註에 충실한 해석이다. 주자는 《논어집주》에서

‘不以其道得之’는 얻어서는 안 되는데 얻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부귀에는 不處하고 빈천에도 버리지 않는다. 군자가 부귀를 살피고 빈천을 받아들임이 이와 같다.¹³⁾

라 하였다. 朱註에 의하면 빈천의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았더라

13) 不以其道得之，謂不當得而得之。然於富貴則不處，於貧賤則不去。君子之審富貴而安貧賤也如此。

도 버리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경우 빈천을 얻는 데 있어서의
 정당한 방법이라면 《논어집주대전》에 인용되어 있는 勉齋 黃幹의 말
 대로 ‘博奕, 鬪狠, 奢侈, 淫肆’ 등의 行爲일 것이다. ‘不去’의 去, 즉 버린
 다는 것은 탈피하다, 벗어나다의 뜻일 것이다.

퇴계는 아래의 ‘라도’라는 ㅅ에 반대하여 이 역시 ‘어든’이라 풀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퇴계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라도’라는 ㅅ는 도리를 매우 해치는 것이다. 마땅히 ‘어든’이라 해야
 한다. 여기에 나오는 두 개의 ‘道’字는 善과 惡의 차이가 있는데 부귀
 의 도는 善道다. 그러므로 이 道로써 얻은 것이 아니면 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반드시 善道로써 얻어야만 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빈천의 道는 惡道이다. 그러므로 그 道로써 얻은 것이 아니면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惡道로 얻었다면 반드시
 버린다는 뜻이다. 군자는 修身하고 守道하여 大人의 덕을 갖추는. 이
 경우 하늘이 주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불행히도 빈천한 경우가 있다.
 이는 나에게 빈천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빈천하게 되면 마땅히
 빈천을 받아들이고 벗어나려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顏淵과 原憲 같은
 이들이 이 경우에 속하겠다. 이른바 ‘不以其道得之라도’라고 해석한다
 면 빈천에 대하여 벗어나려 하지 않을 뿐더러 얻은 것이 그 道로써 한
 것이 아닌 것, 비록 자신이 博奕, 鬪狠, 奢侈, 淫肆 등 무릇 빈천해질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써 얻게 된 빈천까지도 벗어나려 하지 않으면서
 핑계 대기를 ‘나는 빈천에 순응하려 한다’고 말한다면 되겠는가? 이 구
 절은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만 集註의 ‘부귀를 살피고 빈천에 순응한다’
 는 말만 보고 생각하기를 군자는 빈천에 대해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얻
 었건 간에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는 틀린 생각으로 남들까지 그르치고
 있으니 만약 이러한 說을 따른다면 세상의 무뢰배나 집안 망치고 몸 버
 린 자들도 다 빈천에 순응하는 군자란 말인가?¹⁴⁾

14) 今按ラド之吐甚害理, 當云得之어든, 蓋此兩道字, 有善惡之異, 富貴之道是善道, 故不
 以其道得之, 不處也. 言必以善道得之, 方可處也. 貧賤之道是惡道, 故不以其道得之,
 不去也. 言若以惡道得之, 在所必去也. 君子修身守道, 大人之德備, 是宜天爵從之, 不

이처럼 퇴계는 두 개의 '道'字에 善과 惡의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가정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점이 주자나 율곡이 두 개의 '道'字를 모두 善道, 즉 正當한 방법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이다. 이럴 경우 퇴계의 견해에 따르면 빈천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惡道, 즉 도박, 사치 등의 행위를 하다가 얻은 것이 아닐 경우에는 운명으로 생각하고 순응한다. 바꾸어 말하면 군자는 오히려 부귀를 얻어야 할 행위, 즉 善道를 하다가 얻은 빈천에는 운명으로 알고 순응한다. 그러나 빈천해질 수밖에 없는 행위, 즉 惡道를 하다 빈천해진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치, 도박 등 악도에 빠져 빈천해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빈천에서 벗어나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은 군자의 경우처럼 불운해서 빈천해진 것이 아니라 빈천해질 수밖에 없는 행위를 통해서 빈천해진 경우, 달리 말하여 당연히 빈천해진 것일 뿐 불운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精微한 퇴계의 해석이야말로 퇴계만의 창견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3) 亡之

《雍也》 제8장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伯牛有疾，子問之，自牖執其手，曰，“亡之，命矣夫！斯人也而有斯疾也！斯人也而有斯疾也！”

幸而貧賤焉，是我無貧賤之道而得貧賤如此者，當安之而不去，顏淵，原憲是也。所謂不以其得之어든，不去也，若讀曰라두，則是君子之於貧賤，不但不去，其得不以其道者，雖我爲博奕，鬪狠，奢傍，淫肆，凡可以取貧賤之道以致貧賤，亦將不去之，諺曰，我欲安貧賤也，其可乎？說者見此集註審富貴安貧賤之語，意謂君子於貧賤，不問得之之如何而皆安之，誤爲此說以誤人，苟如此說是，世之爲無賴亡家喪身者，皆爲安貧賤之君子耶？

여기서 퇴계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耒耜가 병들었을 때 위문간 공자가 창을 통해 염경의 손을 잡고 한 첫마디의 말 ‘亡之’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亡’字의 讀音을 ‘망’으로 읽는데 율곡도 《논어언해》에서 ‘망허리로다’로 읽고 있다. 즉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亡’字는 死亡의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 說의 근원은 孔安國註에 있다. 孔安國은 註에서 ‘亡은 죽는다는 뜻이다. 질환이 심하므로 그 손을 잡고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¹⁵⁾ 孔註에 대한 疏를 쓴 皇侃은 더 나아가 ‘그 뜻은 백우가 반드시 죽을 것이란 말이다.(言牛必死也)’라고 말하고 있다. 近人の 번역을 보아도 거의 예외가 없다. 蔣伯潛은 《論語解釋》에서 “亡之는 脈息이 이미 끊어졌음을 말함이다.”라 하여 특이한 說을 주장하고 있으나 역시 死亡의 뜻으로 본 경우에 속한다.

퇴계는 이와 달리 ‘亡’字를 ‘무’라 읽어야 하며 死亡의 뜻이 아니라 有無의 無字의 의미로 풀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의 ‘亡’는 有無의 亡字이지 死亡의 亡字가 아니다. 주자집주의 “此人不應有此疾”이란 해석은 바로 ‘亡之’두글자를 풀이하고 있는데 그 뜻은 이 사람이 마땅히 이런 병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있으니 이는 바로 운명이라는 것이다. 성인께서 어찌 병문안을 갔다가 병자가 죽고 말 것이라고 바로 대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성인의 愼厚하고 沈密한 氣象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또 만약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마땅히 ‘亡矣’라고 말했을 것이지 ‘亡之’라는 ‘之’字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¹⁶⁾

여기서 퇴계는 주자집주의 註에 의하면 ‘무’라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15) 孔安國曰, 亡, 喪也. 疾甚, 故持其手曰, 喪也.(《十三經注疏》)

16) 蓋亡卽有無之亡, 非死亡之亡. 註此人不應有此疾, 正解亡之兩字. 言此人當無此疾而今有之, 是乃命也. 聖人豈問人疾, 而直言其當死乎? 大非聖人愼厚沈密之氣象, 且若言死亡, 當曰亡矣, 不當下之字.(全書 三 《논어석의》 p.199)

있으나 집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자는 집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마도 伯牛와 영결하고 있는 것이다. 命은 天命을 이룸인데 그 뜻은 이 사람이 마땅히 이런 병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있으니 이는 바로 하늘의 운명이란 것이다.¹⁷⁾

이처럼 주자는 ‘命矣夫’에 대한 전반적 해석을 하고 있을 뿐 ‘亡之’에 대한 字義를 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宋代 이래의 거의 모든 注家들이 死亡의 亡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에 는 집주의 ‘與之永訣’이란 한 마디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퇴계의 이러한 주장은 주자집주의 설명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다. 퇴계는 위의 역문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계의 생각에 의하면 제자의 병을 위문하려 간 孔子가 설령 제자의 병이 위중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해도 손을 잡고 그의 앞에서 ‘소생할 가망이 없다’¹⁸⁾ ‘살기 어렵겠구나(難得活了)’¹⁹⁾ ‘죽겠구나(要死了)’²⁰⁾ 등의 직설적인 말을 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성인의 기상을 크게 손상하는, 즉 성인다운 言辭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文法的인 면에서 보더라도 死亡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亡矣’라고 말했어야지 ‘亡之’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퇴계에 의하면 이 ‘之’는 백우가 걸린 絕症을 뜻하는 代詞인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전통적인 풀이라고 할 수 있는 ‘망허리로드’를 부정하고 ‘무허리러니’ 혹은 ‘무홀거시어늘’이라고 수정하였다. 이는 퇴계

17) 蓋與之永訣也。命，謂天命，言此人不應有此疾而今乃有之，是乃天之所命也。

18) 韓相甲譯，〈論語〉，三省出版社。

19) 楊伯峻，〈論語譯注〉，明倫出版社，1971。

20) 唐滿先，〈論語今譯〉，江西人民出版社，1980。

의 독특한 창견이라 할 수 있겠다. 《논어》 全篇에서 '亡'字의 用例는 이곳을 포함하여 모두 11곳에 보인다.

夷狄之有君，不如諸夏之亡也。(八佾)

不幸短命死矣，今也則亡。(雍也)

亡而爲有，虛而爲盈。(述而)

不幸短命死矣，今也則亡。(先進)

人皆有兄弟，我獨亡。(淵)

有馬者借人乘之，今亡矣夫。(衛靈公)

古者民有三疾，今也或是之亡也。(陽貨)

焉能爲有，焉能爲亡。(子張)

日知其所亡，月無忘其所能。(子張)

孔子時其也而往拜之。(陽貨)

이처럼 하나같이 有無의 뜻으로 쓰였을 뿐 死亡의 뜻으로 쓰인 예는 한 차례도 없다. 이러한 用例에 관한 통계적 자료 또한 퇴계의 說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 있을 것이다.

(4) 未嘗飽·不歌

《述而》 제9장에 孔子의 行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子食於有喪者之側，未嘗飽也。

子於是日，哭則不歌。

퇴계 이전의 언해에 의하면 ‘未嘗飽’는 ‘포티 못ㅎ더시다’로, ‘不歌’는 ‘歌티 못ㅎ더시다’였던 듯하다. 이는 正文보다 주자 집주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충실한 번역임에 틀림 없다. 주자는 ‘未嘗飽’에 대해 “상을 당하면 슬프므로 달게 자사지 못하는 것이다”(臨喪哀, 不能甘也)라고 註하였다. 《論語集註大全》에는 “주자가 말하기를 ‘미상포는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한다는 뜻이다’”(未嘗飽, 有食不下咽之意)는 小註가 있다. 주자는 또 ‘不歌’에 대해 ‘자연히 노래할 수 없었다(自不能歌也)’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곡은 《논어언해》에서 ‘포티 못ㅎ더시다’라 하여 이 점에 관한 한²¹⁾ 주자註에 충실하고 있다.

퇴계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飽티 못ㅎ더시다 當云 아니ㅎ더시다 歌티 못ㅎ더시다 當云 歌티 아니
터시다²²⁾

퇴계의 주장에 의하면 공자가 상주 곁에 있을 때 배부르게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았으며, 吊喪한 날은 노래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兩字間에는 수동적과 능동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으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과, 자발적으로 절제하여 하지 않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더라도 動機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다는 데 퇴계는 注意하고 있는 것이다.

21) 李珥, 《四書栗谷諺解》, 養賢齋影印本, p. 53.

22) 奎書三, 《논어석의》, p. 199.

(5) 賓不顧

《鄉黨》편 開頭的, 魯君이 孔子를 불러 외국에서 온 賓客을 접대하게 하였을 때의 공자의 言行을 기록한 내용 가운데 빈객이 돌아간 뒤에는 반드시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손이 돌아보는 일이 없었습니다”(賓退, 必復命日, 賓不顧矣.)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주자는 이에 대해 “임금의 敬意를 본다”(紓君敬也)라 하였다.

陳櫟(1252~1334, 新安陳氏)은 朱注를 풀이하여 “舒는 緩, 解의 뜻이다. 빈객이 물러갔어도 主君의 빈객에 대한 敬意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접대자가 주군에게 ‘손님이 가면서 돌아보지 않았다’고 보고하면 주군의 경의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²³⁾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외국사절들에 대해 노나라 君主가 가졌던 경의와 일말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賓不顧矣’라고 보고 한다는 것이다.

竹添光鴻(1842~1917)은 《論語會箋》에서 ‘아마도 임금의 걱정을 풀어주는 것이다. 마땅히 임금을 안심시키는 뜻이라고 말해야 한다.’(蓋放君念也. 注宜言安君之意也)라 하여 朱註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위의 어느 설명을 통해서도 이 不顧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凌廷堪(1755~1809)은 《禮經釋例》에서 “不顧라는 것은 물러갈 때의 禮를 생각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들어오기는 어렵고 물러가기는 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不顧, 退禮略也, 示難進易退之義)²⁴⁾고 하였다.

필자의 寡聞으로는 不顧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중국측 고금 학자

23) 《論語集註大全》, 成大大東文化研究院刊 經書, p. 251.

24) 程樹德, 《論語集釋》, 台北 鼎文書局本에서 재인용.

가운데 凌氏의 말이 唯一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빈객의 신분으로 타국의 王廷에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물러가기는 쉬우므로 돌아보지 않고 간다는 것이다. 不顧하는 이유의 설명으로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퇴계는 이에 대해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 번 뒤돌아 보게 된다. (凡人有未慊事則多顧)²⁵⁾

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빈객에 대한 대접이 적절하여 빈객의 입장에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으므로 뒤돌아봄 없이 갔다는 것이다.

퇴계의 이 한마디는 참으로平易한 설명인 듯하지만 지금껏 아무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6) 道聽而塗說

지금도 항용되고 있는 이 말은 《陽貨》 제14장에 나온다. 이에 대해 퇴계 이전의 언해자는 첫 글자인 ‘道’를 거리, 길의 뜻으로 보지 않고 ‘道理’의 뜻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언해하였다.

道を聽하고 塗에서 說하면²⁶⁾

이에서 더 나아가 ‘塗’ 역시 거리나 길의 뜻으로 보지 않고 ‘糊塗’ 즉 ‘어리석다’는 의미로 보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25) 全書三, 《논어석의》, p. 200.

26) 上揭書, p. 202.

퇴계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도청도설이란 말의 뜻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해 버리고 이를 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덕을 버리는 것이란 뜻이다. 이 네 자는 반드시 그때의 俗語로 공자께서 이를 인용하여 德을 버리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단언하면서부터 格言이 된 듯하다. 현세상의 일반인들도 평상시에 이 네 글자를 말하고 있는데 역시 그 말의 본뜻에 따라 말하고 있을 뿐 조금도 편차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괴이한 說을 지어 냈다. 그는 주자의 집주에 ‘善言’이란 글자가 있음에 집착하여 마침내 道字를 道理의 道字로 생각하였다. 이에 더하여 ‘거리에서 말한다’(即塗而說之)는 것이 실제로 있기 어려운 일로 의심하였다. 이에, 좋은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다만 空言에 부친다는 뜻으로써 아래의 ‘塗’字를 糊塗, 즉 어리석다는 뜻의 塗字로 附會하고 이를 다만 어리석게도 言說에만 부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 이로써 주자집주의 ‘聞善言, 不爲己有’ 가운데 ‘不爲己有’ 네 글자를 설명하였다. 이 두 가지 說에 있어 위의 것은 ‘道’字의 풀이에 오류가 있고 아래의 것은 ‘塗’字의 풀이에 오류가 있다. 이것이 되고 오류를 인습하여 단단히 굳어 후학들을 그르치고 있으니 어찌 통탄치 않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성균관에 있을 때 이에 대해 논한 바 있는데 同知 周某는 즉시 내 말을 받아들였고 司藝 許某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뒤에는 믿게 되었다.²⁷⁾

이로써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廳說이 나오게 된 연유는 주자집주에서 ‘도청이도설’을 해석하여 ‘善言을 듣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

27) 本言在道而聽之, 即塗而說之, 無意於行之者, 是自棄其德也, 此四字必當時俗語, 夫子舉之而以德之棄一言斷之, 使爲格言耳. 且如今世俗人尋常說此四字, 亦依其本意而稱之, 了無差誤, 不知自何先儒鑿成怪說. 因註有言字, 遂貼認道字爲道理之道, 又疑即塗而說之, 似非其事宜, 乃以聞言不行, 只付之空言之意, 遂附會塗字爲糊塗之塗, 解作只糊塗於言說, 以就註文不爲己有之云, 今此二說, 上誤在道字, 下說誤在塗字, 傳訛襲謬, 牢不可破, 以誤後學, 豈不可傷哉! 頃在泮論此, 同知周景○, 即見信以爲然, 司藝許太○, 初尙不然, 後乃信云.(全書三 《論語釋義》 p. 202)

한다’(聞善言, 不爲己有)라고 한 데 있었던 것이다. 이럴 경우 전체의 뜻은 ‘善言(道)을 듣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길에서 말해 버린다.’가 되었고,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 하필이면 거리(塗)에서 말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어 마침내 塗字를 糊塗의 塗字로 보아 ‘善言을 듣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입으로만 말해 버린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던 것이다.

주자의 註는 오해받을 소지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道理’나 ‘糊塗’의 의미로 본 것이 아님은 퇴계의 朱書 검증을 통해 확연히 나타난다. 퇴계가 引證하고 있다시피 朱子가 趙然道나 劉子澄에게 쓴 答書²⁸⁾에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길’을 ‘도리’로 보는 특이한 說이 한때 대부분의 독서인 사이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정주학에 대한 지나친 傾倒나 臆作을 짐작케 하는 尺度가 될 수도 있다. 퇴계의 주장을 즉시 받아들인 周某는 慎齋 周世鵬(字 景遊)이고 뒤늦게 받아들인 許某는 草堂 許曄(字 太輝)이다.

‘道를 聽호고’를 부정하고 “道에 聽호고”로 바로잡은 퇴계의 說은 그대로 官撰《논어언해》와 울곡의 《논어언해》로 이어졌던 것이다.

(7) 期已久矣

《陽貨》 제21장 앞머리는 宰我が 短喪說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재아가 묻기를, “삼년상은 期已久矣 군자가 삼 년 동안이나 禮儀를 익히지 않으면 예의는 반드시 어그러질 것이고, 삼 년 동안이나 음악을

28) 同上書, p. 202 참조.

연주치 않으면 음악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입니다. (일 년이면) 지난 해의 곡식은 다 먹었고 햇곡식이 이미 등장하였고 불쏘시개용 나무도 고루 사용하여 한 바퀴 돌아 다시 시작하니 服喪도 일 년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宰我問“三年之喪，期已久矣，君子三年不爲禮，禮必壞，三年不爲樂，樂必崩，舊穀既沒，新穀既升，鑽燧改火，期可已矣。”)

여기에 두 번 나오는 ‘期字’의 해석에 있어 뒷부분 ‘期可已矣’의 ‘期’가 年을 의미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나 앞머리 ‘期已久矣’의 ‘期字’에 대해 퇴계는 일반적인 해석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期字의 일반적인 해석은 ‘期間’이며 동시에 바로 ‘三年之喪’의 ‘三年’을 뜻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近來의 각종 白話譯에 있어서도 例外는 없었다.

퇴계는 이를 ‘三年의 期間’으로 보지 않고 ‘一年’의 뜻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언해하고 있다.

期만 흠도 이미 오라도소이다

이를 현대어로 고치면 ‘일 년만 함도 이미 오래입니다’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를 위해 服喪함에 있어 삼 년은 너무 길고 일 년만 하는 것도 이미 짧지는 않다’는 뜻이겠다. 퇴계는 뒷부분의 期字를 해석함에 있어 ‘期만 하고 可히 말거시오이다’라 하여 期字 해석에 대한 一貫性을 유지하고 있다.

율곡 또한 《논어언해》에서 ‘期에 이미 오라도소이다’라 풀이하고 있다. 그 역시 一年의 뜻으로 보고 있음은 宰我의 強辨 가운데 뒷부분에 나오는 ‘期可已矣’를 번역함에 있어 ‘期에 가히 말거시오이다’라 하고 있음에도 확인할 수 있다.

퇴계가 이러한 해석을 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宰我是 《八佾》 21장에서 魯哀公이 토지신의 神主를 만드는데 무슨 나무를 쓰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근거 없는 소리를 지껄였다가 孔子에게 힐책당하고,²⁹⁾ 《公治長》 10장에서는 낮잠을 자다 들켜 썩은 나무나 더러운 흙담에 비유되는 망신을 당하고 있는³⁰⁾ 등 논어 전편에 걸쳐 가끔 부정적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本章의 ‘短喪說’은 직접 질문을 받은 공자뿐 아니라 역대의 보수 성향의 유학자들로 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다는 점이 퇴계에게 영향을 끼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일반적 해석인 ‘부모를 위한 삼년상은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보다 ‘부모를 위해 삼년상을 입는데 사실은 일 년만 해도 짧은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여러 가지 情況에 비추어 볼 때 일년상 정도가 적당하다(期可已矣)’라고 한다면 부정적이며 경망한 이미지는 더욱 克明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용에 있어 이러할 뿐 아니라 文法上에 있어서도 조금도 무리함 없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두 번째는 주자가 ‘期已久矣’를 注하여 ‘기는 일년이다’(期, 周年也)라 하였기 때문이다. 期間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朱注를 ‘期’字에 대한 단순한 字義 풀이로 보았을 뿐인 듯하다. 이와 달리 퇴계는 이 문장구조 속에서의 意味 풀이로 보았던 것이다.

이렇듯 ‘期已久矣’에 대한 퇴계의 해석은 여타의 학자와는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29) 哀公問社於宰我,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柏, 周人以栗, 曰, 使民戰栗.” 子聞之, 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既往不咎.”(八佾)

30) 宰予晝寢, 子曰, “朽木不可離也, 糞土之牆不可朽也, 於予與何誅?”(公治長)

IV. 結語

퇴계는 《論語釋義》를 통하여 기존 諺解에 있어서의 誤謬를 바로 잡고, 동시에 해석학적인 면에 있어서의 자신의 독특한 創見과 특기할 만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퇴계가 《논어석의》를 통해 제시한 언해상의 견해들은 宣祖年間に 完成된 官撰本 언해에 대부분이 수용되었다. 이 관찬본은 조선 중엽 이후 널리 보급되어 士子들의 사서 이해에 큰 영향을 끼쳤다.

퇴계의 논어 해석에 있어서의 특징적 면모는 다음과 같다.

첫째, 《學而》편의 '易色'을 해석함에 있어 '色'을 '女色'의 의미로 보지 않고 '顏色'의 뜻으로 보아 心態와 動態의 合致를 추구하였다는 점.

둘째, 《里仁》편의 '不以其道得之'에 대한 종래의 吐인 '라도'를 부정하고 '어든'이라 하여 君子가 빈천을 대하는 자세와 小人이 빈천을 대하는 자세의 確연한 구분을 기했다는 점.

셋째, 《雍也》편의 '亡之'를 해석함에 있어 종래의 통설인 死亡之亡說을 부정하고 有無之亡說을 주장하여 聖인 性인 道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

넷째, 《述而》편의 '未嘗飽' '不歌'를 해석함에 있어 종래의 '배부르게 먹지 못하였다' '노래하지 못하였다'는 해석을 부정하고 '먹지 않았다' '노래하지 않았다'로 풀이하여 상황을 皮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能동적으로 대처하였다고 주장한 점.

다섯째, 《鄉黨》편의 '賓不顧'의 이유가 빈객에 대한 접대가 예의에 맞게 적절했기 때문이란 점을 밝힌 것.

여섯째, 《陽貨》편의 '道聽而塗說'을 해석함에 있어 당시 사람들의

지나친 친척이 낳은 臆說을 불식하고 正解로 돌아오도록 力說한 점.

일곱째, 역시 《陽貨》편의 宰我 短喪說에 있어서의 ‘期已久矣’를 해석할 때 종래의 ‘期間’說을 부정하고 ‘一年’說을 주장하여 宰我的 反派人物로서의 역할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東儒四書解集評》

《論語講錄》

《論語釋義》

《論語集註大全》

《十三經注疏》

《朱子語類》

《增補退溪全書》

唐滿先, 《論語今譯》, 江西人民出版社, 1980.

李珥(朝鮮), 《四書栗谷先生諺解》, 成均館大學 養賢齋, 1974.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國語國文學辭典》, 新丘文化社, 1981.

宣祖(朝鮮) 命撰, 《四書諺解》, 保景文化社, 1983.

楊伯峻 譯注, 《論語譯注》, 明倫出版社, 1971.

程樹德, 《論語集釋》, 鼎文書局本, 1943.

韓相甲 譯, 《論語》, 三省出版社, 1976.

胡廣, 《論語集註大全》, 成大大東文化研究院刊, 1981.

문헌 연구로서의 경전 연구*

－ 『논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강재**

-
1. 들어가면서
 2. 중국의 문헌과 문헌학
 3. 『논어』 연구에 반영된 문헌학
 - 1) 『논어』의 편찬 시기
 - 2) 관중(管仲)에 대한 평가와 삼론(三論)
 - 3) 전래된 『논어』의 판본
 - 4) 공자와 『주역』의 관계
 - 5) 문자학 연구 성과의 반영
 4. 고증학적 학문 전통과 동아시아 고전의 이해
 5. 맺음말
-

■ 국문요약

이 글은 유가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한 글이다. 중국은 청나라 시기 문헌학이 발달하여 경전의 해석과 연구에 반영되었는데, 이에 비하여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의리 중심의 연구에 머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창립 25주년 기념 학술대회(2014.12.3.)에서 구두로 발표한 바 있는 『동양고전학에서 문헌학의 중요성』에서 출발하여, 그 동안의 내 생각과 환경의 변화를 일부 반영하여 수정 작성된 것이다. 또한 2023년 한국경학학회 추계학술대회(2023.11.11.)에서 구두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김도일 교수(성균관대)의 고귀한 의견에서 영감받은 바가 크다.

** 서울대 중문학과 교수 / E-mail : likangqi@snu.ac.kr

물러 있다. 이 글에서는 『논어』의 사례를 들어 문헌학적 성과가 어떻게 경전 연구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논어』의 사례로 이 글에서는 『논어』의 편찬 시기가 편별로 다르다는 것, 관중에 대한 평가에 나타난 모순, 전래된 『논어』의 판본, 공자와 『주역』의 관계, 문자학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경전 연구 등을 언급한다. 또한 동아시아 고전연구, 특히 유가 경전 연구에서 고증학적 성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 유가경전, 문헌학, 『논어』, 판본, 문자학, 편찬시기, 관중

1. 들어가면서

이 글은 유가의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의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한 사항에 대한 논쟁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¹⁾ 사실 고전연구에서 문헌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그 중요성을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전통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문헌학적 연구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이는 유가의 경전을 학습할 때 주희(朱熹) 중심의 송학(宋學)에 의존해 왔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송학은 경전의 내면적, 철학적 의미를 중시하는 ‘의리지학(意理之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한대(漢代)에 흥성했던 훈고학(訓詁學)을 자살하게 구절에 대한 이해에 치우쳤다는 ‘장구지학(章句之學)’ 혹은 귀로 듣고 입으로 떠드는 천박한 학문이라는 ‘구이지학(口耳之學)’이라 비하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희의 학문이 고려 시대 말에 소개된 이후 조선 시대 내내 ‘의리지학’이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다.

1) 이 글에는 내가 이전에 문헌학의 성과를 반영하여 『논어』 관련 논문이나 단행본을 내면서 썼던 여러 글에서 가져온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청대(清代)에 이르러 '대단이왕(戴段二王)'이라 부르는 대진(戴震), 단옥재(段玉裁), 왕념손(王念孫)과 왕인지(王引之) 부자의 업적, 또 이를 계승한 유월(俞越)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한 청학(淸學), 즉 고증학(考證學)에서 문헌학적 방법으로 고전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실학 연구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연구의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의리지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증학적 전통의 영향을 깊이 받아 형성된 현대 중국의 문헌학, 청학 중심의 학문적 전통을 살려 고전연구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교토대학(京都大學)을 비롯한 일본의 상황과 다르다.²⁾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통 시대 우리나라에 고증학 연구가 가능할 정도의 문헌이 부족했다거나 송학이 관학으로서의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것 등이 언급된다.³⁾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여기서 논외로 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고전연구의 하나로서의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적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향후 유가의 경서연구에서 문헌학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중국의 문헌과 문헌학

중국은 역대로 문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헌이 풍부한 나

2) 이동철, 「한국 문헌학의 발전방향 - 고전정리의 관점에서」, 2010.6.12. 『충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3) 2023년 한국경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도일 교수는 우리나라 학계의 경전연구에서 문헌학적 방법론이 많이 수용되지 않은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의리지학의 성행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관점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나는 의리지학의 중시가 문헌학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갖도록 만들었다는 점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라에 속한다. 서한(西漢) 초기에 13,269권의 국가장서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청대에 이루어진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총목(總目)과 존목(存目)에 따르면 당시의 국가 장서량이 172,860권에 이르렀다고 한다.⁴⁾ 여기에는 개인이 소장한 책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기에 실제 문헌의 양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진시황(秦始皇) 때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비롯하여 중국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대규모 문헌 소실의 역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만들어지고 유통된 문헌의 양은 훨씬 방대하였을 것이다.⁵⁾

중국에서 문헌의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완전한 문자 체계인 갑골문(甲骨文)이 B.C.13~15세기에 이미 있었고 또 한자의 기원이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라고 한 것에 근거할 때 그것이 매우 이른 시기인 것이 분명하다. 『상서(尙書)』에는 문헌의 기원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1) 당신들도 알다시피, 상(商)나라 선조에게는 사적(冊)과 전적(典)이 있었기에 상나라가 하(夏)나라의 명(命)을 바꿀 수 있었다.⁶⁾ 「다사(多士)」

여기에서 말하는 ‘책(冊)’은 죽간의 묶음을 의미하며, ‘전(典)’은 책을 두 손으로 받든 모양으로 중요한 전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 구절은,

4) 서원남, 『중국문화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2005, 제이앤씨, 20~23쪽

5) 중국은 2022년 7월 중국국립판본관(中國國家板本館)을 준공했다. 과거 사고(四庫)의 체계를 따라 중앙본관인 베이징의 문한각(文瀚閣)과 시안분관 문제각(文濟閣), 항저우분관 문윤각(文潤閣), 광저우분관 문심각(文沁閣)을 각각 개관하였으며, 고서적 등 2,400만 건의 판본을 소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의 문헌을 수집, 정리, 연구,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https://www.cnapc.cn/>

6) 惟爾知，惟殷先人有冊有典，殷革夏命。

기원전 17세기 전후인 하나라와 상나라의 교체기에 이미 상당수의 전적이 있었고 그것이 기존의 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된다. 물론 이 구절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라 때 이미 상당한 문헌이 있었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전해지는 ‘문헌(文獻)’이라는 말은 문헌의 출현보다 훨씬 후대인 공자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공자는 중국 고대문화 혹은 문헌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민간에 유행하던 시가와 국가 공식 행사의 의전에 쓰이던 노래를 모아 『시경(詩經)』을 편하였다. 또 노(魯)나라의 역사서인 『춘추(春秋)』를 직접 저술하기도 하였다. 공자는 젊은 시절 천자가 사는 주(周)나라의 수도 낙읍(洛邑)의 궁정도서관에서 당시 볼 수 있는 문헌을 대부분 공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 편찬된 『논어』에는 ‘문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공자의 언급이 있다.

(2) 하나라의 예에 대해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라의 후예인 기나라의 자료만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은나라의 예에 대해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은나라의 후예인 송나라의 자료만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는 문헌(文獻)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만약 자료가 충분하다면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⁷⁾ 「팔일(八佾)」

과거 『논어』에 주석을 달았던 학자들은 공자가 말한 ‘문헌(文獻)’이 현재 우리가 말하는 문헌과 동일하다고 보지 않았다.⁸⁾ 가령, 한나라 때

7) 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文獻不足故也。足則吾能徵之矣。

8) ‘文獻’의 정의 및 그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는 서원남의 앞의 책 11~15쪽을 참고할

의 정현(鄭玄)은 위 구절에 대한 해설에서 ‘文’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獻’에 대해서만 “獻, 猶賢也.”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獻’이 어질다, 혹은 어진 사람을 뜻하는 ‘賢’과 같은 뜻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는 한 나라 때 유행했던 음운문적 유사성으로 낱말을 풀이하는 성훈(聲訓)의 전통이 반영되어 ‘獻’과 음이 유사한 ‘賢’으로 뜻을 풀이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유가적인 전적이거나 현인들 혹은 현인들의 말을 문헌의 범주로 설명함으로써 문자로 기록된 일반적인 자료나 보통 사람의 생각이 기록된 것은 문헌의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송학의 대표주자인 주희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위 구절의 주석에서 “文은 전적이다. 獻은 어진 사람이다.”⁹⁾라는 설명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유가경전에 대한 존숭을 주도했던 학자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자의 인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헌의 범주를 비교적 좁게 보았던 것만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송말원초(宋末元初) 마단림(馬端臨: 1254~1323)의 『文獻通考』의 서문에서는 ‘文’을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敘事之文)으로, ‘獻’을 어떤 일에 대해 논의하는 말(論事之言)로 구분하면서, ‘文’ 속에 유교 경전과 역사서 외에 제자백가의 서적도 포함하였으며 ‘獻’에 유생이 아닌 일반인의 글이나 패관(稗官)의 기록도 포함하였다.¹⁰⁾ 이는 문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대의 의미에 근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중국에서 간행된 『漢語大詞典』은 고대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의 단어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 방대한 사전인데, 여기에는 전통적인 ‘문헌’에 대한 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다. ‘文獻’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 항

것.

9) 文, 典籍也. 獻, 賢也.

10) <http://baike.baidu.com/subview/70348/10537160.htm?fr=aladdin>

목으로 “전장, 제도와 관련된 문자 자료와 옛 고사를 많이 알고 익숙한 사람”¹¹⁾이라는 뜻을 제시하고 두 번째 의미 항목에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거나 참고 가치가 있는 도서 자료를 전적으로 가리킨다.”¹²⁾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의미 항목은 전통적인 문헌 개념에 가깝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 항목은 현대의 정의에 가깝다. 현대사회에서 문헌의 범주는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단순히 역사적 의미나 연구 가치가 있는 문자로 된 서적뿐만 아니라 지식을 기록하는 일체를 나타낸다. 또 20세기 이후 지하에서 출토된 문헌 자료나 고고학적 유물에 새겨진 언어 자료 또한 문헌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헌 연구의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문헌학은 문헌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며, 결국 고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중국에서의 고전연구는 주로 고적 정리 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중국의 고전연구는 고전의 깊은 의미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이 때문에 고전연구가 문헌학적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대표적인 고전인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 등의 선진(先秦) 시대의 문헌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라는 문서 훼손과 이후 한나라 때에 이루어진 문서 복원의 역사를 거쳐 우리에게 전해졌다. 따라서 문헌으로서의 완성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전통적인 문헌학에는 문자학(혹은 한자학), 훈고학, 목록학, 판본학, 교감학, 고증학, 주석학 등이 포함된다. 물론 유가 경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학 연구도 문헌학의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다. 문자학은 한자의 기원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 의미의 변천을 연구하는 분야

11) 有關典章制度的文字資料和多聞熟悉掌故的人。

12) 專指有歷史價值或參考價值的圖書資料。

이며, 훈고학은 단어와 장구의 의미를 탐구하는 분야이다. 『논어』의 경우 초기 주석서인 『논어집해(論語集解)』가 『논어』에 대한 훈고학적 성과를 반영한 책이다. 목록학은 도서의 목록을 분류하고 모아놓은 서적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문헌의 편찬과정이나 전래 과정 등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된다. 판본학은 다양한 판본의 특성과 형성 및 판본 사이의 차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교감학의 경우 다양한 판본의 대조 등을 통해 문헌의 오류를 검증하여 가장 합당한 문헌의 모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학문이다. 또한 고증학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헌학이 종합되어 문헌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실증하는 학문으로 청나라 때 꽃피웠다. 주석학은 위에서 언급한 문헌학 성과를 바탕으로 고전 원전에 대하여 행하는 주석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문헌학이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말 유가경전 13경을 모두 편찬한 완원(阮元)의 13경주소 편찬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3. 『논어』 연구에 반영된 문헌학

문헌학은 고전학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전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학문 분야인 철학, 역사학, 문학 등에서도 중요하다. 문헌학이 모든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라는 말이다. 이제 『논어』의 사례를 들어 경전 연구에 있어서 문헌학적 성과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논어』의 편찬 시기

여러 판본에 대한 인식과 문헌 내부의 언어에 대한 분석, 그리고 『논

어』의 전래 과정을 고려할 때, 『논어』는 어느 한 시기에 편찬되지 않았다. 『논어』의 편찬 시기는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이(學而)」에서 「향당(鄉黨)」에 이르는 상십편(上十篇)은 대체로 전국(戰國) 시대 초기에 편찬되었고, 「선진(先進)」에서 「요왈(堯曰)」에 이르는 하십편(下十篇)은 『맹자(孟子)』보다 늦은 전국 시대 말기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하십편 내에서도 제11편에서 제15편까지의 앞 5편과 제16편에서 제20편에까지의 뒤 5편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가령, 앞 5편에서는 공자의 말을 기록할 때 ‘子曰’이라고 시작하는데 뒤 5편 중 「계씨(季氏)」와 「미자(微子)」에는 모두 ‘孔子曰’로 시작하고 있고, 「자장(子張)」에서는 ‘仲尼曰’이라고 한 곳이 있다. ‘孔子曰’, ‘仲尼曰’은 ‘子曰’에 비해 친밀감과 존경심이 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공자로부터 시대가 더 떨어진 때의 기록이라고 추정한다.

이를 통해, 『논어』의 편찬에 대해 다음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상론은 공자 사후 그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 먼저 편찬된 것이다. 하론 중 제11편에서 제15편에 이르는 부분은 일종의 속편으로 증거가 죽은 후 공자 제자의 제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하론 중 마지막 후 5편은 맹자 때 혹은 맹자 사후인 전국 말기에 학자들에 의해 불확실한 자료들이 추가된 상태로 편찬된 것이다. 이를 통해 『논어』가 하나의 학파에 의해 일관된 관점에서 편찬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파벌들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¹⁴⁾

13) 이는 아래에 이어지는 청대 최술(崔述)의 주장에서 출발한다.

14) 이강재의 『논어-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조화』 “제3장 『논어』의 명칭과 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23년 한국경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도일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편찬 시기의 구질 사이에서 어떤 유의미한 사상적 혹은 개념적 차이를 발견할 것인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는 여기에서 언급한 문헌의 편찬 과정과 별개의 문제로 향후 연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은 청나라 말기 최술(崔述)이 『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 『수사고신여록(洙泗考信餘錄)』 및 「논어여설(論語餘說)」에서 제기한 것인데, 현대 胡志奎의 『논어변증(論語辨證)』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 H. G. Creel 역시 『공자 인간과 신화』에서 이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김학주 편저 『논어』의 해제에서 최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최술의 연구 이후 현재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은 없는 듯하다.

또한 최술은 『논어』의 편장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논어여설」에서 “『논어』 편장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가려낸다.”라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고, 『논어』의 마지막 5편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을 구절별로 논의하고 있다.¹⁵⁾

(3) 『논어』의 뒤의 5편에서 「자장(子張)」만이 제자들의 말을 기록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고 「계씨(季氏)」, 「양화(陽貨)」, 「미자(微子)」, 「요왈(堯曰)」 4편에는 의심나는 것이 대단히 많다. 앞의 15편 끝의 한두 장에도 어색한 것이 끼어 있다. 아마 지금 판본이 한나라 초기의 제나라와 노나라에서 전해지던 옛 판본이 아니고 장우(張禹)가 모아서 정리한 판본이라 그런 것 같다.

최술은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4편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하면서 학자들이 문헌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 6장 2절

사실을 의심할 만한 것, 6장

15) 이곳의 최술의 견해는 『논어 관련 자료집』(1992년 서울대 중문과 경서연구 강의 자료집)에서 재인용함.

의미는 의심나지 않으나 문체가 어색한 것, 9장
 대단히 문체가 의심스러운 것, 2장
 문인들이 공자(孔子) 앞에서 ‘夫子’라고 칭하여 사실을 의심할 만한
 것
 의미나 문체가 모두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 것, 20장
 조금 의심되나 의미에 하자가 없는 것, 2장
 사실을 믿을 만한 것, 4장 7절

이처럼 청말에 연구된 판본학과 고증학적 연구는 『논어』 전편을 하나의 편찬 시기로 보면서 경전 내의 모든 구절을 공자의 언설로 보았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논어』를 문헌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였다. 또 이로 인하여 『논어』 연구의 다양한 시각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2) 관중(管仲)에 대한 평가와 삼론(三論)

『논어』에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많이 들어있다. 이 중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桓公)이 패자가 되도록 도왔던 관중(管仲)에 대한 평가는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가령, 제3편 「팔일(八佾)」에서는 “관중의 그릇은 작구나!”¹⁶⁾라고 하면서, 관중은 검소하지도 않고 예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혹평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14편 「헌문(憲問)」에서는 “만약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랑캐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했을 것이다.”¹⁷⁾라고 관중의 공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의 인함이며, 그의 인함이어.”¹⁸⁾라고 극찬을 하고 있다. 이처럼 관중에 대한

16) 管仲之器小哉.

17) 微管仲，吾其被髮左衽矣.

18) 如其仁，如其仁.

평가가 『논어』에서 극단적으로 상이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그동안 공자가 일관성 없다는 비판을 하거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억지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유가에서 관중과 제 환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맹자는 “중니의 제자 중에 제 환공과 진 문공의 일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¹⁹⁾라고 하여 춘추시대의 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환공의 재상이었던 관중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4)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의 요직을 맡으신다면 관중과 안자가 세웠던 공적을 다시 이룩하실 수 있으십니까?” 맹자는 이에 답하였다. “그대는 정말 제나라 사람이구나. 관중과 안자만을 알고 있으니. …… 관중은 군주의 신임을 얻어 나라 국사를 그렇게 멋대로 하였고 국정을 맡아 그렇게 오래 하였는데도 그의 공적은 그토록 변변치 않은데…”²⁰⁾ 「공손추상(公孫丑上)」

공자의 사상을 가장 잘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맹자에게 있어서 관중은 하찮은 인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관중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논어』에 들어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관중에 대한 「헌문」의 이야기가 후대에 『논어』 편찬과정에서 제나라 출신 제자들의 역할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위에서 보듯이 관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던 공손추에 대해 맹자가 “그대는 제나라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논어』의 편찬과정에서 여러 지역 출신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이

19) 「양혜왕상(梁惠王上)」 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者

20) 公孫丑問曰, “夫子當路於齊, 管仲晏子之功, 可復許乎?” 孟子曰, “子誠齊人也. 知管仲晏子而已矣. …… 管仲得君如彼其專也, 行乎國政如彼其久也, 功烈如彼其卑也.”

때문에 『논어』 앞과 뒤의 내용상에 모순이 보이는 것이다. 즉 노나라 출신 학자들은 오패(五霸)나 그를 도왔던 관중 같은 사람을 언급하기조차 싫어한 것에 반하여 제나라 출신 학자들은 자국 출신인 관중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나라 때 『논어』의 전래 과정에서 처음 노나라의 『논어』인 노론(魯論)과 제나라의 『논어』인 제론(齊論)이 함께 통행 되었던 것과도 관련된 것이다.²¹⁾

노론과 제론의 기술 방식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문헌학적 연구에 의하면, 제14편 「헌문」 중 16, 17, 18장에서 제 환공과 관중을 찬양하는 글은 제론에서 들어간 것이고²²⁾, 또 「계씨(季氏)」, 「양화(陽貨)」, 「요왈(堯曰)」에서 ‘子曰’이라고 하지 않고 ‘孔子曰’이라고 한 것은 공자의 제자에 의해 기술된 것이 아니라 제론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옛날의 『논어』인 ‘고론(古論)’을 포함하면 더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고론과 노론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노론에서는 가차자(假借字)를 많이 쓰고 고론에서는 본자(本字)를 많이 쓴다. 가령, 제5편 「공야장(公冶長)」의 “千乘之國, 可使治其賦也.(천승의 나라에서는 그 군대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구절에 쓰인 ‘賦’자를, 노론에서는 ‘傅’라고 쓰고 고론에서는 ‘賦’라고 했다.²³⁾ 이처럼 제론, 노론, 고론이라는 세 가지 『논어』의 차이점에 대해 문헌학적 검토가 들어가야 올바른 『논어』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²⁴⁾

21) 2023년 한국경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도일 교수는, 관중에 대한 평가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 공자가 아직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와, 관중이 비록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인의 공(仁之功)을 세웠지만 여전히 인한 사람은 아니라는 주희의 관점을 소개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문헌학적 검토와 별개로, 『논어』에 나타난 관중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견해이다.

22) 袁枚의 『小倉山房文集』 권24. 林昶乾의 『論語導讀』에서 재인용.

23) 이 세 가지 『논어』가 『논어』 편집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는 린령첸(林昶乾)의 『논어도독(論語導讀)』을 참고할 것. 앞의 『논어』 관련 자료집』 23쪽에서 재인용.

3) 전래된 『논어』의 판본

국내에서 『논어』를 연구할 때 주희 『논어집주』의 경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 시대에 주희의 존숭으로 인하여 집주의 출판이 많았고, 특히 정조(正祖) 정유년(丁酉年, 1777년)에 금속활자 정유자(丁酉字)로 간행한 내각본(內閣本) 『논어집주대전(論語集註大全)』을 선호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논어』의 판본이 다양한데, 그 중 집주본을 저본으로 삼을 근거는 없다. 집주본은 송대 형병(邢昺)이 편찬한 『論語注疏』의 경문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이 경문을 저본으로 삼는다면 형병본을 저본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주희의 성리학적 『논어』 이해를 중시하였기에 문헌학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1966년 타이완(臺灣)의 예문인서관(藝文印書館)에서 영인 출판한 무구비재논어집성(無求備齋論語集成)에는 매우 다양한 『논어』 판본이 수록되어 있어서 『논어』의 판본 비교에 도움이 된다. 또 청말의 지부족재총서(知不足齋叢書)나 고일총서(古逸叢書) 등에도 판본 연구에 유용한 『논어』 판본이 여러 가지 수록되어 있다. 판본 비교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漢石經, 唐石經, 宋石經에 잔본으로 남아있는 『논어』 구절, 知不足齋 皇侃本, 懷德堂 皇侃本, 正平本, 天文本, 元刊本, 津藩本, 集註本, 閩本, 北監本, 毛本, 高麗本 등이 있다. 또한 여러 책에 흩어져 보이는 『논어』 구절을 모아놓거나 원문을 교감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을 남긴 것들도 판본 연구에 도움이 된다. 가령, 적호(翟灝)의 『사서고이(四書考異)』, 진전(陳鱣)의 『논어고훈(論語古訓)』, 풍등부(馮登府)의 『논어이

24) 노론의 문제에 대해 이강재 외, 「『論語正義』에 나타난 노론」(2018.5 『인문논총』 제 75권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을 참고할 것.

문고증(論語異文考證)』 그리고 『당석경논어고정(唐石經論語考正)』, 『논어고훈(論語古訓)』, 『논어교감기(論語校勘記)』, 『천문본교감기(天文本校勘記)』, 『논어의소교감기(論語義疏校勘記)』²⁵⁾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볼 때, 형병의 『논어주소』를 기준으로 할 때 모두 15,919자로 이루어져 있는 『논어』 경문의 경우, 장마다 판본별로 차이가 없는 구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학파에서 정본으로 정한 판본만을 기준으로 『논어』를 연구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판본에 대한 비교와 연구는 고대중국어의 문법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 宰我問曰，仁者雖告之曰，井有仁焉，其從之也。（「옹야(雍也)」）
 재아가 “인한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이 그에게 ‘우물 속에 인자가 있다’라고 거짓을 말한다면 그 말을 믿고 우물 속으로 따라 들어가겠습니까?”라고 물었다.
- (6) 克伐怨欲，不行焉，可以爲仁矣。（「헌문(憲問)」）
 이기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욕심을 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 두 문장은 양보권(楊伯峻)의 『논어역주(論語譯注)』는 물론 대부분의 국내외 역주서에서 의문문으로 다루고 있는 문장이다. 사용된 어휘만으로 볼 때 의문문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도 전후 문맥에 따라 해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대중국어 문법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위 문장의 끝에 쓰인 어기사 ‘也’와 ‘矣’에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위의 두 예문을 제외하고 『논어』에 출현한 ‘也’와 ‘矣’는 모두 평서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기

25) 자세한 판본과 교감기록 등에 대한 소개는 이강재, 「논어 상십편의 해석에 대한 연구」 참고.

능을 하는데 이것이 의문문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한다면, 한문으로 된 고전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 두 어기사를 만났을 때 혼란을 겪게 된다. 또 의문사나 의문어기사 중 어느 것도 쓰이지 않은 문장이 의문문이라면 이 또한 혼란을 줄 수 있다. 현대 중국어의 경우 문장의 높낮이 등의 어조(語調)를 통해 의문사 없이 의문문을 쓸 수 있지만, 고대 중국어로 된 문장에서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면 고문헌의 해독에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게 된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의 다른 판본을 조사해보면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²⁶⁾ 즉 (5)의 경우, 황간(皇侃)의 『논어의소(論語義疏)』에서는 ‘也’ 대신 ‘與’를 쓰고 있는데, 이 ‘與’는 약한 의문의 어기나 확인을 묻는 의문문에 쓰이는 어기사라는 점에서 (5)의 문장이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6)의 경우에도, 『사기(史記)』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과 『삼국지(三國志)·종리목전(鍾離牧傳)』에서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可以爲仁乎”라고 하였는데²⁷⁾, ‘乎’는 강한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말이므로 이 문장이 의문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논어』 판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문의 문법적인 문제가 여러 판본의 검토를 통해 교감했을 때 새롭게 이해가 될 수 있다.

4) 공자와 『주역』의 관계

전통적으로 공자가 『주역』에서 ‘십익(十翼)’이라 부르는 서괘전(序卦

26) 여기에서 논하는 판본상의 차이와 문법적인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강재, 「의문문 문말어기사의 기능 및 특성 연구 - 『논어』를 중심으로」(『중국문학』 제24집, 1995, 한국중국어문학회) 참고.

27) 이는 정수덕(程樹德)의 『논어집석(論語集釋)』(1990, 中華書局)에서 재인용한 것임.

傳), 계사전(繫辭傳), 문언전(文言傳) 등의 열 가지 '전(傳)'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주역』에 '子曰'이라고 인용된 것에서 출발한 인식이다. 또 『논어』에는 공자가 직접 『주역』을 언급한 다음 구절이 있다.

(7)子曰,“加我數年,五十以學易,可以無大過矣.”(「술이(述而)」)

이 구절은 보통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을 더 주어 나이 50이 될 때까지 계속 『주역』을 공부할 수 있다면 큰 잘못은 없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이에 의할 때, 공자는 나이 50이 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였고, 『주역』이라는 책을 매우 중시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대화나 가르침을 대체로 신뢰해 왔던 전통적인 경전 이해에 의한다면, 『주역』 중시에 대한 공자의 선언적 의미를 갖는 구절이다. 또한 공자가 『주역』을 열심히 학습하여 책을 제본했던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위편 삼절(韋編三絕)의 고사가 있다. 이 역시 공자의 『주역』에 대한 선호도를 방증하는 것으로도 인용되지만, 위작 논란이 있는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나온다는 것이 문제이다.

『주역』을 점을 치는 데 쓰는 책으로 보든 아니면 의리를 담고 있는 책으로 보든, 『주역』의 내용이 『논어』의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때문에 『논어』의 이 구절이 정말 공자의 이야기일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문헌학적 검토를 통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만나게 된다.²⁸⁾

공자가 『주역』을 지었다는 것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예문지

28)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 외에 이 구절의 '加', '五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설이 있으며, '易'자를 쉽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강재, 『논어 상십편의 해석에 대한 연구』를 참고. 여기서는 『주역』에 대한 문제로 한정해서 논하고자 한다.

(藝文志)』에 처음 등장하며, 『논어집해』나 『논어집주』의 경우 모두 이 ‘易’자를 『주역』으로 해석한다. 공자와 『주역』의 관계에 대해 처음 의문을 제기한 것은 송대 구양수(歐陽修)의 「易童子問」에서 시작되며 이후 청대 문헌학의 전성시대에 와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에 앞서 당대(唐代)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에서 “學易은 원래의 글자대로 보아야 한다. 노나라 『논어』(魯論)에서는 ‘易’을 ‘亦’으로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옛날 『논어』(古論)를 따른다.”²⁹⁾라는 말이 의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청대 혜동(惠棟)은 『구경고의(九經古義)』에서 “외황령고표비(外黃令高彪碑)에서 ‘편안히 욕심 없이 요약함을 지켰으며, 50이 되어서도 배웠다’라 하였는데, 이는 노나라 『논어』를 따른 것으로 ‘亦’자를 아래에 이어 읽은 것이다.”³⁰⁾라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노나라의 『논어』에는 “加我數年，五十以學，亦可以無大過矣.”로 쓰여있으며,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을 더 주어 끝까지 계속 학문을 할 수 있다면 큰 잘못은 없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된다. 공자가 『주역』을 편찬한 사실이 『논어』에 보이는 것은 단지 이 한 곳이니 만일 노나라 『논어』와 같다면 과거 학자들의 말처럼 공자는 『주역』을 편찬한 적이 없게 된다. 즉, ‘易’자를 ‘亦’으로 쓰인 문헌의 존재와 『논어』가 나온 산둥 지방의 방언의 용례에 근거해서 ‘易’자를 사이에 두고 끊어 읽기를 한다면, 공자가 『주역』을 중시했다는 것의 근거가 없어지며 그가 『주역』의 여러 전(傳)을 지었다는 것은 더더욱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자와 『주역』의 관계를 설명한 수많은 철학적 논저들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³¹⁾ 여기에서 우리는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적 연구

29) 學易如字。魯讀易爲亦，今從古。

30) 外黃令高彪碑，恬虛守約，五十以數，此從魯論，亦字連下讀也。

31) 아마도 한대에는 공자가 『주역』을 중시하였다거나 『주역』의 전(傳)을 지었다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한 듯하다. 공자와 『주역』의 관계에 대한

가 왜 중요한 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만나게 된다.

5) 문자학 연구 성과의 반영

문자학, 혹은 한자학은 한자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자의 발생과 자형의 변천, 그리고 한자의 의미 변화 등을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 넓은 의미의 문자학에는 한자를 다루는 모든 학문 분야를 말하여, 음운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인 성운학(聲韻學), 고대의 의미를 다루는 훈고학(訓詁學) 등을 포괄한다. 사실 동아시아의 고전문헌은 역사가 오래되어 고전문헌에 쓰인 한자의 형, 음, 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적지 않기 때문에 문헌 연구를 위해서는 성운학과 훈고학을 포함한 광의의 문자학이 필요하다.

청대의 유월(俞樾)은 고증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 문헌을 탐구한 학자인데, 그의 『고서의의거례(古書疑義舉例)』와 『군경평의(群經平議)』는 이 방면의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서의의거례』에는 유가경전의 각 구절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논어』에 대해서는 上下文異字同義例, 錯綜成文例, 兩語似平而實側例, 一人之辭而加曰字例, 上下文變換虛字例, 助語用不字例, 也邪通用例, 雖唯通用例, 古書連及之詞例, 上下兩句互誤例, 上下兩句易置例, 分章錯誤例, 誤讀夫字例 등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월이 上下文變換虛字例(위아래 문장에서 허사를 바꾸어 쓴 예)에서 예로 든 구절을 보자.

다양한 논의와 문제점은 황준연, 「공자는 『주역』의 십익(十翼)을 스스로 지었는가?」(2008, 『정신문화연구』)를 참고할 것.

(8)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 (「술이」)

부유해지는 것이 구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말의 채찍을 잡는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하겠지만, 구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앞 구절에 ‘而’자를 쓰고 뒤 구절에 ‘如’자를 썼다. 일반적으로 ‘而’는 말을 연결해 주는 허사로서 ‘而’의 앞뒤에 술어 성분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명사인 ‘富’가 왔고 이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 유월은 원래 앞에 쓰인 ‘而’도 뒤에 쓰인 ‘如’와 마찬가지로 ‘만약’이라는 뜻임에도 앞뒤 문장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르게 쓴 것이라 주장한다. 이후 중국의 허사 연구자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而’에 ‘如’의 뜻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월은 「학이」의 “有朋自遠方來”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안(何晏) 『논어집해』에서 포함(包咸)이 “같은 문하에서 공부한 사이를 ‘朋’이라 한다(同門曰朋).”라고 한 말을 이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9) 『經典釋文』에서 “有는 友라고도 쓴다.”라고 하였다. 阮元的 『校勘記』에서는 『白虎通』 「辟雍篇」에서 이 문장을 “朋友自遠方來”라고 인용하였다고 하였다. …… 지금 내가 살펴보건대, 『說文解字』 「方部」에서, “方은 나란한 배다. 두 배의 모양을 본뜻 것인데, 머리 부분을 묶어놓은 모양이 생략된 형태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方에는 나란하다는 뜻이 있다. 『淮南子』 「汜論篇」에 “나무를 뚫고 판자를 나란히 하였다(方版).”라는 말이 있는데, 高誘의 注에서는 “方은 나란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이는 ‘方’과 ‘竝’이 같은 뜻이며 “友朋自遠方來”는 “友朋自遠竝來”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友’라고 부르고 ‘朋’이라고 불렀으니 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竝來”라고 한 것이다. 그렇

다면, ‘有’자가 ‘友’로 써야 한다는 것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학자들이 잘못하여 ‘遠方’ 두 글자를 이어진 문장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³²⁾

역대로 “有朋自遠方來”의 해석은 “有+朋+自+遠方+來” “有+朋+自遠+方來” 등의 방식으로 매우 다양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유월은 다른 판본에서 ‘有’가 ‘友’라고 쓰였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友’, ‘朋’을 구분한 후 ‘友’와 ‘朋’이 합하여 복수가 되므로 뒤의 ‘方’은 ‘並’의 뜻으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有’가 ‘友’로 쓰이고 ‘方’이 ‘並’의 뜻으로 쓰인 다른 고서의 예를 근거로 들었고 또 이들은 상고음이 동음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가차되어 쓰일 가능성은 충분하다.³³⁾ 물론 고대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에 근거할 때, ‘友朋’이 쓰였다고 하여 반드시 동사 앞에 행위의 주체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내기 위한 ‘並’자를 쓸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유월의 견해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곳 외에 ‘友朋’의 용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다만 유월이 언어적인 특징에 근거하고 다양한 판본과 문헌적 증거를 문자학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서 고전을 해독하고자 했던 연구 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³⁴⁾

32) 釋文曰，有或作友。阮氏校勘記，據白虎通辟雍篇，引此文作朋友自遠方來。……今按說文方部，方，併船也，象兩舟省總頭形。故方卽有並義。淮南汜論篇曰，乃爲窠木方版。高誘注曰，方，並也。……是方並同義。友朋自遠方來，猶云友朋自遠並來。曰友曰朋，明非一人，故曰，並來。然則有之當作友，尋繹本文，卽可見矣。今學者，誤以遠方二字連文，非是。

33) 유월의 『논어평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강재, 김효신 역저, 『고증학자는 논어를 어떻게 읽었나 - 유월 논어평의 역해』(2006, 학고방)를 참고할 것.

34) 혹자는 『논어』의 ‘有子曰’로 나오는 구절을 ‘又子曰’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한 사례이다. 이 경우 『논어』의 편찬에 유약의 제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공자 사후의 문인들의 관계 및 『논어』의 편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나는 ‘又子曰’의 용례가 고전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又子曰’보다는 당연히 ‘子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有子曰’을 ‘又子曰’

4. 고증학적 학문 전통과 동아시아 고전의 이해

나는 위에서 동아시아의 고전문헌, 특히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논어』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실 경전 연구에서 문헌학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중요성’이라는 말보다는 문헌학적 성과를 무시하는 경전 연구는 그 자체로서 성립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중국은 단어와 구절의 의미 풀이를 중심으로 한 한학(漢學), 훈고학의 시대, 의리를 중시했던 송학(宋學)의 시대를 거쳐 철저한 문헌학적 검토와 실증을 통해 학문을 해나가는 청학(淸學), 즉 고증학의 시대에 이르러 문헌학이 꽃피우게 된다. 모든 학문은 그 나름대로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고증학은 학문의 엄밀성이라는 점에서 뛰어난 면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실증성,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시대의 학문 정신으로 대두되었던 청대의 고증학은 송명리학(宋明理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청말 양계초(梁啓超)는 『清代學術概論』에서 고증학의 대표주자인 왕념손, 왕인지 두 부자의 학술 연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는 주의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흐릿한 눈으로 쉽게 간과해 버릴 곳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특별히 연구해야 할 점을 찾아내었으니 이른바 “글을 읽고 행간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다. 주의 깊게 관찰한 후 의문이 생겼을 경우 일시적인 주관적 감상으로 가볍게 판단을 내리기 쉬운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오직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매우 충실한 연구를 하였다. 셋째

曰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다. 연구는 산만하고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니며, 먼저 하나의 가설을 세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넷째는 증거를 찾는 것이다. 하나의 가설을 세웠더라도 절대로 곧 정론이라 믿어서는 안 되며, 널리 증거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같은 종류의 사실을 참조하여 다 합치되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단안을 내리는 것이다. 여섯째는 추론하는 것이다. 여러 번 귀납적 연구를 거친 후에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일단 결론을 얻고 나면 같은 종류의 다른 사항에 추론하여도 무방하다.³⁵⁾ 이와 같은 학술연구 방법이 중국의 문헌 연구에 큰 공헌을 하였고, 그 결과 청대에 문헌학이 중요한 학문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필자는 『논어』를 중심으로 고전을 연구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고전연구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³⁶⁾

첫째, “守株待兔”.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이 고사는 『한비자』에서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옛것을 고수하는 공자와 맹자 등 유가를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다. 필자는 이 구절을 바뀐 세상에 맞는 고전, 『논어』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로 인용한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할 세상에서 과거 지향적이고 전통을 고수하는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고전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전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경전의 과거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35) 이강재, 김효신 역서, 『고증학자는 논어를 어떻게 읽었나』에서 재인용.

36) 이는 이강재, 「나는 어떤 논어책을 읽는가?」(2011, 한국경학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중 앞의 네 가지 원칙은 나의 『논어처럼 이끌어라』(2023, 21세기북스)에서도 ‘왜’, ‘지금’, ‘여기에서’ 공자와 『논어』를 읽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원칙으로 설명한 바 있다.

현대적 의미와 그것의 미래 지향적 의미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세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필자는 경전 연구는 궁극적으로 경세학(經世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盡信書, 則不如無書”. 『맹자』에 나오는 이 말은, 『서경』의 말을 모두 믿을 바에는 『서경』이 아예 없는 편이 좋다는 말이다. 이처럼 『논어』를 비롯한 고전을 모두 믿고 따라야 한다면 그 고전이 세상에 없는 편이 나을 것이다. 『논어』와 공자의 역사성을 인정한 범위 내에서 그 글을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역사성에 근거하여 『논어』를 읽고 풀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對牛彈琴”과 “對, 牛彈琴”. 어디에서 끊어 읽을 것인지에 따라 소가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소에게 연주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구두점 하나부터 시작해서 문헌에 담긴 모든 내용을 열린 마음으로 볼 때 진정으로 그 내면과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미 이루어진 문헌학적 성취를 반영하여 경전을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百家爭鳴”. 상당수의 학자가 많은 고전과 관련된 연구와 출판에 매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없이 출판되는 경전, 『논어』 서적 속에서 자신이 행하는 작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교수, 연구자로서 책을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라면 혹은 자기만족을 위한 연구라면 오히려 책을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는 반인문학적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백가쟁명의 상황에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경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지한 성찰과 과거의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돌아보기가 필요하다.

다섯째, “先行其言而後從之”. 먼저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실천한 다음 말이 뒤따라야 한다고 공자가 말한 바 있다. 나는 지금까지 번역과

해석을 중시해 왔지만, 철학 넓게는 인문학적 내용은 번역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고전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고 설명하려는 작업은 완벽하거나 절대적 옳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번역이나 해설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맺음말

우리나라의 학문, 특히 인문학은 아직도 서구의 학문 중심으로 돌아간다. 한국학에 대한 중시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문학, 역사, 철학 진 분야를 아울러 보면 서구 중심의 학문은 여전하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와 학술적인 점, 그리고 문명사적인 측면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 이 시대의 동아시아의 고전연구, 경전 연구는 우리 시대에 알맞은 시대적 사명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준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미래의 동아시아 시대를 맞이하는 전환기의 이 지역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구 편향적인 학문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 학계의 현실에서, 동아시아의 고전연구는 우리의 사고에 길항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의 고전연구, 유가 경전, 문헌 연구는 갈수록 중요시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여러 다른 학문 분야 속에 파편적으로 존재하면서 어느 분과 학문에서도 주류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가령 유가 경전 연구는 증문학과, 한문학과, (동양)철학과, (동

양)사학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고전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함에도 어느 분과 학문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거나 중요한 학문으로서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경전 연구의 대상언어가 갖는 난해함도 있지만, 경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경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연유한다. 또 문헌 연구로서의 경전 연구가 부족한 것도 있다. 이 글에서 『논어』의 사례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지만, 모든 유가 경전 연구에서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참고문헌〉

- (淸) 程樹德, 『論語集釋』(1990, 中華書局).
- (淸) 崔述, 『洙泗考信錄』(이재하 외 옮김, 2009, 파주 한길사).
- (淸) 崔述, 『洙泗考信餘錄』(이재하 외 옮김, 2009, 파주 한길사).
- (淸) 俞樾, 『古書疑義舉例五種』(2010, 北京, 中華書局).
- H. G. Creel(1949),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이성규 역, 『공자 인간과 신화』, 1983, 서울, 지식산업사).
- 서원남(2005), 『중국문화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제이앤씨.
- 이강재(1994), 「의문문 문말어기사의 기능 및 특성 연구 - 『논어』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24집, 한국중국어문학회.
- (1998), 「논어 상십편의 해석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6), 『논어-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조화』, 파주, 살림출판사.
- , 김효신 역저(2006), 『고증학자는 논어를 어떻게 읽었나 - 유월 논어평의 역해』, 서울, 학교방.
- (2011), 「나는 어떤 논어책을 읽는가?」, 한국경학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 이예성(2018), 「『論語正義』에 나타난 노론」, 『인문논총』 제75권 제2호, 서

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논어처럼 이끌어라』, 파주, 21세기북스.

이동철(2010), 「한국 문헌학의 발전방향 - 고전정리의 관점에서」, 2010.6.12.
『충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林初乾(1978), 『論語導讀』, 『國學導讀叢編』(上), 臺北, 康橋出版事業公司.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纂(1994),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허성도 편, 『논어 관련 자료집』, 1992년 제1학기 서울대 중문과 경서연구 강의 자료집.

胡志奎(1978), 『論語辨證』,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황준연(2008), 「공자는 周易의 十翼을 스스로 지었는가?」,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2호(통권11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baike.baidu.com/subview/70348/10537160.htm?fr=aladdin>

<https://www.cnapc.cn/>

The Study of Confucian Scriptures as Philolog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Case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Lee, Kangjae *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philological findings into Confucian scripture studies. In China, philology developed during the Qing Dynasty and was reflected in the interpretation and study of the scriptures, whereas domestic studies are mostly semantics-oriented. This article uses the case of the Analects as an example of how philological achievements can be reflected in Confucian scriptural studies. It discusses the different compilation periods of the Analects, the contradictions in the evaluation of GuanZhong(管仲), the versions of the Analects that have been passed dow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us and Zhouyi(周易), and the scriptural studies that reflect the results of philological research. It also argues that philological achievements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East Asian classical studies, especially in the study of the Confucius Analects.

Key Words

Confucius Analects, philology, Analects of Confucius, edition, period of compilation, *GuanZhong*(管仲)

논문접수일: 2023. 12. 10, 심사완료일: 2023. 12. 22, 게재확정일: 2023. 12. 31.

* Professor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 likangqi@snu.ac.kr

『논어』 人物 研究와 선진시대의 문헌

이규필 *

-
- I. 들어가며
 - II. 상고시대의 聖王과 그 呼名의 의미
 - 1. 堯: 仁과 博施濟衆, 그리고 中
 - 2. 舜: 孝, 無爲, 그리고 君子
 - 3. 周公: 攝政과 代理, 三家와 관련하여
 - III. 先秦時代 문헌자료와 『논어』 속의 인물
 - 1. 先秦時代 1차 문헌자료
 - 2. 先秦時代 2차 문헌자료
 - IV. 나가며
-

■ 국문요약

본고는 『논어』 인물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論語』의 탄생 과정과 名義에 대한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제자와 사람들 속의 공자’의 의미를 조명해 보았다.

첫 작업으로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고대의 성인 堯와 舜과 周公이라는 인물을 고찰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堯에게서는 仁政과 博施濟衆, 그리고 中이라는 개념을 찾아 발견하여 조명하고, 舜에게서는 孝, 無爲政治와 君子의 개념에 대해 그 원형과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주공에게서는 攝政의 전통 속에서 代理 정치의 의미를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三家에 대해 공자가 보인 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밝혔다.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부교수 / E-mail: 1900908@knu.ac.kr

『논어』속 인물 연구는 선진시대 문헌 자료 검토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해당 문헌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므로 본고에서는 각 문헌에 대한 정밀한 탐색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목적이다. 때문에 관련 정보의 집성과 치밀한 고증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진시대 문헌자료의 성격에 따른 인물 정보의 수록 양태는 그 윤곽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논어』인물 연구의 첫걸음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선진시대 문헌들부터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고, 주요 注釋書 고찰도 필요하다. 또 元明 이래로 『논어』인물 정보를 고찰한 중요한 저술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검토와 고찰, 그리고 각 문헌들의 기록들을 상호 비교 검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하는 일은 모두 긴 시일을 요하는 지난한 작업이라 예상된다.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 공자, 논어, 제자, 堯, 舜, 周公, 선진시대 문헌

I. 들어가며

『論語』는 書名부터가 注目을 요한다. ‘論語’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漢書』를 비롯한 많은 문헌과 학자들이 남긴 해석이 있다.¹⁾ 이런저런

1) 『論語』의 書名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漢書』「藝文志」에서 언급하고 있다. 내용은 대개 ‘공자가 제자들이나 時人들에게 응답한 말과 제자들과 대화한 말을 당시 제자들이 기록하였는데, 이를 공자 사후 門人들이 纂輯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文選』「辯命論」에서는 ‘仲弓의 문도들이 공자의 말을 追論한 것’이라고 하였다. 劉熙의 『釋名』「釋典藝」에서는 ‘論’을 ‘倫’의 의미로 보아 공자가 제자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윤리적인 내용을 모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邢昺은 유희의 설을 계승 발전시켜 ‘倫’을 撰次의 의미로 해석하여 ‘撰語’의 뜻으로 보았다. 袁枚는 ‘議論과 語人’으로 해석하였다. 何異孫은 ‘공자의 遺語를 討論한 책(討論文義)’으로 보았다. 또 許慎의 『說文解字』의 글자 해석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論은 논리적이고 합리적(循其理 得其宜)인 말이고 語는 타인과 答問하거나 辯難하는 말이 된다. 이후 여러 고증학자들이 관련 설을 퍼냈는데, 대략 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해석이 있지만 요약하면 어떻게든 ‘스승의 語錄’ 또는 ‘스승과 제자들의 대화’라는 의미를 넘지 못한다. 실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냥 이러한 훈고적 해석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孟子』나 『莊子』 등 무수한 諸子書들도 다 論語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오직 『論語』만이 ‘論語’인가? 왜 『孟子』나 『莊子』처럼 『孔子』가 아닌가.

『論語』의 書名은 지성사적 전통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기 동아시아 고전들의 書名은 주로 한 글자였다. 하나의 글자에 그 책의 성격을 명확히 담았다. 『詩』는 노래 모음집이고, 『書』는 고대 제왕의 역사를 기록한 公式 書物이고, 『易』은 占書이다. 『記』(혹은 『禮』)는 禮에 관한 記錄이다. 두 글자로 된 책의 첫 출현은 『春秋』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상의 문헌들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그 필요와 成書의 주체가 國家라는 것이다. 주체인 국가의 입장에서 成書 목적이 매우 분명하며, 정치와 외교에서 현실 효용성이 강하다. 여기에다 나름의 내적 완결성을 갖춘 체계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²⁾ 동아시아 문학의 원류인 『詩』도 이러한 범주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담은 노래를 독자적으로 펴내는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다.

『論語』는 이런 점에서 위에 열거한 고전들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春秋』를 이어 본격적으로 두 글자 書名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史的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作성의 주체가 國家

2) 成書의 주체나 체계의 내적 완결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五經 가운데 『禮記』는 다소 예외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禮記』의 경우 공자의 후계자들 가운데 禮學의 계승자들에 관한 내용이 많은 데다 또 戴德이나 戴聖과 같은 전문적인 권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논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禮記』에는 국가 경영에 필요한 성격의 내용이 없지 않다. 내적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으로 요연하고 일관된 흐름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기』는 『논어』나 『맹자』와 달리 적어도 각각의 편이 특정 주제에 따라 편집되어 있다. 『周禮』는 말할 것도 없다.

가 아니라는 것이다. 작성 목적도 그러할 뿐 아니라 成書의 목적과 방향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정치 외교적 실용과도 무관하다. 게다가 『論語』를 두고 체제와 구성 또는 편명과 관련하여 내적 완결성을 운위하기도 쉽지 않다.

‘道’라고 하는 政治理想과 哲學을 지향하는 一群의 학자 집단이 몇 세대에 걸쳐, 모종의 사명감이나 억누를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거룩한 스승이 남긴 말씀’을 묶어 하나의 책을 만든 것인데, 이것은 특정 지성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미증유의 학술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전 시기 인류사에서 그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대 사건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완성하는 과정은 일종의 신앙심이나 종교의식에 의한 어떤 행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焚書의 탄압과 박해를 넘어 流轉되고 완성되는 『論語』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論語』를 볼 때 상술한 지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자는 당신 스스로 ‘나는 生知가 아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정도로 생전에 이미 추앙받았다. ‘인류의 탄생 이래 미증유의 스승(生民未有)’이라 추앙받은 일이 특정 제자 몇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三千 제자라는 설도 그렇다. 거기에 약간의 과장이 있을 가능성을 마냥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시 大夫家를 이루는 인적 구성이나 물질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또는 ‘後車數十乘 從者數百人’을 자랑하던 맹자 학단의 규모를 참고해 볼 때 三千 제자의 설은 과장이 아닐 가성도 배제하기 어렵다.³⁾

요컨대 공자는 일찍이 춘추 열국의 정치인들과 학단의 제자들로부터

3) 굳이 맹자와 비교해 본다면, 『孟子』라는 문헌에 그 뚜렷한 증거를 남기고 있듯이 맹자에게는 제자다운 제자가 없는 편이었다. 단순히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학단의 규모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비할 바 없는 추앙을 받았는데, 그 존경과 추앙의 크기 또는 성질이 그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인물과도 견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자에게는 확실히 사람을 감화시키는(감동이 아니다) 무언가가 있다. 하나하나가 진지한 철학자이기도 했던 제자들이 경양해 마지않던 스승의 그 ‘말씀’을 평생 외우고 쓰고 또 삶에 옮겨 실천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몇 대를 이어 전수했으니, 『논어』의 탄생은 어쩌면 운명적이다.

이쯤에서 한 가지. 공자가 자신의 언행과 대화를 후대에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손사래 치며 ‘生知之 聖’을 사양했던 공자에게서는 그런 가능성을 짐작해 볼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논어』 편찬의 시작은 그 처음부터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스승의 말을 외워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술로 전한 것에서 비롯한다. 제자들이 없었다면 『논어』도 없고, 저 공자마저 희미한 전설 속에 어떤 추상화된 몇 개의 조각 이미지로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공자는 우뚝한 성인으로서 고립된 존재로 있을 때가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수천 년의 벽을 깨고 우리들 곁으로 와 웃고 우는 영원한 스승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어』는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주인공인 책이다. 『논어』는 단순히 ‘근엄한 스승의 語錄’이 아니다. 공자와 함께 등장하는 ‘말씀 속에 담긴 그들의 이야기’이다. 有朋遠來의 즐거움은 그에 관한 증언이다. 요컨대 ‘그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공자는 제대로 살아난다. 『논어』의 인물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논어』 속 인물에 대한 관심이 종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로 한정하자면 정조 시대에 『論孟人物類聚』가 나왔고, 1984년에 안성호가 공자 제자들을 연구하여 석사논문으로 제출하였으며, 1986년 정종이 『논어와 공자』의 부록에서 105인의 인물을 소개한 바 있다. 또

1988년에 이성규가 크릴의 저서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1949)를 『공자: 인간과 신화』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는데 그 속에 「제자」 편이 있다. 1988년에 윤종섭이 제자에 대한 연구로 다시 석사논문을 제출하였으며, 이재하가 2009년에 『수사고신여록』을 번역하였다. 이러한 흐름 아래 2001년에는 김경옥이 冉有에 대해 집중 고찰하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갑규가 제자들의 생애 논란에 관한 쟁점들을 연구하여 석사논문으로 발표하였다.

다만 이들 연구는 대체로 사실 정보의 추적과 고증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제자별로 연구가 심화되는 고무적 현상도 있으나 그 범위가 대체로 주요 弟子 몇몇에 한정되는 한계도 분명하다. 본고는 그 한계와 경향성을 근본적으로 개선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다.⁴⁾

II. 상고시대의 聖王과 그 呼名の 의미

『논어』에는 200인 이상의 인물이 나온다. 성격에 따라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 ‘古代의 聖王과 賢者’, ‘周나라 建國의 주역들’, ‘魯나라를 비롯한 列國의 정치인들’, ‘異學의 인물들과 세상을 피한 隱者들’, ‘惡人과 奸人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弟子 그룹’이다. 『논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인물군은 물론 제자 그룹이다. 『家語』 권38에 「七十二弟子解」가, 『史記』 권67에 「仲尼弟子列傳」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방향을 조금 전환하여 상고시대의 聖人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등장 인물 모두가 『논어』의 주인공이라고는 했지

4) 역저서와 논문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역저서 및 논문, 그리고 한중일의 관련 저서들은 〈참고문헌〉란을 참고하기 바란다.

만, 역시 중심은 공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자가 상고시대 성왕을 呼名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공자의 일생과 사상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제자들에게 설과한 道의 의미가 구체성을 띠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함께 토론한 공자의 도, 그 형성의 근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물 연구의 첫걸음을 상고시대의 聖王과 周나라 건국 인물들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짧은 지면에서 한 번에 모두 다룰 수 없기에 堯와 舜과 周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⁵⁾

1. 堯: 仁과 博施濟衆, 그리고 中

堯의 이름은 『논어』에 4회 나온다. 단독으로 호명된 것이 1회, 舜과 병칭된 것이 3회이다.⁶⁾ 고대 중원의 천자를 말할 때 흔히 三皇五帝를 말하곤 하지만 伏羲氏나 神農氏나 하는 이야기는 뒷날에 만들어진 것이거나 특정 지방의 신화가 윤색되어 뒤늦게 권위를 획득한 것이다. 경서의 공식 기록에서 첫 천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堯이다. 『尙書』는 요의 이야기로 긴 역사의 첫 장을 열고 있다.

堯라는 글자는 높이 쌓은 兀 위에 다시 土(흙)을 겹겹이 쌓아놓은 모습은 본뜬 것이라고 段玉裁(1735~1815)는 설명한다.⁷⁾ 甲骨文에는 畺

5) 본 절의 내용은 줄지 『논어 속의 사람들, 사람들 속의 논어』(역락, 2022) 1부에 실린 내용을 수정하여 수록하였음을 밝혀둔다.

6) ①『논어』 「雍也」 28장,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其猶病諸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②「泰伯」 19장, “子曰 巍巍乎 舜禹之有天下也而不與焉 子曰 大哉 堯之爲君也 巍巍乎唯天 爲大 唯堯則之 蕩蕩乎民無能名焉 巍巍乎其有成功也 煥乎其有文章.” ③「憲問」, 45장 “子路 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④「堯曰」, 1장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7)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堯 자에 대해 “兀者 高而上平也 高而上平之上又增益之以

어얇은 사람이 두 개의 흠덩이를 이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 토지신의 형상으로 보는 설도 있다. 金文에는 두 사람이 흠덩이를 지고 있는 모습이다. ‘堯’ 字의 기원이 이러하기에 자연스럽게 ‘매우 높다’는 뜻을 가진다. 그 이름 放勳도 ‘위대한 공훈’이라는 뜻이다.

제자 子貢이 ‘仁政’의 실체에 대하여 질문할 때 ‘博施濟衆의 정치’에 건주어 물은 일이 있다. 그때 공자는 ‘博施濟衆’을 두고 “요순도 오히려 힘들게 여긴 정치”라고 대답하였다.⁸⁾ ‘仁政’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정치라는 뜻이다. ‘仁政’은 공자가 이상으로 삼아 평생을 외친 정치의 표본이다. 그런데 공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정치로 요순의 정치를 지목하고, 그 요체가 ‘박시제중’이라 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자가 상정한 仁政의 이해를 위해서도 堯의 정치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요구된다.

『상서』, 『사기』, 『논형』 등에 산재한 堯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다. 요는 하늘처럼 인자하고 산처럼 지혜로워, 사람들은 그를 태양이나 봄비-또는 구름-처럼 여겼다고 한다. 부유하였으나 거들먹거리지 않고, 존귀했으나 오만하지 않았다. 여덟 가지 색깔의 눈썹에 황색의 모자를 쓰고 검은 색의 옷을 입고서 흰 말이 끄는 붉은 마차를 탔다. 집의 이엉은 깎지 않고, 궁의 흠계단은 세 층이었다. 수레는 치장하지 않고 소박하게 유지했으며, 음식은 주로 곡식을 먹고 그릇은 토기를 사용했다.⁹⁾

한마디로 요의 모습은 인간 세상에 내려온 원시의 상제이다. 사람들이 그를 태양이나 봄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여겼다(就之如日 望之如雲)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요의 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준다는 뜻이다.

堯 是其高且遠可知也.”라고 설명한 바 있다.

8) 앞의 주 『논어』 「雍也」 28장 참조.

9) 요에 대한 전설은 이외에도 『竹書紀年』이나 『宋書』, 『淮南子』, 『十八史略』 등에도 두루 전한다. 내용은 大同小異하다.

말하자면 온 세상에 널리 베풀고 모든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것인데, 바로 앞서 말한 ‘博施濟衆’이다.

『淮南子』에서는 이를 두고 ‘한 마디 말로 萬民을 구제하였다.’고 표현하였다.¹⁰⁾ 그러나 이것이 공자가 말한 ‘仁의 정치’보다 더 高遠한 어떤 단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공자가 仁에 대해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라고 한 말을 보면 박시제중은 단지 仁政의 궁극적 완성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공자에게서 堯가 또 중요한 것은 ‘中’과 관련해서이다. 『논어』 「堯曰」 1장에는 요가 순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전해준 말 ‘允執其中’이라는 네 글자가 실려있다. 『상서』 「대우모」에는 이 말이 16자로 늘어나 실려있다. 이른바 十六字秘訣이다.

사람의 마음은 위험하고, 도의 마음은 알기도 지키기도 어렵다. 오직 세심하게 살피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해 中을 잡아야 한다.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堯의 시대에 新儒學에서 말하는 中의 개념¹¹⁾을 운위하기는 어렵다. 다만 ‘운집기중’이라는 말이 맨 처음 실린 문헌이 『논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때의 중을 공자의 時中과 연결할 수 있다. 처한 시대와 상황 따라 무엇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선입견이나 편향 없이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뜻이다. 『논어』와 『중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유가적 이상 정치에 있어서 中은 매우 중요하다. 군주로 하여금 그 나

10) 『淮南子』, “公正無私, 言而萬民齊.”

11) 심성수양론으로서의 中和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주자는 未發時의 中과 已發時의 和를 실현하기 위해, 미발시에는 存養의 공부를 이발시에는 省察의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中의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라와 그 시대에 꼭 맞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힘과 정치적 균형감을 성찰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이 允執其中인바, 바로 仁의 정치요 博施濟衆이다. 그 완성을 『대학』에서는 平天下라고 표현하였다.

요가 남긴 ‘윤집기중’이란 말에는 이처럼 『논어』, 『상서』, 『대학』, 『중용』의 요체가 오롯이 들어있다. 때문에 ‘윤집기중’은 이후 전근대적 왕조 시대가 끝날 때까지 동아시아 각국에서 군주는 물론이고 학자에 이르기까지 절대적 가치로 존송되었다. 때로 후대에 위조된 말이 아닐까 의심받기도 했지만, 中의 의미가 지니는 상징성과 위상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넓은 古經’이 사라진 유토피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표시한 희미한 지도라면, ‘中’은 그 지도 위에 堯의 이름으로 남겨진 돌도 없는 키워드이다. 仁의 정치를 외친 공자는 그 키워드를 읽어낸 첫 판독자이다.

2. 舜: 孝, 無爲, 그리고 君子

舜의 이름은 『논어』에 7회 나온다. 공자가 舜만을 호명한 것이 3회, 堯와 병칭한 것이 4회이다.¹²⁾ 堯보다는 조금 많다. 『논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舜은 堯보다 훨씬 주목이 요구된다. 공자는 仁과 禮에 관한 자신의 정치와 철학을 피력할 때 孝를 몹시도 강조하였다. 『논어』에는 ‘孝’字가 19회나 쓰였다. 공자의 이 孝를 이해하기 위해 舜은 매우 중요하다.

12) ①「雍也」28, 「泰伯」19, 「憲問」45, 「堯曰」1장은 堯와 중복된다. ②「泰伯」20장, “舜 有臣五人而天下治 武王曰 予有亂臣十人 孔子曰 才難不其然乎 唐虞之際於斯爲盛 有婦人焉 九人而已.” ③「顏淵」22장, “舜有天下 選於衆 舉臯陶 不仁者遠矣.” ④「衛靈公」4장, “子曰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舜은 顓頊의 후손으로 매우 미친한 사람이었다고 전한다. 몰락한 가문의 떨거지란 뜻이다. 맹자는 순을 ‘東夷之人’이라고 하였는데,¹³⁾ 역시 변두리 촌놈이라는 뜻이다. 볼 것 없는 시골구석의 몰락한 귀족 떨거지. 순의 정체성이다.

순의 아버지 瞽瞍는 盲人이라 전해진다. 그런데 『상서』와 『맹자』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전하는 기록을 볼 때 순의 아버지가 정말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고수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고 집안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다.

고수의 폭행에 관한 전설은 수백 수천 년 뒤 戰國時代 사람들에게도 회자될 정도로 반윤리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면 순에게 낚은 창고를 수리하라고 지붕에 올려 보낸 다음 사다리를 치우고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마당에 우물을 파라고 시키고는 흙을 덮어 生埋葬시키시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순의 전설과 관련하여 특히 『맹자』 등에 전하는 폭력은 단순 학대를 훨씬 넘는 것이었다.

게다가 순은 어린 나이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소년 가장으로서 歷山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雷澤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였으며 河濱에서 도자기를 굽기도 했다. 오늘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학대와 착취를 순은 어린 시절부터 줄곧 견뎌내야 했다. 이런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고수는 진짜 맹인이라기보다 인간 사회의 보편적 윤리에 눈감고 사는 악인임을 은유적으로 드러낸 이름이었다고 보인다.¹⁴⁾

순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고수가 맹인이었다고 전해지는 데에

13) 『孟子』 「離婁 下」 1장. “孟子曰 舜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 東夷之人也.”

14) 이상 舜과 관련하여 『孟子』에 전해지는 여러 전설들은 일반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예문은 생략한다.

반해 순은 좌우로 들썩 네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고 『史記』는 전한다. 이를 重瞳이라 한다. 고수가 가지지 못한 눈까지 순이 가졌다는 뜻일까. 비범한 외모만큼 성품도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순수한 효성으로 독하고 못된 부모와 의붓동생을 감동시켰다.

순의 일화는 대개가 '순수한 孝'에 관한 것이다. 미천하기 짝이 없던 순이 요에게 발탁된 것도 순전히 저 효의 힘이다. 그래서 순을 두고 大孝라고 한다. 공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효를 강조했는데, 여기에는 아버지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낸 자신의 개인적 아픔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의 대체적인 윤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효란 결국 부모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니던가.

학단의 제자 有子가 효에 대해 '仁을 실천하는 근본(爲仁之本)'이라고 정의를 내린 이래 효는 동양 사유의 주춧돌을 이루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효의 위상은 실로 대단하여 유교가 권위를 유지하던 19세기 말까지 충과 효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효가 우선시될 정도였다. 그 문화의 시원에 舜이 있다.

孝가 아니더라도 『논어』와 관련하여 舜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無爲의 정치'와 '君자의 정치' 때문이다. 요와 순의 정치는 '無爲의 정치'로 일컬어진다. 무위의 정치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요임금처럼 '큰 덕을 밝힌다(克明峻德)'는 말만 내걸면 평천하의 이상이 절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無爲의 정치가 도덕의 천명 외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면 동아시아 고대 정치의 이상은 허무한 것이 된다.

고대 이상 사회를 가리켜 흔히 '堯舜時代'라고 하지만, 사실 요와 순의

시대는 약간 다르다. 요의 시대에는 국가의 힘이 개인의 삶에 그다지 간섭하지 못했다. 저마다 생업에 충실하여 살면 그뿐 도덕도 권력도 무의미했다.¹⁵⁾ 이러한 정치가 無爲라는 이름으로 개념화되어 동아시아 정치의 이상적 모델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지만,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모습이었던가는 참으로 모호하다. 堯를 기록한 선진시대 문헌 그 어디에도 요의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기술한 곳은 없다.

그에 비해 순의 시대는 사뭇 다르다. 순의 시대는 국가의 기본 요건들이 차차 갖추어져 나가는 모습이 한눈에 선하다. 국가 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와 덕목이 다듬어졌고, 교육과 농업 및 형법과 행정 등 직무에 따라 부서가 나누어졌다. 국토를 경영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벼슬아치들의 고과 평정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천문학 기술의 발달로 하늘의 운행이 인간의 시간 단위로 재구성되었다. 『상서』의 「순전」과 「대우모」에는 위에 나열한 여러 내용들이 장엄하고 웅대한 문체로 기술되어 있다. 그저 ‘큰 덕을 밝혔다(克明俊德)’와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한 요의 시대의 정치와는 그 실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博施濟衆의 정치는 순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실체를 드러낸다.

요의 정치를 알 수 없는 지금으로선 無爲의 참뜻을 알기 위해 순의 정치를 주목해야 한다. 순은 경제와 국방, 교육과 법률과 같은 제반 국정을 자신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분야의 책임자를 가려 그들에게 일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이 무위의 정치요, 동아시아가

15) 『論衡』 「藝增」에는 요임금 시대에 노인이 지어 불렀다고 하는 「擊壤歌」가 전한다. 그 노래에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쉬노라.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서 밥 먹노라. 임금님의 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랴. [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 하였다.

꿈꾼 이상 정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첫 사례이다.

이러한 순의 정치를 두고 공자는 ‘그저 몸가짐을 공손하게 유지한 채 남쪽을 향해 앉아 계셨을 뿐(恭己正南面而已)’이라고 묘사하였다.¹⁶⁾ 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자를 믿고 일임하는 순의 정치를 특징적으로 짚어낸 말이다. ‘큰 덕을 밝힌다’는 요의 정치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분명해진다. 임금은 이상적인 건국이념과 윤리를 확립하고 각 분야 정치의 실제 시행은 담당 대신들이 주관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君子의 개념과 관련해서이다. 공자는 爲政者의 이상적 요건을 君子로 상정한 바 있다. 공자 학단의 교육 목표가 ‘군자형 지성인 양성’이기도 하다. 이 군자라는 인간 유형의 지향은 ‘그릇이 아닌 인간’이다. 세상의 모든 그릇에는 일정한 쓰임새가 있는데, 그릇처럼 일정한 쓰임새에 한정되는 인간은 소인이다. 군자는 그 일정한 쓰임새를 거부한다. 특정 방면에 역량을 발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경영자로서 全人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군자를 不器라고 한다.

그렇다면 不器君子의 정치는 무엇인가. 바로 전술한 바 ‘해당 분야의 책임자를 등용하여 그들에게 일임하는 방식’이다. 공자는 제자들이 邑宰를 맡아 나갈 때면 번번이 ‘실무는 유사에게 맡길 것’을 당부하곤 하였다. 위정자는 그 자신 不器의 全德을 지향하고 실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맡길 줄 아는 안목과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다. 그 사유의 원형태를 舜이 보여준 無爲의 政治에서 찾을 수 있다.

16) 『논어』 「衛靈公」 4장, “子曰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

3. 周公: 攝政과 代理, 三家와 관련하여

‘周公’이란 이름은 『논어』에 3회 등장한다. 그 가운데 1회는 ‘魯公’을 비롯한 周나라 公侯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1회는 확인하기 다소 애매하다.¹⁷⁾ 주 무왕의 아우로서 주나라 건국에 공을 세우고 문물과 예악을 정비한 인물 ‘주공’이라고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것은 1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공자와 『논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고찰이 요구된다.

공자는 만년의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더 이상 꿈에 주공을 뵈지 못하구나.’하고 자신의 노쇠함을 크게 상심한 적이 있다. 이는 ‘젊어서는 자주 꿈에서 주공을 뵈었노라’는 고백이기도 하다. “내가 젊었을 적에 일찍이 꿈에서 周公을 뵈는 것은 그분의 道를 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오랜 시간이 흘러 내가 다시 꿈에서 周公을 뵈지 못하니, 여기에서 내가 심히 노쇠한 줄을 알겠다.”¹⁸⁾라고 한 『正義』의 해석이나 “孔子가 젊은 시절에 자나 깨나 늘 주공의 도를 시행할 뜻을 품고 있었다.”¹⁹⁾라고 한 程子の 해석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공자가 만나 뵈기를 그토록 꿈꾸었던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주나라 문명의 상징인 周公이다. 그런 의미에서 周公은 어쩌면 공자와 『논어』 연구에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하는 道나 天下觀 역시 周公과 무관하지 않다. 주공은 누구인가. 공자는 왜

17) ①『논어』「述而」5장, “子曰 甚矣吾衰也 久矣吾不復夢見周公.” ②「先進」16장, “季氏富於周公.” 여기의 주공은 ‘周나라 公侯’를 가리킨다. ③「泰伯」11장, “子曰 如有周公之才之美 使驕且吝 其餘不足觀也已.” 이 장의 주공은 확인하기 어렵다.

18) 『論語正義』, “我盛時嘗夢見周公 欲行其道 今則久多時矣 吾更不復夢見周公 知是吾衰老甚矣”

19) 『論語集注』, “程子曰 孔子盛時 寤寐常存行周公之道 及其老也 則志慮衰而不可以有爲矣 蓋存道者心 無老少之異 而行道者身이니 老則衰也.”

그를 그리도 애타게 찾았던 것인가.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주공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주공의 이름은 且, 문왕의 셋째 아들이자 무왕의 아우이다. 주공은 주나라 건국 이전까지 문헌에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유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다가 건국의 대업이 완성되어 갈 무렵, 무왕의 명을 받아 洛邑을 경영하는 인물로 堯의 전면에 등장한다.²⁰⁾

「召誥」와 「洛誥」에 남은 기록으로 볼 때 주공은 형 무왕에게 가장 믿음직한 동지요 최고의 조력자였다. 천하 통일의 위업을 이룬 뒤, 긴 전쟁에 지친 형 무왕은 그만 병석에 누웠다. 주공으로서 형의 생사와 함께 주나라의 운명이 걱정되었다. 막 세워진 주나라는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였고, 은나라 백성들은 왕국의 재건을 은밀히 도모하였다.

간신히 이룩한 혁명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애가 탄 주공은 왕실의 조상 영령들에게 무왕의 목숨 대신 자신의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애걸하듯 기도하였다.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를 옥돌에 금글씨로 정성스레 새겨, 금궤에 넣고 금실로 단단히 묶어 보관하였다. 감동적인 우애의 이 祝冊文에 관한 이야기는 「金縢」에 상세히 실려 전한다. 하지만 주공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무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주공은 형을 도와 주나라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정작 나라를 받지 못하였다. 그 뒤 가까스로 강태공이 받은 齊나라 땅의 일부를 할양 받아 曲阜에 봉해졌다. 그 나라가 바로 魯나라이다. 하지만 자신의 나라에 내려가지 못하고 洛邑에 남아 무왕을 도와야 했는데, 건국 초기의 불안함을 수습하기 위해 형제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20) 주공에 관한 행적은 『書經』 「周書」의 여러 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본고에서 해당 원문을 일일이 적시하지는 않는다.

그만 무왕이 눈을 감은 것이다.

무왕의 죽음은 오히려 주공이란 사람의 크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무왕의 뒤를 이어 등극한 成王이 겨우 11세의 어린 왕이었기에 천자의 자리를 노리는 숙부들 사이에 일대 혈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주공은 형 무왕의 유언을 지켜 끝까지 어린 성왕을 보호하였다. 철모르는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한 역사의 여러 패륜 숙부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주공은 몸소 국정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손보아 마침내 틀이 잡힌 주나라를 성왕에게 온전히 돌려주었다. 그날의 역사가 「無逸」과 「君奭」에 남아 수천 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생생한 감동을 전한다. 제갈량의 「出師表」가 불변의 충의를 담은 천하 명문장으로 일컬어지지만, 철부지 어린 군주를 향한 자상한 충정과 의리의 원류는 실로 주공에게서 찾을 수 있다.

결국 혁명의 기치를 세우고 출정하던 전반부를 제외하면 「周書」의 주요 부분이 거의 주공의 활동과 치적을 서술한 내용이다. 「주서」의 주인공은 사실 문왕이나 무왕이 아니라 주공이라 하겠다. 요컨대 문왕과 무왕이 창업 군주라면, 주공은 아버지와 형의 나라를 완성시킨 건국의 완성자다. 주공 없는 문왕과 무왕은 상상할 수 없다.

이제 남은 하나. 공자는 무엇 때문에 주공을 그토록 애타게 찾았는가? 주 문명의 재건을 이룩할 성인을 갈구한 것인가? 논의를 계속 전개하기 위해 다시 堯舜과 禹의 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堯-舜-禹로 이어지는 시대가 ‘三代’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盛世로 칭송받은 것은 共和의 힘이겠지만, 攝政과 禪讓의 힘도 그 못지않게 크다. 섭정은 舜이 堯를 이어, 禹가 舜을 이어 왕위에 오른 방식으로, 군주가 몸소 국정을 돌볼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이다. 堯는 자신이 늙어 더 이상 政務를 다스릴 수 없게 되

자 어진회의에서 舜을 등용하여 이러한 형태의 정치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상서』에 기술된 순의 업적 대부분은 사실 섭정 기간에 이룬 것이다. 禹도 마찬가지이다. 부친 鯀이 4대 반역자로 몰려 羽山에서 舜의 손에 처형당했지만, 기구하게도 순에게 등용되어 섭정을 하였다. 禹貢이라는 未曾有의 治水 사업 역시 섭정 기간에 이룬 공적이다.

뒷날 이 섭정의 전통은 다소 변형되어 주공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형인 무왕이 죽자 주공은 어린 조카 성왕을 대신해 스스로 代理者가 되어 섭정하였는데, 주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주공은 섭정을 끝내고 조용히 물러났다. 요·순·우 시대의 대리와 섭정을 주나라 현실에 맞추어 계승한 것이다. 이것을 代理라고 한다.

왕위의 세자 승계 방식은 때로 국가를 치명적인 위협에 빠뜨린다. 세자가 너무 어리거나 자력 미달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섭정은 매우 유용하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섭정자의 인성과 자질이다. 섭정자는 왕의 조력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위협자이기도 한 때문이다. 섭정기의 주공이 끊임없이 의심과 견제를 받았던 것도 그러한 이유였다. 이런 측면에서 주공의 代理는 섭정의 문화 전통에 하나의 새로운 모범을 제시한 셈이다.

공자의 시대에 三桓²¹⁾, 그중에서 특히 季氏 일가의 힘은 막강했다. 삼환은 모두 노나라 公室의 혈족이었다. 따라서 노나라 임금이 어리거나 무능하다면 그들이 노나라 임금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을 무조건 무도한 행위라 비난할 수 없다. 주공의 선례처럼 계씨의 정치 역시 代理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여 방식과 공

21) 三桓: 노나라 桓公의 네 아들 중 맏이는 莊公이 되었고, 나머지 세 아들이 孟孫氏, 叔孫氏, 季孫氏가 되었는데 이들을 '삼환'이라 한다. 노나라를 좌지우지한 세 대부의 가문이란 뜻에서 흔히 '三家'라고도 한다.

실을 대하는 태도이다.

계씨를 비롯한 삼환은 노골적으로 노나라 공실을 우롱했고, 국정을 농단했다. 어린 임금 哀公을 겁박하여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가의 재화를 독점하였으며, 주제님께 태산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모자라 天子의 廟廷에서나 쓸 수 있는 儀禮를 자신들 私家の 朝廷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군주를 능멸하고 권력을 가로챈 무도한 반역일 뿐 결코 섭정이나 대리가 아니다.

좀처럼 안정과 변영을 구가하지 못하고 열강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던 노나라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또 정공의 아들로서 겨우 네 살에 임금 자리에 올라 평생을 두려움에 떨었던 애공을 생각해 보면, 왜 공자가 그토록 三桓을 질타하며 애타게 주공을 찾았는지 알 수 있다. 공자의 눈에 주공은 요순우를 이은 성인이고, 계씨가를 비롯한 삼환은 그 겉모습만을 빌어온 도적일 뿐이다.

III. 先秦時代 문헌자료와 『논어』 속의 인물

『논어』 속의 인물 연구는 단순히 그 인물의 행적에 관한 조각 정보를 모아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 인물을 통해 공자의 사유와 당시 시대상을 깊이 읽고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의 하나여야 한다. 앞의 절에서는 그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헌들이 있다. 三經, 『춘추』, 『예기』, 『맹자』, 『순자』, 등의 1차 자료와 『장자』, 『한시외전』, 『國語』 등을 비롯한 2차 자료이다.²²⁾

22) 1차 문헌자료와 2차 문헌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우선 임의적으로 설정해 보았다. 선진 시대에 이루어진 유가 문헌을 1차 문헌자료라

1. 先秦時代 1차 문헌자료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으로 가장 먼저 꼽을 것은 말할 것도 없이 三經이다. 이 중 『易』은 禹, 文王, 周公, 孔子와 관련한 짧은 전설을 전하고 있지만 經文 자체에는 이들과 관련해 특별히 이렇다 할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詩』는 그렇지 않아 단편적이지만 經文 자체에 유의미한 정보가 단편적이거나 실려있다. 대표적으로 주나라 왕실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文王의 가계와 탄생 및 건국과 정치 이상, 궁중 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大雅의 「文王」·「思齊」·「皇矣」·「靈臺」 등의 편에, 武王에 관한 정보를 「大明」·「下武」·「文王有聲」·「執競」·「武」·「桓」 등의 편에, 周公에 관한 정보를 「破斧」에 담고 있다. 夏·殷에 관한 정보도 간략히 있어 湯에 관한 정보를 商頌 「那」와 「玄鳥」 등 편에, 禹에 관한 정보를 商頌 「長發」 등 편에 남기고 있다.

『書』는 堯, 舜, 禹를 비롯하여 湯, 文, 武, 周公, 伊尹 등 고대 聖王과 賢臣으로부터 周나라 建國主 一家에 관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남기고 있다. 그들의 정치 이상과 治績, 유교 정신 형성에 영향을 준 주요 사상에 이르기까지, 공자가 말하는 ‘도’와 ‘전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고찰이 필요한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공식 역사 기록(書)’으로 증언하고 있다.

三經 다음으로 공자와 『논어』 속 인물들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1차 자료가 있다면 『春秋左傳』(이하 『좌전』)이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고 하였다. 선진에서 漢代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설이 각색되어 수록된 문헌, 1차 문헌자료의 문장이 편집되어 수록된 문헌, 특정 작가가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한 문헌을 2차 문헌자료라고 하였다. 史料로서 신빙성과 고증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임을 밝혀둔다. 『孝經』, 『家語』, 『史記』는 또 따로 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隱公 원년(BC722)으로부터 시작된 『좌전』의 기록에는 西周 이전의 고대 성왕과 현신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공자(襄公 22年 誕)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기인 襄公 즉위년인 BC572에서 哀公이 눈을 감은 BC468년까지의 기록에는 공자와 『논어』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탐구가 필요한 주요 인물들이 거의 모두 등장한다.

이 시기의 기록은 『좌전』의 거의 2/3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여기에는 차로(6회), 자공(7), 염구(9), 子張(1), 季康子(11), 陽虎(31), 公山不狃(5) 子服景伯(8), 吳孟子(1), 孟公綽(1) 등은 물론이고,²³⁾ 南子(1), 영공(1), 史鱣(1), 蘧伯玉(3), 宋朝(1), 裨諶(4), 行人 子羽(17), 桓魋(20여 회), 管仲(1)²⁴⁾ 등 노나라 외 인물들도 대거 등장한다. 그 가운데 晏嬰(平仲)은 20여 회, 子大叔은 50여 회, 鄭子產의 이름은 100여 회 이상 등장하여 춘추 정국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또 그 행적을 자세히 추적할 수 있다.²⁵⁾

『춘추』만큼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禮記』를 꼽을 수 있다. 『예기』에서 고대 성왕과 현신에 관한 정보는 얻기 어렵지만, 주나라 건국 주역들에 대한 정보는 소상히 얻을 수 있다. 특히 文王의 일상 예절에 관해서는 「文王世子」에서 소상히 다루고 있다. 「文王世子」가 온전히 文王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 데다가 또 주로 예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先秦 문헌 가운데 文王에 대해 이만큼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물은 없다. 아울러 「禮」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周公

23) 주요 제자 가운데 顏淵, 閔子騫, 仲弓, 南容, 冉伯牛, 公冶長, 宰我, 漆彫開, 子遊, 子夏, 曾子, 有子, 公西赤 등은 보이지 않는다.

24) 管仲의 경우는 『춘추좌전』에 총 12회 등장한다. 활동 시기가 워낙 앞서서 그렇다. 양공 이후로 등장은 1회에 그친다.

25) 괄호 안의 숫자는 단순한 검색 횟수이다. 등장하는 사건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고찰해 본다면 그 중요도나 비중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단순한 검색 횟수만으로도 일정한 상징성은 간취할 수 있다고 하겠다.

과 관련한 정보(16개 단락)를 소상히 얻을 수 있다. 또 喪服과 喪制의 변화, 조정 문화와 朝服의 변화, 장례와 弔問 예절 등과 관련하여 召公(3)과 季康子(4), 哀公(‘哀公問’ 이전까지만 9개 단락)이 등장한다. 특히 哀公에 대해서는 「哀公問」 章이 마련되어, 적어도 예에 관해서는 공자가 哀公의 자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온다.

이 외에도 숙손무숙(2), 거백옥(2) 등 당대에 활약했던 주요 정치인들과 예에 대해 문답한 기록들이 실려있다. 주요 제자들과 예에 대해 문답하는 문장들도 적지 않아 顏淵(3), 子路(11), 子貢(16), 子游(1), 宰我(1), 子游(13) 등과 관련한 문답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예기』에는 『좌전』과 달리 후기 제자들과 학문적 성향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다량 실려있다. 有子(8), 公西赤(1), 子張(9), 子夏(20) 등 후기 제자군의 주요 인물들과의 문답들이 실려있는데, 이 중에서도 증자의 경우는 「曾子問」 이전까지만 27개 단락의 문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²⁶⁾ 대부분 『좌전』을 비롯한 『춘추』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후기 제자들에 관한 내용인 데다, 공자 사후 禮學의 흐름 및 학단 제자들의 성격과 학문 지향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중요성이 작지 않다. 도식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등장하는 단락 횟수에서 이미 예학 방면의 위상이 대략 가늠될 정도이다.

『맹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1차 자료이다. 공자 연구에서 『맹자』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맹자 스스로 공자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표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 『맹자』에는 堯, 舜, 禹, 稷, 皋陶, 湯, 伊尹, 柳下惠, 伯夷, 文王, 武王, 周公 등 고대 성왕과 현신 및 주나라 건국 주

26) 제자들의 경우는 상호 간에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상기한 단락들 역시 하나의 사건을 다룬 문장에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각각 다른 단락에 이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는 지점이 상호 겹치고 있다는 뜻이다.

역들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들에 관해 공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입으로 전하는 생생한 증언과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맹자』는 공자와 『논어』 속의 사람들을 연구하는데 어느 문헌보다 중요한 자료가 된다.

맹자가 『詩』·『書』에 매우 정통했다는 것은 『맹자』 전편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는데, 맹자가 전하는 여러 전설과 평가는 『詩』·『書』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일반적 해석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증언이다. 더구나 舜과 禹, 伊尹과 柳下惠에 대한 전설과 평가는 『맹자』 이외의 여타 문헌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관련 기록들은 모두 해당 인물들의 정체성을 유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된다.

공자 학단의 제자들에 관한 전설과 평가는 더욱 그렇다. 그중에서도 子貢(6년 여묘), 有若(공자와 닮음), 曾子(효의 전통)에 관한 내용들은 특히 『맹자』에서 전하는 증언들로, 매우 중요하고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曾子和 관련해 당시 列國의 지성계에 널리 퍼졌던 소문과 그에 대한 해명은 후대 학자들에게 증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자못 간단치 않은 주제를 던지고 있다. 이는 崔述(1740~1816)의 『洙泗考信餘錄』에서도 이미 여러 군데에서 지적하고 있다.

荀子도 공자 계승을 스스로 표방하였다. 그러나 『荀子』는 문체나 편찬 방식부터 앞서 언급한 문헌들과는 사뭇 다르다. 堯·舜·禹·湯·文王·武王의 경우 그들의 생애나 정치에 관한 구체적 기술보다 대개 상징적 의미로써의 단순 언급이나 상투적 호명이 주를 이룬다. 예외적으로 「堯問」에서는 堯 및 周公에 관한 일화와 訓辭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맹자』에서와 달리 『순자』의 경우는 그 문체가 『書』와 심각하게 이

질적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공자의 제자들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子道」에 子貢·子路·顏淵이, 「法行」에 曾子和 子貢이 공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실려있다. 하지만 역시 그 문체와 대화 주제가 『논어』와 심각하게 다르다. 이러한 기록들이 실린 그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다만 子貢과 子路는 주로 忠孝나 군자의 도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몰라 공자에게 꾸지람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顏淵과 曾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여, 학단 제자들의 위상과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만하다. 이 밖에 「大略」과 「宥坐」 등에도 자공과 자로가 잠깐씩 등장하는데, 그 이미지는 대개 前述한 대로이다.

또 『예기』의 경우처럼 哀公에 대한 정보가 많이 기술되어 있어 제31편 「哀公」에서는 총 6개의 장에 걸쳐 애공의 질문을 실어놓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례적으로 定公과 顏淵의 대화를 실어놓고 있는데, 선진 문헌 가운데 안연이 임금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소개한 드문 예이다. 이 외에는 주요 제자들의 이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子張·子游·子夏는 그들이 賤儒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름이 한 번 언급되는 정도이고, 子夏가 몹시 가난했음에도 벼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짧은 일화가 실려있는 정도에 그친다.

2. 先秦時代 2차 문헌자료

2차 문헌자료로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문헌은 『莊子』이다. 『장자』에는 『논어』 속 인물들이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章 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內篇이다. 「逍遙遊」와 「齊物論」에는 堯舜의 양위와 許由의 일화

가 실려있다. 「人間世」에는 ①안연과의 대화, 葉公과의 만남, ②顏淵과 蘧伯玉의 대화, ③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楚狂接輿와의 만남이 실려있다. 「德充符」에는 ①鄭子產의 일화, ②哀公이 공자에게 자문을 구한 대화, ③衛靈公의 일화가 실려있다. 「大宗師」에는 ①堯와 許由의 전설, ② ‘子桑戶、孟子反、子琴張’ 三人과 子貢, 그리고 공자의 대화, ③顏淵과의 대화 2단락, ④子輿와 子桑의 대화가 실려있다. 「應帝王」에 楚狂接輿의 일화가 실려있다.

다음은 外篇이다. 「天地」에는 자공과 漢陰老人의 일화가 실려있다. 「天道」에는 周室에 서적을 보관할 때 子路와의 대화, 堯의 양위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天運」에는 子貢과 老聃과 만남,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안연과 師金의 만남이 실려있다. 「秋水」에는 匡을 주유할 때 자로와의 대화가 실려있다. 「至樂」에는 안연, 자공, 공자의 대화가 실려있다. 「達生」에는 공자와 안연의 대화, 桓公과 管仲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山木」에는 ①陳蔡에서 고생할 때 안연과의 대화, ②「田子方」에 자로, ③안연과의 대화, ④장자가 哀公을 만난 이야기가 실려있다. 「知北遊」에 안연과의 대화, 罔象의 대화가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雜篇이다. 「徐無鬼」에는 桓公과 管仲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則陽」에는 楚나라에 갔을 때 자로와의 대화가, 「外物」에는 요의 양위에 관한 일화가 실려있다. 「讓王」에는 ①原憲과 자공의 이야기, ②안연, 자로, 자공이 공자를 모시고 陳蔡에서 고생하던 이야기 2단락, ③요가 허유에게 양위한 전설과 순이 北人無擇에게 讓位한 전설, ④탕의 伐桀과 혁명 이후 卞隨와 瞿光에게 양위한 이야기 각 1단락씩, ⑤伯夷叔弟의 전설이 실려있다. 「盜跖」에는 공자가 안연과 자공을 대동하고 도적과 만난 전설이 실려있다. 「列禦寇」에는 애공과 顏淵과의 대화가 실려있다. 「漁父」에는 공자가 緇帷의 숲에 노닐 때 자로, 자공, 안연이 어부와 만나

나는 대화 2토막이 실려있다.

특이하게 주요 제자임에도 『장자』에는 이름을 그다지 올리지 않은 인물들이 있다. 염구는 『장자』 전편에 걸쳐 단지 1회만 등장하고, 閔子 역시 1회(애공과의 대화에 등장)하며, 宰我是 아예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후기 제자, 그중에서도 뒷날 宗統을 이었다고 평가받는 증자는 「寓言」과 「讓王」, 「外物」에 3회 등장하지만 재미있게도 모두 공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다. 특히 「外物」에는 이름만 인용된 정도이다. 후기 제자 중 또 한 사람의 주요 인물인 子張도 「盜跖」에서 滿苟得과 대화하는 장면에 1회 등장할 뿐이고, 子夏, 子游, 有若 등은 이름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논어』 속의 사람들을 고찰하는 자료적 관점에서 의외로 『韓詩外傳』은 『순자』보다 더 긴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때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시외전』에는 湯, 伊尹, 比干, 箕子, 文王 등과 같은 聖王賢臣에 관한 이야기가 두루 나온다. 그중에서도 伯夷叔弟와 周公에 관한 일화는 선진시대 다른 문헌에 비해 제법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다. 권2에서 子路의 입을 통해 백이를 義의 상징적 인물로 그려내는 부분은 매우 독특하며, 권3에서 백이에 관해 기술한 부분은 『맹자』의 문장과 매우 흡사하여 참고해 볼 만하다. 또 권7에서는 공자와 자로의 대화에서 忠節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며, 권10에서는 晏嬰의 입을 통해 廉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공자 이래 유가에서 바라보는 伯夷에 대한 이미지를 『한시외전』은 ‘淸-廉-忠-義’라는 키워드로 보여준다.

周公의 경우 권3에는 武王, 太公과 함께 3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가 하면, 노나라에 봉해진 伯禽에게 경계하는 말이 실려 있다. 이는 선진시대 다른 문헌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기 희귀하고 특이한 내용들이다. 이 외에도 定公, 哀公, 桓公, 管仲, 莊公, 崔杼, 晏嬰, 衛

靈公, 楚狂接輿 등 공자 시대의 열국의 인물들과 관련하여 다른 문헌에서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담고 있는 문장들이 적지 않다.

공자의 제자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顏淵이 스승인 공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나눈 문답 7개 토막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여타 문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子路, 子貢, 曾參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 原憲, 南容, 子賤, 巫馬期와 같이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자들에 대해서도 다수의 문장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다. 특히 子路和 子貢의 출신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 冉求의 성격과 정치적 지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 子夏의 詩學과 정치 지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 자하와 증자가 지향하는 학문 성격의 차이를 짐작케 하는 내용 등 학단 제자들과 관련하여 여러 지점에서 적잖이 중요한 정보를 남기고 있다.

『한시외전』이 문헌자료로서 얼마만큼 자료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따져볼 문제이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서경』, 『논어』, 『맹자』 등 여러 유가 문헌은 물론 『莊子』를 비롯한 제자서와 그 문장이 유사한 지점이 매우 많다. 게다가 『사기』를 비롯한 후대 문헌에 기술되는 여러 고사가 『한시외전』에 그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서 그 위상과 상징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시대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國語』도 재미있는 자료이다. 周 穆王의 시대부터 각국의 역사를 각각 기록한 이 문헌에는 주로 주나라 열국의 정치인들과 그들의 입으로 피력한 정치 사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로 가득하다. 이중 권5 「魯語」에는 子服景伯이란 인물에 대해 알 수 있는 단락이 1개 있고, 季康子가 田賦를 단행하고자 염구를 시켜 공자를 설득하려 하자 공자가 염구에게 한 말이 실려 있다. 권6 「齊語」에는 桓公이 패자가 되는 과정을 담아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그 문장이 『管子』 「小匡

篇』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齊語」임에도 제나라의 중요한 정치가晏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은 특이하다. 그 외 권14 「晉語」 말미에 鄭子產 관련 내용이, 권18 「楚語 下」에 葉公 관련 내용이 실려있어 참고할 수 있다.

IV. 나가며

본고는 『논어』 인물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論語』의 탄생 과정과 名義에 대한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제자와 사람들 속의 공자’에 대한 의미를 조명해보았다. 그리고 『논어』 속의 사람들로 접근함에 있어 우선 고대의 聖人으로부터 첫 걸음을 떼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과 시도에서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고대의 성인 및 주나라 건국 주역인 ‘堯와 舜과 周公’이라는 인물을 추적하였다. 선진 시대 문헌에 남은 여러 기록들을 추적하여 堯에게서는 人政과 博施濟衆, 그리고 中이라는 개념을 찾아 조명하고, 이어 舜에게서는 孝, 無爲 政治, 君子 정치의 개념에 대해 그 원형과 의미를 탐색해 보았다. 주공에게서는 攝政의 전통 속에서 代理 정치의 의미를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三家에 대해 공자가 보인 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밝혔다. 본고에서 堯와 舜과 周公을 통해 밝힌 정치 철학이나 개념들은 모두 『논어』의 중핵들로, 공자 연구를 위해 반드시 깊은 탐색과 고찰이 요청되는 것이다. 인물 연구의 필요성은 이로써 증명된다고 하겠다.

『논어』 속 인물 연구는 『논어』를 비롯한 선진 시대 문헌자료 검토와 고찰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해당 문헌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므

로 본고에서는 각 문헌에 대한 정밀한 탐색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목적이다. 이 때문에 본고는 관련 정보의 집성과 치밀한 고증을 하지 못하고 인물의 등장 횟수와 관련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선진시대 문헌자료의 성격에 따른 인물 정보의 수록 양태는 그 윤곽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일정한 의의는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논어』 인물 연구의 첫걸음이다. 향후 과제가 적지 않다. 본고에서 언급한 선진 시대 문헌들부터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고, 본고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先秦 兩漢 시대의 문헌들 중에도 반드시 고찰을 요하는 문헌들이 적지 않다. 주요 注釋書 고찰도 필요하다. 『논어』가 나온 이래 공자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주로 경학 방면에서 注釋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이미 元明 이래로 『논어』 인물 정보를 고찰한 연구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 속의 중요한 저술들도 적지 않다.²⁷⁾ 이들에 대한 검토와 고찰, 그리고 각 문헌들의 기록들을 상호 비교 검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하는 일은 모두 긴 시일을 요하는 지난한 작업이라 예상된다. 과제로 남긴다.

27) 『논어』 인물 정보를 고찰한 역대의 저술들을 일일이 예거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한다. 明나라 薛應旂(1500~1575)의 『四書人物考』, 李卓吾(1527~1602)의 『七十二朝四書人物演義』, 陳禹謨(1573~1620)의 『四書名物考』, 鍾惺 增訂, 黃澍 參訂의 『增補四書人物聚考』, 淸나라 江永의 『四書古人典林』, 臧志仁의 『四書人物類典串珠』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문헌〉

원전

- 『論孟人物類聚』, 규장각 소장.
李光靖, 『顔子』, 안동국학진흥원 소장.

역저서 및 논문

한국(가나다 순)

- 김경옥, 「門弟子 冉有에 관한 小考」, 『대동철학』 12집, 대동철학회, 2001.
김기수 외, 『공자세가 중니제자열전』, 예문서원, 2003.
김시천, 『논어, 학자들의 수다』, 2016.
김용록, 『도올 논어』, 통나무, 2000.
신광철, 『공자와 열두 제자』, 당신의 서재, 2018.
신동준, 『공자와 그의 제자들』1·2, 한길사, 2022.
안성호, 「논어에 나타난 孔門弟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 1984.
안성호, 「논어에 나타난 공무제자에 관한 연구」, 『원광한문학』 2집, 원광한문학회 1985.
윤종섭, 「공문제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1998.
이갑규, 「공자 제자들의 생애 논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 2015.
이규필, 『논어 속의 사람들, 사람들 속의 논어』, 역락, 2022.
이성규, 『공자: 인간과 신화』, 지식산업사, 1988.
이재하 역, 『수사고신여록』, 한길사, 2009.
편집부, 『72공자제자』, 동신출판사, 1992.

외국(연도순)

- 徐楚畹, 『四書人名瘦詞』, 掃葉山房, 1917.
諸橋轍次, 論語人物考, 春陽堂書店, 1937.
H. G. Creel,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New York, John Day Co, 1949.

- 田島道治, 『孔子: その人とその伝説』, 岩波書店, 1962.
- 姜可久, 『四書人物輯略』, 廣文書局, 1977.
- 高專誠, 『孔子・孔子弟子』, 山西人民出版社, 1989.
- 蔡仁厚, 『論語人物論』, 1996.
- 仇德哉, 『四書人物』, 臺灣商務(英文), 1998.
- 高專誠, 『孔子和他的弟子們』, 中國書籍出版社, 2015.
- 卞朝寧, 『論語人物評傳』, 江蘇人民出版社, 2015.

A Study on the Characters in 『The Analects(論語)』, and the Literature of the Pre-Chin Dynasty(先秦)

Lee, Gyu-Pil *

This thesis argues for the necessity of researching characters appearing in 『The Analects(論語)』. To this end, the process of generat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was examined. The name of the book was examined from a new perspective, and based on this, the meaning of Confucius(孔子) with disciples and people was illuminated.

As the first work, we considered the figures of Yo(堯), SHun(舜) and Zhugong(周公), the ancient saints that Confucius most admired. Through this work, I discovered and illuminated the meaning of the benevolent rule(仁政), the meaning of saving all the people(博施濟衆), and the concept of golden mean(中) in Yo. I discovered the meaning of filial piety(孝), the meaning of having governed efficiently without exertion(無爲政治), and the concept of a gentleman(君子) in SHun. In the tradition of regency(攝政), the meaning of politics on behalf of the king(代理) was found in Zhugong. Through this consideration, I was able to understand Confucius' attitude toward Samga(三家-the three powers representing the Roe(魯) state).

The study of characters appearing in 『the Analects』 should begin with reviewing the literature of the pre-Chin Dynasty(先秦). However, the scope of these studies is too wide. This paper does not conduct a precise search for each literature. Instead, I want to look at the overall situation. This is

* An associate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E-mail: 1900908@knu.ac.kr

because the purpose is to share awareness of necessity. It is judged that this alone has a certain significance.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of characters in 『The Analects』. For research,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one by one.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review commentaries representing academia. Furthermore, major research writings since the Yuan(元) and Ming(明) dynasties must be considered. It takes a long time to compare the records left in this much literature with each other. I hope to solve the research in this regard in a follow-up task.

Key Words

Confucius, The Analects(論語), Disciples(弟子), Yo(堯), SHun(舜), Zhugong(周公), The literature of the pre-Chin Dynasty(先秦)

논문접수일: 2023. 12. 10, 심사완료일: 2023. 12. 22, 게재확정일: 2023. 12. 31.

경의(經義)를 주제로 한 책문(策問) 소고

윤선영 *

-
1. 들어가며
 2. 경의를 주제로 한 책문 개괄
 - (1) 책제 개괄
 - (2) 소과 시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3. 책문의 서술 요소와 선유설 인용
 - (1) 책문 서술 요소 - 전책과 집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2) 선유설 인용의 범주와 방식
 4. 나가며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경문의 개념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경문과 관련한 시제를 다룬 이른바 경책(經策)에 주목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경문은 역사적 인물과 고사, 유명 작가의 시문과 더불어 과거 시험 시제의 주요 소재였다. 필자는 그간 경문을 직접적으로 시험한 생원시 과목의 시제 출제 양상과 경문에서 유래한 시·부의 시제 출제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연구의 일환으로, 대책을 필두로 한 대과(大科) 과목의 경문 관련 시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첫 시도이다.

책문의 주제가 워낙 다양했던 까닭에 경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과 시제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전체 책문 가운데서는 결코 낮지 않은 비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책을 아울러 출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출제가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E-mail: bacaaltto@korea.ac.kr

집중된 경서 및 편장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았다.

정책을 출제 주체 및 고시 단계에 따라 집책과 전책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두 책제 간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었다. 집책의 경우는 생원시의 사서의 과목과 길이 상의 차이점이 있을 뿐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모두 비슷하여, 사서의 시제가 곧 책문의 축소판인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사서의 과목을 대책으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 또한 수궁이 가는 바이다. 전책에서는 경문의 의미를 강구하면서도 결국엔 왕도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태평 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경세론으로 이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선발을 목적으로 경문의 이해도를 시험함이 주목적인 집책과 방향성을 달리하였다.

주제어: 과거(科擧), 시제(試題), 대책(對策), 책문(策問), 경의(經義), 사서오경(四書五經)

1. 들어가며

과거 제도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사학 분야 및 교육학 분야의 제도 중심 연구에서 현재 한문학 분야의 과문(科文) 연구¹⁾로 점차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 과문에 대한 연구는 과문육체(疑·義·詩·賦·表·策)를 중심으로 하는 각 문체별 연구²⁾, 시제 출제 경향³⁾, 답안의 구성과 형

-
- 1) 이상욱은 『조선 과문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에서 과문육체 중 科詩·科賦·科表·科策의 답안 형식과 시제에 대해 분석하며 한문학 분야의 과문 연구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켰다.
 - 2) 문체별 연구는 허경진(『東時品彙補』와 허균의 科體詩』(『열상고전연구』 14집, 2001), 장유승(『조선 시대 科體詩 연구』(『한국한시연구』 11집, 2003) 등 科詩에 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科賦, 對策, 表·箋, 疑·義, 箴·銘·頌 순으로 확대되었다. 科詩, 科賦, 對策, 表·箋과 관련한 연구사는 윤선영, 『조선시대 과시의 사서의 연구』(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참조.
 - 3) 시제 출제 경향성과 관련해서는 각 문체별로 나름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책문에서는 박재경 『조선시대 책문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식4), 과거 시험 준비 참고서5) 등 그 외연을 넓혀 가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른바 과문육체라 불리는 6개의 주요 과목 가운데, 그간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과목은 단연 대책(對策)이라 할 수 있다. 대책은 문과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의 마지막 단계인 종장(終場)과 합격 이후 등수를 가리는 시험인 전시(殿試)에서 고시된 과목이었다. 그러므로 개인 문집과 과문집 등에 관련 자료가 풍부하며, 시무(時務) 등과 관련한 응시자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점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문학 연구자들에게 환영받아 왔다.

대책에 관한 연구6)는 주로 한 개인 및 왕조별 책문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여러 우수 답안들이 다각도로 분석 및 평가된 데 반하여, 대책의 시제인 책문(策問)은 비교적 주목 받

2013), 사서의 및 오경의에서는 윤선영(2019);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오경의 시제 소고」(『남명학연구』 67집, 2020), 표(表)에서는 박선이(『肅宗-正祖代 科策과 科表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잠·명·송에서는 김광년(『朝鮮 科試의 箴銘頌 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45집, 2022) 등을 들 수 있다.

- 4) 답안의 구성과 형식에 대해서는 이상욱(「조선 후기 對策 형식의 역사적 추이」, 『열상고전연구』 44집, 2015;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대동한문학회』 53집, 2017), 박선이(2022), 윤선영(「조선시대 과거 오경의 과목의 답안 구성과 특징」, 『고전과 해석』 38집, 2022) 등을 들 수 있다.
- 5) 노요한 외(「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과시 자료 소개」, 『한문학논집』 62집, 2022), 송채은(「고려대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소장 科表抄 『東林』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37집, 2022), 박선이(「조선 후기 科文의 실제에 관한 일고찰— 『東儂文』과 『儂林』에 수록된 科表를 중심으로」, 『동양고전학회』 80집, 2020; 「조선 후기 科賦 참고서 表東인에 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62집, 2022), 이상욱(「조선 후기 科賦 참고서와 공부 방법 — 『騷賦彙芳』과 『小大由之』를 중심으로 —」, 『대동한문학회』 72집, 2022) 등을 들 수 있다.
- 6) 대책에 관한 연구는 박재경(2013); 「세종조 책문의 글쓰기 비교 연구: 成三問, 申叔舟, 李石亨의 對策을 중심으로」(『大東漢文學』 42집, 2015)을 비롯하여 이상욱(2014); (2015), 김동민, 「正祖의 策問: 春秋를 통해 본 조선조 春秋學의 문제의식」(『東洋古典研究』 56집, 2014), 이영환, 「식암 김석주의 책문 연구」(『嶺南學』 63집, 2017), 박선이(2022) 등 개인 및 왕조별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 못하였다. 이는 책문의 소재가 시무로 대표되면서도 도학(道學)과 심성론 등 철학적 내용, 제왕의 덕목과 군신의 도리, 문풍 등 시속(時俗) 관련, 경문의 개념 정의, 자연물 등 워낙 다양하였기 때문⁷⁾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이 가운데 ‘경문의 개념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경문과 관련된 시제를 다룬 이른바 경책(經策)에 주목하여 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경문은 역사적 인물과 고사, 유명 작가의 시문과 더불어 과거 시험 시제의 주요 소재였다. 필자는 그간 경문을 직접적으로 시험한 생원시 과목의 시제 출제 양상과 경문에서 유래한 시·부의 시제 출제와 관련하여 연구⁸⁾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연구의 일환으로, 대책을 필두로 한 대과(大科) 과목의 경문 관련 시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첫 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문집에 수록된 책문과 『임헌공령(臨軒功令)』 등의 과문집에 기록된 책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 밖에 각종 사료 및 시권(試券), 참고서 등에 보여지는 경문 관련 책제를 대상⁹⁾으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경문의 출제 경향성이 생원시 및 진사시의 소과 과목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한 질문 속 서술 요소와 제설(諸說)의 인용 방식 등은 어떠한 차이점이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 박재경은 조선시대 대책의 策題를 ‘제왕의 덕목’ 등 16개의 조목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위 논문(2013), 126-155면 참조.

8) 윤선영(2019); (2020); 「사서오경의 經文을 주제로 한 科詩 및 科賦 시제 소고」, 『동방한문학』 96집(2023).

9) 경문의 범위는 앞선 연구들과의 균형 있는 비교를 위해 사서와 오경으로 한정하며, 구서(九書)의 대문 및 이를 해설한 집주(集註) 등의 해설서와 소주(小註) 등까지도 포함하기로 한다. 또한 관리 선발을 위한 정규 과거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중시(重試) 등의 시험과 초계문신으로서 친시(親試)에서 지은 것 등은 제외하였다.

2. 경의를 주제로 한 책문 개괄

(1) 책제 개괄

조선 시대의 책문을 볼 수 있는 자료는 꽤나 다양하다. 공적인 기록물로는 방목(榜目)이나 왕명으로 편찬된 시제집 및 과문선집,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들 수 있으며, 사적 기록물로는 개인 문집과 시권, 시험 대비용 필사본 참고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사의 각종 기록물 속에서 필자가 수집한 경문 관련 책제는 대략 100여 개¹⁰⁾로, 이는 전체 책제의 약 20%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

물론 현전하는 자료 상의 모든 책제를 검토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책 관련 참고서 등이 계속해서 발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문 관련 책제가 전체 책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다만 다양한 책제 가운데 결코 적지 않은 비율로 출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초시 및 복시에서 시관이 출제한 집행(執策)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양상이라 하겠다. 이 가운데 조선 전기와 후기의 책문을 각기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찍이 육적(六籍)의 글을 보건대, 그 뜻이 가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있는 듯하니, 내가 그옥이 의심한다. 『주역』에서 말하기를, “역(易)을 지은 자는 근심하는 것이 있도다.” 하고, 또 말하기를, “하늘을 즐거워하고 명(命)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그 말이 서로 어그러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서경』에서 문왕(文王)을 칭찬하

10) 현재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는 학술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의 지원으로 '조선시대 과시(科試) 자료의 DB구축 및 수사문체와 논리구축방식의 변천사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문 관련 책제 가운데 사료 및 참고서와 관련한 것은 위 과제의 연구원들이 수집한 로우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자가 선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여 말하기를, “먹을 겨를도 없이 하여 만민(萬民)을 모두 화평하게 하였다.” 하고, 무왕(武王)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팔짱을 끼고 있어도 천하가 다스려졌다.” 하였으니, 그 정치를 하는 것이 같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시경』에서 말하기를, “호천(昊天)이 밝아서 너의 나가는 데에까지 미친다.” 하였으니, 하늘이 검검하여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 또 말하기를, ‘상천(上天)의 일은 소리로 없고 냄새도 없다.’ 하였으니, 하늘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대부들이 강구하기를 익히 하였을 것이니 각각 자세히 변명하여 대답하라. 내가 친히 보겠다.¹¹⁾

문노라. 현자는 국가의 기용(器用)인데, 『노론』에서 말하기를, “군자는 그릇처럼 하나의 쓰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 하였으며, 한유(漢儒)가 말하기를, “천하의 대기(大器)이다.”라 하였다. 어찌하여 그릇처럼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어찌하여 큰 그릇이라고 이르는 것인가? 자신이 크게 쓸 물건을 잘 보관한다는 설과 기용인 그릇(欵器)으로 삼는 경계는 어떠한 책에 나오며 어떠한 뜻을 비유한 것인가? 제나라의 관중(管仲)은 그릇이 작다고 배척하였으며, 진(晉)나라의 사안(謝安)은 큰 그릇으로 칭송받았으니, 어찌하여 작은 그릇이라고 이르고, 어찌하여 큰 그릇이라고 일컬은 것인가? … (중략) … 제생들은 반드시 평일에 강구하고 연마한 바가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각기 아는 바를 진술하라. 그 설을 듣고자 한다.¹²⁾

앞의 인용문은 1439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책문으로 경문 속에 나오

-
- 11) 『세종실록』 86권, 1439년(세종 21) 8월 20일 기사, <嘗觀六籍之文, 其義往往似有牴牾, 予竊疑焉. 易曰, “作易者, 其有憂患乎?” 又曰, “樂天知命, 故不憂.” 其言之相戾, 何歟? 書稱文王曰, “不遑暇食, 用咸和萬民.” 稱武王曰, “垂拱而天下治.” 其所以爲治之不同, 何也? 詩曰, “昊天曰明, 及爾出王.” 則天非冥冥而難知也. 又曰, “上天之載, 無聲無臭.” 則天不可得而測也, 亦將有說乎? 予大夫講之熟矣, 其各詳辨以對, 予將親覽焉.>
- 12) 『臨軒功令』(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11437)) 권75, 「高德柱 답안」, <問, 賢者國家之器用, 而魯論曰, 君子不器, 漢儒曰, 天下大器, 何以謂之不器, 何以謂之大器歟? 藏器之說, 欵器之戒, 著於何書, 而論其何意歟? 齊之管仲, 斥以小器, 晉之謝安, 稱以偉器, 胡然而謂小器, 胡然而謂偉器歟? … (중략) … 諸生必有講磨乎平日矣, 須各悉陳, 願聞其說.>

는 모순된 부분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질문하였다. 『주역』·「계사전(상)」에서 근심을 한다는 말과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함께 나오는 이유, 『서경』·「무일(無逸)」과 「무성(武成)」에서 문왕과 무왕의 치세 방식을 달리 서술한 이유, 『시경』의 「판(板)」과 「문왕(文王)」에서 하늘의 성질에 대해 각기 다르게 형용한 이유 등을 물었다. 삼경 가운데 동일한 용어 및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얼핏 보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는 문장을 대비하여 질문한 것이다.

뒤의 인용문은 1879년 식년문과초시(전라도)에서 출제된 책문으로 기(器)에 대해 물었다. 그릇에 관한 경문 속 대표 구절인 『논어』·「위정」의 「군자불기(君子不器)」를 비롯하여, 제나라와 진나라의 명재상인 관중과 사안을 두고 각기 소기(小器)와 위기(偉器)로 비유한 것 등 경문의 구절과 역사적 인물, 그릇 관련 문장의 의미와 출처에 대해 질문하였다.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된 경문을 나열하여 키워드가 가진 다양한 뜻을 상세히 캐물음으로써 경문 속 본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의 질문이다.

이상에서 조선 전·후기의 두 책제를 살펴보았을 때, 형식 및 내용적 측면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서술한 102개의 책제를 연도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1	1396년	尹祥	미상	五經之文, 乃載道之器	오경 전체	『別洞集』
2	이전	尹祥	미상	異端之說	『論語』, 『孟子』	『別洞集』
3	1396년	尹祥	식년문과(전시)	不逸	『書經』·「無逸」	『別洞集』
4	1411년	權克中	식년문과(전시)	三代之治	『論語』·「爲政」	『東國壯元策』
5	1416년	-	친시	忠孝	『論語』 등	『國朝榜目』
6	1434년	崔恒	식년문과(초시)	扶斯道關異端	『論語』, 『孟子』	『太虛亭集』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7	1438년	-	식년문과(초시)	王政損益	『論語』	『國朝榜目』
8	1439년	-	친시	六籍之文	『周易』, 『書經』 등	『世宗實錄』
9	1457년	-	별시(초시)	閏月定四時 등	『書經』·『堯典』 등	『世祖實錄』
10	1465년		별시(초시)	易何自而道	『周易』 전체	『世祖實錄』
11	1474년	楊熙止	식년문과(초시)	關異端	『論語』, 『孟子』	『大峯集』
12	1476년	-	별시(초시)	知人	『論語』·『子罕』	『成宗實錄』
13	1494년	-	식년문과(초시)	天地人	『周易』·『繫辭 傳(上)』	『成宗實錄』
14	1495년	李穆	증광문과(초시)	天人	『書經』·『洪範』	『李評事集』
15	1497년	-	별시(초시)	九經之治	사서오경 전체	『國朝榜目』
16		金安國	미상	五百年王者興	『孟子』·『公孫 丑(下)』	『慕齋集』
17	1503년 이전	金安國	미상	經傳史記, 古聖人之事, 多有可疑	경서 전체	『慕齋集』
18		金安國	미상	聖賢述作	경서 전체	『慕齋集』
19	1503년	金安國	별시(초시)	書之垂法	『書經』 전체	『慕齋集』
20	1526년	金義貞	별시(초시)	好惡是非	『孟子』·『公孫 丑(上)』	『潛庵逸稿』
21	1531년	李浚慶	식년문과(초시)	道學之傳	경서 전체	『東臯遺稿』
22	1540년	-	별시	道學之傳	경서 전체	『中宗實錄』
23	1546년	朴全	증광문과(초시)	忠孝	경서 전체	『松坡逸稿』
24	1558년	吳健	식년문과(초시)	爲學之道	『中庸』 20장	『德溪集』
25	1561년	崔昱	식년문과(초시)	誠意, 正心	『大學』 경1장	『簡易集』
26	1545-	曹好益	미상	天地之理	경서 전체	『芝山集』
27	1609 사이	曹好益	미상	人物之生, 有偏全不同	『周易』·『繫辭 傳(上)』	『芝山集』
28	1573년 이후	權宇	미상	大學	『大學』 전체	『松巢集』
29	1579년	-	식년문과(전시)	六蔽	『論語』·『陽貨』	『燃藜室記述』
30	1583년	呂大老	거창별시	太極道	『周易』·『繫辭 傳(上)』	『鑑湖集』
31	1583년	-	정시	制治保邦	『書經』·『周官』	『燃藜室記述』
32	1584년	-	별시(전시)	推是心行是政	『孟子』·『梁惠 王(상)』 등	『國朝榜目』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33	1586년	-	별시(전시)	六經	육경 전체	『國朝榜目』
34	1591년	-	별시(전시)	洪範	『書經』·「洪範」	『國朝榜目』
35	1602년	李好閔	별시(초시)	治平之道	『中庸』, 『大學』	『五峯集』
36	1605년	-	별시(초시)	吾王庶幾無疾病	『孟子』·「梁惠王(下)」	『國朝榜目』
37	1609년	-	증광문과(초시)	愼終于始	『書經』·「太甲下」	『國朝榜目』
38	1628년	-	별시(전시)	爲治在順民心	『孟子』, 『書經』 등	『國朝榜目』
39	1633년	-	증광문과(전시)	六經宗旨	육경 전체	『國朝榜目』
40	1666년	-	온양별시	巡狩	『孟子』·「梁惠王(下)」	『國朝榜目』
41	1669년	-	식년문과(초시)	經術試士	경서 전체	『國朝榜目』
42	1735년	-	증광문과(초시)	遠慮	『論語』·「衛靈公」	『科儷』
43	1737년	-	별시(초시)	夜氣	『孟子』·「告子(上)」	『科儷』
44	1763년	-	증광문과(초시)	七情	『孟子』·「盡心(下)」	『國朝榜目』
45	1763년	-	증광문과(복시)	治天下當如禹之治水	『尙書精義』	『國朝榜目』
46	1776년	-	별시(초시)	一中	『周易』, 『書經』 등	『無名子集』
47	1777년	-	정시(전시)	信	사서오경 전체	『弘齋全書』
48	1777년	金熙稷	증광문과(초시-경상좌도)	名	『論語』·「衛靈公」 등	『臨軒功令』 4권
49	1777년	黃珪	증광문과(초시-전라좌도)	鳶魚	『詩經』·「大雅·旱麓」	『臨軒功令』 4권
50	1777년	李敏采	증광문과(초시-충청우도)	論語	『論語』 전체	『臨軒功令』 4권
51	1783년	-	증광문과(복시)	言者, 身之文也	『春秋左氏傳』·「僖公」	『文蔚·觀詩辨』
52	1783년	-	정시	知人	『書經』·「皐陶謨」	『弘齋全書』
53	1788년	張漢豊	식년문과(초시)	禹貢	『書經』·「禹貢」	『臨軒功令』 9권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54	1788년	柳火+篤	식년문과(초시)	大學	『大學』 전체	『臨軒功令』 9권
55	1788년	羅東倫	식년문과(초시- 충청좌도)	仁知之樂	『論語』·「雍也」	『臨軒功令』 9권
56	1788년	宋文煥	식년문과(초시- 충청우도)	四書三經	사서삼경 전체	『臨軒功令』 9권
57	1788년	柳光灑	식년문과(초시- 전라좌도)	詩經	『詩經』 전체	『臨軒功令』 9권
58	1788년	孫鎭一	식년문과(초시- 경상우도)	七月之詩	『詩經』·「邶風」 ·七月」	『臨軒功令』 9권
59	1788년	權漢寅	식년문과(초시- 원춘도)	大學	『大學』 전체	『臨軒功令』 9권
60	1788년	朴龜錫	식년문과(초시- 경상좌도)	義	『孟子』, 『論語』 등	『臨軒功令』 9권
61	1788년	金乃默	식년문과(초시- 평안도 청남)	經傳	경서 전체	『臨軒功令』 9권
62	1788년	李聖車	식년문과(초시- 함경남도)	大學	『大學』 전체	『臨軒功令』 9권
63	1789년	洪宗涉	식년문과(복시)	詩三百	『論語』·「爲政」 등	『臨軒功令』 10권
64	1790년	鄭璋	식년문과(초시- 경상좌도)	易學啓蒙	『周易』·「繫辭 傳(上)」	『臨軒功令』 14권
65	1790년	-	증광문과(초시)	五行	『書經』·「洪範」	『文武科殿試 榜目』
66	1794년	李游誠	식년문과(초시- 전라좌도)	不動心	『孟子』·「公孫 丑(上)」 등	『臨軒功令』 17권
67	1795년	李英發	식년문과 (생회과)	易	『周易』 전체	『臨軒功令』 17권
68	1800년	-	친림춘당대추도 기	五福	『書經』·「洪範」	『臨軒功令』 1권
69	1801년	-	증광문과(초시)	名敎	경서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70	1801년	-	증광문과(복시)	動靜	경서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71	1809년	-	증광문과(초시)	皇極	『書經』·「洪範」	『科儷』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72	1813년	柳協元	증광문과(초시)	富	『書經』·『洪範』	『臨軒功令』 25권
73	1818년	慶翊斗	식년문과(초시 -강원도)	堯典	『書經』, 『堯典』	『臨軒功令』 31권
74	1822년	李儼行	식년문과초시	中	『中庸』 5장	『臨軒功令』 31권
75	1822년	李蓄重	식년문과(초시 -강원도)	經	경서 전체	『臨軒功令』 31권
76	1822년	李彙復	식년문과(초시 -경상좌도)	知行	『論語』, 『中庸』 등	『臨軒功令』 31권
77	1822년	金相履	식년문과(초시 -경상우도)	義利	『論語』·『里仁』	『臨軒功令』 31권
78	1822년	徐燭中	식년문과(초시 -공청우도)	富	『書經』·『洪範』	『臨軒功令』 31권
79	1824년	李明翼	식년문과(초시 -공청좌도)	無逸	『書經』·『無逸』	『臨軒功令』 33권
80	1824년	鄭致默	식년문과(초시 -공청우도)	仁	『論語』, 『孟子』	『臨軒功令』 33권
81	1824년	權復準	식년문과(초시 -경상좌도)	心性	『書經』, 『論語』 등	『臨軒功令』 33권
82	1824년	南陽泰	식년문과(초시 -함경북도)	尙書	『書經』 전체	『臨軒功令』 33권
83	1827년	-	증광문과(초시)	壽	『中庸』 17장	『文武科殿試 榜目』
84	1835년	-	증광문과(초시)	五經	오경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85	1835년	-	증광문과(복시)	五穀者, 種之美者	『孟子』 「告子(上)」	『文武科殿試 榜目』
86	1844년	-	증광문과(초시)	玉	『論語』·『公治 長』 등	『文武科殿試 榜目』
87	1844년	-	증광문과(초시)	春秋綱目	『春秋』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88	1848년	-	증광문과(초시)	易有三易	『周易』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89	1848년	-	증광문과(복시)	有物有則	『詩經』·『蕩之 什·烝民』	『文武科殿試 榜目』

연번	연도	응시자 성명	시험 종류 및 단계	책문	해당 경서 및 편명	출전
90	1854년	權膺懋	식년문과(초시- 충청우도)	博約	『論語』·「雍也」	『臨軒功令』 61권
91	1854년	李能儼	식년문과(초시- 경상좌도)	陰陽	『周易』·「繫辭 傳(上)」	『臨軒功令』 61권
92	1854년	高龍鎭	식년문과(초시- 전라좌도)	易	『周易』 전체	『臨軒功令』 61권
93	1858년	許稷	식년문과(초시- 경상도)	五福	「書經」·「洪範」	『臨軒功令』 63권
94	1859년	申光軾	秋到歸科	詩經	『詩經』 전체	『臨軒功令』 63권
95	1859년	-	증광문과(초시)	仁	『論語』·「里仁」 등	『文武科殿試 榜目』
96	1865년	李晚櫓	식년문과(초시)	禮	경서 전체	『臨軒功令』 72권
97	1865년	馬寅結	식년문과(초시- 함경도)	朋友	『論語』, 『孟子』 등	『臨軒功令』 72권
98	1865년	미상	식년문과(초시- 미상)	儒	『論語』·「雍也」 등	『臨軒功令』 72권
99	1865년	姜奎會	식년문과(초시- 미상)	河圖洛書	『周易』	『臨軒功令』 72권
100	1874년	-	증광문과(복시)	春秋	『春秋』 전체	『文武科殿試 榜目』
101	1879년	具健喜	식년문과(초시)	敬	경서 전체	『臨軒功令』 75권
102	1879년	高德柱	식년문과(초시- 전라도)	器	『論語』·「爲政」	『臨軒功令』 75권

〈표1. 경문의 뜻을 주제로 하는 책제 목록〉

위 표를 통해 경문 관련 책제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상술하였듯이,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 상에서 보여지는 전체 책제 대비 경문 관련 책제의 비율은 대략 20% 내외로 볼 수 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시·부에서의 출제 비율보다는 비교적 낮은 비율이라는 점이다. 소과 진사시 및 대과 등에서 출제된 시·부에

서의 경문 관련 시제는 소과에서 약 31%, 대과에서 57% 등 과반을 상회할 정도로 꽤 높은 비율로 출제되었다.¹³⁾ 이는 앞서 밝힌 것처럼 책문은 시무와 현안을 비롯하여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시험의 종류로 구분하여 말해보자면, 식년시와 증광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출제했음을 알 수 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는 식년시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치르는 증광시의 경우 시험의 실행 목적은 달랐으나, 이것이 책제의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8세기 이전에는 별시 등의 시험에서도 간혹 출제되었으나, 19세기 이후로는 거의 식년시와 증광시에서만 출제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경문 관련 책제는 조선 전기부터 꾸준히 출제되었으며, 조선 전기에는 집책(執策)과 전책(殿策) 모두에서 비슷한 비율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조대 이후로 전시에서 경문 관련 책제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시관이 출제한 집사책이 왕께서 친히 출제한 전책보다 경문 관련 책제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조선 후기 각종 문과의 최종시에서 대책 이외의 표·전, 잠·명·송 등 고시 과목이 다양화되면서 대책의 고시 비율 자체가 낮아진 상황¹⁴⁾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답안의 길이가 길고 내용이 어려워 채점이 쉽지 않았던 대책은 즉일방방(卽日放榜)의 방식으로 치러진 별시나 정시 등의 고시 과목으로는 선호되지 않았던 것이다.

집책 가운데에는 한성시보다는 향시에서 거의 대부분이 출제된 점을 볼 수 있었다. 정조~고종대 실행된 과거 시험의 시제와 모범 답안을 수록한 과문선집 『임헌공령』을 살펴보면, 각 권차마다 문체별로 나누어 과

13) 윤선영(2023), 90면 참조.

14) 김광년(2022), 197~200면 참조.

문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1788년 식년문과초시 일·이소를 비롯하여 9개의 지방에서 출제된 11개의 책제 가운데, 무려 10개가 경문 관련 책제임이 확인된다. 향시에서 경문 관련 책제의 높은 출제 비중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점이다.

인용된 경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경(敬), 인(仁), 신(信) 등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경서의 경문을 인용하거나, 경서 자체를 주제로 한 책제들이 자주 출제되었다. 키워드 중심의 시제는 사서의 나·시·부에서도 자주 보이는 출제 유형이나, 경문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에 관한 내용은 대책에서 주로 보이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소과의 과목들이 경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를 출제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말미암아 경세(經世)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묻고자 한 대책의 출제 방향성과 연관되는 것이라 하겠다.

하나의 경서를 중심으로 출제된 책제의 경우, 비교적 사서와 오경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는 그만큼 출제 비중이 압도적인 경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소과에서 출제 비중이 낮은 편인 『대학』, 『주역』 등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생원시의 사서의·오경의에서 『논어』와 『예기』, 시·부에서 『맹자』와 『시경』이 각기 사서와 오경 중 가장 많이 출제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논어』의 위경, 『서경』의 「홍범」, 『시경』에서 「문왕」 등 대아(大雅)에 속하는 시들, 『주역』의 「계사전(상)」 등의·의와 시·부 모두에서 높은 비율로 출제된 편장들은 대책의 시제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다. 역시나 경문의 다양한 구절 가운데서도 과거의 시제로 쓸 만한 교훈적 내용이 담긴 편장들은 그 과목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자주 인용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소과 시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에서는 경문 관련 책제가 소과에서 출제된 시제들과 형식적인 면 또는 내용적인 면에서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사서의 과목의 경우 자의(字意) 및 개념어에 관한 의(疑), 자구문장의 논리에 관한 의(疑), 경문 내외의 차이에 관한 의(疑), 총경(總經) 및 경의(經義)에 관한 의(疑) 등으로 시제의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¹⁵⁾, 경책(經策) 또한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사한 경문 구절을 다른 시제를 대상으로 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두 인용문을 먼저 보도록 하자.

【策】 문노라. 500년이 되면 반드시 왕이 될 만한 자가 나온다 하였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세상에 이름난 자가 있음은 천지의 운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삼대 이상에서는 손꼽아 셀 수 있으며 차질이 없는데, 진(秦)·한(漢) 이하에서 마땅히 500년만에 나온 왕이 될 만한 자가 누구인가? 그 사이에 세상에 이름난 자라면 또한 후직(后稷)과 설(契), 이윤(伊尹), 내주(萊州), 여망(呂望), 산의생(散宜生)의 무리인가? 왕이 될 만한 자가 만일 500년의 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이름난 사람 또한 후직이나 설 등의 무리에 비할 바가 아닌즉, 천지의 운수가 여기에 이르러 끊어진 것인가? 진나라 이후에 1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염락(濂洛)의 제유가 나왔으니 삼대 이상의 세상의 이름난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나 또한 세상에 도를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어찌서인가? 맹씨(맹자)의 말은 징험하는 바가 없는 것인가? 제생들이 이를 강구하기를 청하노라.¹⁶⁾

15) 윤선영(2019), 87면 참조.

16) 金安國, 『慕齋集』 권10, 〈問. 五百年必有王者興, 其間必有名世者, 天地運數然也. 三代以上, 可歷數而無差矣. 秦漢以下, 可當五百之數者, 誰歟? 其間名世者, 亦可比於稷·契·伊·萊·呂望·散宜生之屬歟? 王者若無當五百之數者, 名世之人, 亦無稷契之類之比, 則天地運數至此而熄斷歟? 秦後千有餘年, 始有濂洛諸儒, 足以比肩於三代以上名世之人, 而又不能行道於世, 何也? 孟氏之言, 無乃不驗歟? 請與諸生講之.〉

【四書疑】 문노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순에서 탕임금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의 시간이 걸렸고 탕임금에서 문왕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문왕에서 공자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였다. 무릇 하늘이 聖人을 탄생시키기에 반드시 500년이라는 시간으로써 기한을 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아래에 또한 말하기를, “공자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이 걸렸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공자로부터 100여 년 뒤에 맹자가 있었으니 이는 500년이라는 기한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성인이 다시 나온 것이다. 이 까닭은 무엇인가? 맹자로부터 500여 년 후에 다시 성인이 없었으며 15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정자와 주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하늘이 성현을 탄생하심은 반드시 500년이라는 기한으로써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先儒께서 말씀하시기를, ‘黃河는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진다.’라고 하였으니 聖人은 천년에 한 번 탄생하는 것으로 기한 삼을 수 있는가? 500년의 기한과 같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그 설을 듣기를 원한다.¹⁷⁾

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문집인 『모재집(慕齋集)』에 실려 있는 ‘五百年王者興’을 주제로 한 책문이다. 위 답안에 대해 별다른 부기(附記)가 없어, 시험 연도 및 시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김안국의 문과 입격 연도가 1503년이며 『모재집』에 1503년 별시 책제가 기록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그 이전에 출제된 책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아래는 1779년 식년감시 초시(홍충우도)에서 출제된 사서의 문제로, 정조대의 시제를 기록한 시제집 『경외제록(京外題錄)』에 수록되어 있다.

17) 『京外題錄』(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9943)) 小科題, 〈問. 孟子曰, “由堯·舜至於湯, 五百有餘歲, 由湯至於文王, 五百有餘歲, 由文王至於孔子, 五百有餘歲.” 夫天之生聖, 必以五百歲爲期者, 何歟? 其下又曰, “由孔子以來至于今, 百有餘歲.” 然則由孔子百有餘歲, 而有孟夫子, 此則不滿五百歲之期, 而聖人復生者, 何歟? 由孟子以後五百歲, 更無聖人, 及至千五百年之後, 始有程·朱, 然則天之生聖賢, 不必以五百歲爲期歟? 先儒云, ‘黃河千年一清.’ 而聖人生千一之期歟? 五百之期不同, 何歟? 願聞其說.)

두 시제들은 모두 『맹자』·「진심(하)」에서 성인이 50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나온다고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하여, 성인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음에 대한 의문점을 드러낸 질문들이다. 경문 속 내용과 현실 간의 차이를 지적한 유형에 속한다. 두 질문 모두 삼대 이상에서는 500여 년의 간격이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서술하였으며 그 이후의 인물들의 출현 시기를 의문으로 삼고 있는데, 책문에서는 진한 이래로, 사서의에서는 공자 이래로 그 기준점이 약간 다른 점 이외에는 같은 요지의 질문임을 볼 수 있다. 하나의 인용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策】 문노라. 솔개와 물고기는 생물 가운데 미미한 것인데, 자사께서 특별히 그 상하에 이치가 유행하여 환히 드러나는 뜻을 말하였으니 크다고 할 만하다. 솔개와 물고기가 낳는 것은 무엇이며 낳는 까닭은 무엇인가? 솔개와 물고기가 날고 뛰어오르는 곳은 어디이며, 날고 뛰는 까닭은 무엇인가?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낳는 것과 낳는 까닭은 마땅히 어떻게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의 일로 미루어 보자면 날고 뛰는 것과 날고 뛰는 까닭은 마땅히 어떻게 명확히 말할 수 있는가? 솔개가 날 수 있으나 떨어 수 없으며, 물고기가 떨어 수 있으나 날 수 없음은 이(理)라고 이르는가? 기(氣)라고 이르는가? 비은(費隱)으로써 솔개와 물고기의 날고 뛰를 말하자면, 어떤 것이 비이고 어느 것이 은인가? 이기(理氣)로써 솔개와 물고기를 말해보자면, 날고 뛰는 것은 어떤 것이 이이고 어느 것이 기인가? 이미 『중용』에서 솔개와 물고기를 말하였으니, 솔개와 물고기가 『중용』에 묘하게 부합되는 까닭을 들을 수 있겠는가? ... 중략 ... 만일 사람으로 하여금 솔개와 같이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와 같이 뛰어 연못에서 노닐어 각기 그 마땅함을 얻어 사람됨에 있어 부끄러움이 없게 하고자 한다면 그 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자세한 바를 듣기를 원한다.¹⁸⁾

18) 『臨軒功令』 4권, 〈問. 鳶魚物中之微細, 而子思特言其上下察流行昭著之義, 可謂大矣. 鳶魚之生者何, 而所以生者, 何歟? 鳶魚之飛躍者何, 而所以飛躍者何歟? 譬於人身, 則生與所以生者, 當何以分言歟? 推之人事, 則飛躍與所以飛躍者, 當何以明言歟? 鳶飛而不能躍, 魚躍而不能飛, 謂之理歟, 謂之氣歟? 以費隱言鳶魚之飛躍, 何者爲費? 何者爲

【四書疑】 문노라. 『중용』에서 말하기를, “솔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는다.”라고 하였다. 솔개와 물고기는 비은(費隱)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솔개와 물고기로 이를 비유함에 미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늘에 있는 생물은 한 마리의 솔개뿐만이 아니요, 땅에 있는 생물 또한 한 마리의 물고기뿐만이 아닌데, 유독 솔개와 물고기로써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¹⁹⁾

위는 1777년 증광문과 초시(전라좌도)와 1777년 증광감시 초시(황해도)에 각기 출제된 대책과 사서의 시제이다. 같은 연도에 출제된 소과와 대과 문제로, 같은 경서와 경문을 대상으로 하여 향사에서 출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흥미롭다. 시제는 『중용』 비은장(費隱章)에서 『시경』 「대아(大雅)·한록(旱麓)」의 시를 인용한 구절인 연비어약(鳶飛魚躍)에 관해 묻는 문제로, 정자가 『중용장구』 제12장에서 이를 풀이하며 “긴요하게 사람을 위해 일러준 곳으로 생기가 넘친다[此喫緊爲人處, 活潑潑地].”고 한 주석으로 더욱 유명하다. 이는 특히 사서의 과목에서 많은 문제에 중복 출제된 구절로, 자구 및 문장의 논리에 관한 의문점을 묻는 유형이다.

시제에서 묻는 바는 주로 솔개와 물고기로 비유한 천지의 미물이 비은(費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만물 가운데 왜 하필 솔개와 물고기로 비유한 것인가로 요약된다. 동일한 요지의 질문에서 대책은 이를 이기(理氣)와 연관시켜 보는 등 더욱 심오한 내용을 묻고 있으며, 사람됨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고자 하는 도는 무엇인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隱歟? 以理氣言鳶魚之, 飛躍何者爲理? 何者爲氣歟? 旣以鳶魚言於中庸, 鳶魚之妙合於中庸者, 可得聞歟? … 중략 … 如欲使人若鳶之飛而戾天, 如魚之躍而在淵, 各得其宜, 無愧於爲人, 其道何由? 願聞其詳.)

19) 『臨軒功令』 4권, 〈問, 中庸曰, “鳶飛戾天, 魚躍于淵”, 鳶魚何關乎費隱, 而及以鳶魚喻之者, 何歟? 在天之物, 非一鳶而已, 在地之物, 亦非一魚而已, 而獨以鳶魚言之, 何歟?〉

위의 인용문들을 상기해 볼 때, 경책과 사서의 과목의 시제는 형식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책의 경우는 여러 경서들을 인용한 문제들이 대부분인 반면, 사서는 많아야 두 책 정도를 비교하는 수준이며, 한 책 내에서 물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특정 개념어를 위주로 한 시제에서 더욱 확연한 양상이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과목간 시제의 길이 차이와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사서의 시제의 경우는 질문이 비교적 짧다 보니 대책에서 물은 요지를 축소하여 서술한 느낌이 있으며, 반대로 경책의 경우에는 물어보는 질문의 수가 많고 내용이 상세한 점, 앞뒤로 출제자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보인다. 지면의 한계로, 본문에서 전부 다루지는 못했으나, 개념어 및 자의(字義)를 물은 유형, 여러 경서의 구절을 인용하는 총경(總經)의 유형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3. 책문의 서술 요소와 선유설 인용

(1) 책문 서술 요소 - 전책과 집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책문을 구조화하여, 각 단계마다 서술하는 요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전책과 집책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위주로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인용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론부〉

【殿策】 왕은 말하노라. 신(信)이란 군주의 큰 보배이다. 인의예지

의 사덕(四德)의 바탕이 되고, 모든 선(善)의 주인이다. 사람이면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일 수 없으며 나라에 믿음이 없다면 나라가 될 수 없으니, 그 용도가 어찌 크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사귀는 듯하다.”는 말은 『주역(周易)』에 수록되어 있고 “믿음을 돈독히 하여 의리를 밝히라.”는 것은 『서경(書經)』에 보이는 말이니, 이는 임금노릇 하는 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신(信)에 두 명령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춘추좌전』[夸史]을 일컬음이고, ‘왕의 신실한 신하’라는 것은 대아(大雅)에서 면려한 바이니, 이는 또한 남의 신하 된 자의 신(信)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執策】 문노라. 『논어』에서 “인한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니, 산수를 좋아함은 진실로 인지(仁知)의 일이다. 그러나 옛 사람들을 헤아려 보건대 논의할 만한 점이 많다. 인과 지의 지극함은 공·맹만한 이가 없거늘, 천하를 두루 떠돌아다니고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에서 유세하는 동안 어떠한 산이나 물을 한 번 완상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본론부〉

【殿策】 공자는 건괘(乾卦) 구이효(九二爻)의 해석에서 “일상의 말을 믿음 있게 하라.”고 하였으며, 맹자는 대인(大人)의 일을 거론하면서 “말은 믿게 하기를 기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일한 믿을 신(信)자(字)인데, 전성과 후성의 말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어찌서이냐? 군병과 식량은 버려도 신(信)은 버릴 수 없다고 하였으며, 황금이나 보옥이 보물이 아니라 오직 신이 보물이라고 하였는데, 신을 행하는 도리란 이처럼 급한 것이냐? 유우씨(有虞氏)는 백성에게 신을 보이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그를 믿었고, 탕은 억조 백성에게 신을 현양하였으며, 주나라는 지극히 성신하였으니, 아, 당우(唐虞)는 더할 수 없이 훌륭하고 삼대 시대는 논의할 여지가 없지만, 후세로 내려오면서도 신(信)을 제대로 실천한 이들이 역시 많았다. 제(齊) 나라 환공(桓公)과 진(晉) 나라 문공(文公)은 인(仁)을 가장한 패왕이었으나, 중국의 맹주가 되어 조가(曹柯)의 약속을 마침내 실천하였고, 패업을 수행하였으되 원(原)을 정벌하는 이익을 탐하지 않았으며, 위(魏) 나라 문후(文侯)는 전국

시대의 참람한 제후였지만 우인(虞人)과의 기약을 잊지 않았고, 상양(商鞅)은 신불해(申不害), 한비(韓非)와 같이 참각(慘刻)한 무리이지만 오히려 삼장목(三丈木)을 옮기는 신의를 보였다. 이들은 모두 신의를 실천하는 도리를 잃지 않아서 의논할 만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이는 무덤 앞에 검을 매달아 처음 가졌던 마음을 실행한 이도 있고, 어떤 이는 기둥을 안고 신의를 잃지 않은 이도 있었는데, 이들은 진실로 필부(匹夫)의 신의이나 세상의 도리에 보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執策】 안연은 아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증삼은 도를 전수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좋아함이 단지 단표(簞瓢)와 누항(陋巷), 폐의(弊衣)와 경야(耕野)에 있고 산의 승경과 물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으니, 과연 이 두 사람은 인지(仁知)가 미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상산(商山)의 사호(四皓)나 칠리탄(七里灘)의 엄릉(嚴陵)은 세상을 피해 높이 숨어 모두 산수로 귀의하였으니, 또한 인지의 좋아함을 얻은 것인가? 도연명은 일찍이 동리로 돌아가 남산을 마주 대하고 유연한 흥취가 있었으며 백낙천은 뒤늦게 명성을 사양하여 향산(香山)에 누워 팔절의 여울을 완상하였으니 과연 모두 산수에 묘하게 부합하여 인지의 좋아함을 깊이 얻은 것인가? 사마천이 진농(秦隴)에서 노닐고, 소자유가 종남산을 관광하여 산수의 뛰어난 경치를 가슴 속에 가득 담았으니 또한 모두 진실로 인지에 부족함이 없으며 그 좋아함을 만난 것인가?

〈결론부〉

【殿策】 대체로 신이라는 한 글자는 바로 위아래를 유지하고 인심을 굳게 맺는 긴요한 도리이다. 군주는 이것으로 아래를 거느리고 신하는 이것으로 위를 섬기면 위에서는 의구심이 없으며 아래서는 흐트러지지 않게 된다. 국가가 태평한 시절에는 원수(元首)가 고굉(股肱)에 의지하고,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는 수족이 머리를 감싸게 된다. 이것이 옛 성왕이 장구한 치안을 유지한 계책이다. 어쩌다 근세에 들어 인심은 곱지 않고 습속은 더욱 조작되어 군신 사이에 정리가 믿기지 않고 봉우끼리는 의심하는 풍조가 굳어져, 위는 아래를 믿지 않고 아래는 위를 믿지 않으니, 이것은 과연 인도함이 밝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냐? 아니면 혹

시 세도의 변화가 더욱 낮아져 그러한 것이냐? 어떻게 하면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필부와 서인에 이르기까지 신의가 중심에서 우러나 믿음의 잭아맨 것 같아서, 인심은 나날이 충후하게 되고 치도는 모두 빛나는 곳에 이르게 되겠느냐? 제생(諸生)은 속에 쌓인 것을 죄다 기울여 각기 대책편에 논저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²⁰⁾

【執策】 오늘날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자는 또한 많이 있다. 하나의 산과 물의 승경을 보고 문득 몸을 일으켜 그곳에 임하고, 하나의 산과 물의 승경을 듣고서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두루 유람하는 발자취가 있다. 꽃 피는 아침부터 달뜨는 저녁까지 그 사이에서 시를 읊조리고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 신고서 오르내리며 묵으니 이는 인지의 좋아함을 만나 그 즐거움을 즐기는 것인가? 어찌하여야 산에 오르지 않고 물가에 임하지 않고서 인이 더욱 돈독해지고 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가? 산에 있지 않고 물가에 있지 않으면서 그 인을 좋아하고 그 지를 좋아할 수 있는가? 제생들의 변론을 듣기를 원한다.²¹⁾

20) 『홍재전서』 48권, 「策問·信」. 〈王若曰, 信者, 人君之大寶也. 於四德爲地, 於衆善爲主. 人而無信, 則不可以爲人. 國而無信, 則不可以爲國, 其爲用顧不大歟? 厥孚交如, 義易揭訓, 惇信明義, 壁經駕說, 斯可謂君人之信歟? 信無二命, 夸史所稱王之蓋臣, 雅詩攸勉, 亦可謂人臣之信歟? 夫子釋九二之爻曰, 庸言之信, 孟子論大人之事曰, 言不必信, 同一信字, 而前後聖立言之不同, 何歟? 兵食之可去, 而信不可去, 金玉之不寶, 而惟信是寶, 則行信之道, 若是其急歟? 有虞氏未示信於民而民信之, 湯之彰信兆民, 周之底至齊信, 猶歟! 唐虞尙矣, 三代無容議焉, 降及後世, 能踐者亦多. 齊桓晉文, 假仁之霸主也, 而狎主夏盟, 竟踐曹柯之約, 能修霸業, 不貪伐原之利, 魏文戰國之僭侯, 而無忘虞人之期, 商鞅申韓之慘刻, 而猶示丈木之信, 則茲皆不失於行信之道, 而無可議者歟? 或有掛劍, 而以酬初心者, 或有抱柱, 而不失其信者, 斯固匹夫之信, 而亦可有補於世道歟? 大抵信之一字, 乃所以維持上下, 固結人心之要道也. 人君以是而御下, 人臣以是而事上, 上無疑阻, 下不泮渙. 當國家升平之日, 元首倚於股肱, 逮天步艱難之時, 手足捍其頭目, 此古昔聖王久安長治之謨也. 夫何近世人心不淑, 俗習滋偽, 君臣之間, 情意未孚, 朋友之際, 疑貳成風, 上不信下, 下不信上, 是果由於導率之不明而然歟? 抑或由於世變之益下而然歟? 何以則上自人君, 下至匹庶, 信由中出, 有孚攣如, 人心日歸於忠厚, 治道可臻於咸熙歟? 諸生罄盡底蘊, 其各悉著于篇. 予將親覽焉.〉 책문의 해석은 『(국역)홍재전서』(민족문화추진회, 2008)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21) 『임헌공령』 권9. 〈問. 仁者樂山, 知者樂水, 山水之樂, 是固仁知之事, 而探諸古人, 則多有可議者矣. 仁之盡·知之至, 莫若孔·孟也, 而輒環天下, 遊遍齊梁之日, 未聞一玩於某山某水, 何歟? 顏淵亞聖之姿也, 曾參傳道之人也, 其樂只在於簞瓢陋巷弊衣耕野, 而不在於山之勝·水之麗, 果可以此謂二子仁知之未盡耶? 商山四皓, 七里巖陵, 避世高蹈, 皆以山水爲歸, 則亦得仁知之樂歟? 淵明早歸東里, 對南山悠然之趣, 樂天晚謝聲名,

위는 1777년(정조 1) 정시에서 '신(信)'이라는 개념어와 관련하여 출제된 전책과, 1788년(정조 11) 식년문과 초시(충청좌도)에서 『논어』·「용야」의 '仁者樂山, 知者樂水'와 관련한 출제된 집책이다. 책문 속 서술 요소를 비교해 보기 위해, 위 책문들을 서론부와 본론부, 결론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론부에서는 각기 왕약왈(王若曰), 문(問)이라는 투식어로 시작하며, 시제로 출제하고자 하는 내용 관련한 대표 경문을 서술한다. 전책의 경우는 경문을 인용하기 전에 주로 시제를 불러일으키는 모두 서술을 주로 하는데, 이는 주로 왕 자신에 대한 자성(自省), 핵심 용어의 원론적 개념 정의 등을 서술한다. 반면 집책의 경우는 투식이 다음에 바로 관련 경문과 의문스러운 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질문에는 '何歟'라는 의문사를 주로 사용하는데, 조선 전기의 책문들에는 '何耶'도 혼용하였으나, 중기 이후부터 '何歟'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인다. '歟'자는 경전에서 거의 '與'자와 주로 통하며 『예기』·「祭義」주에 '與者, 不執定之辭.'라고 되어 있다. 즉, '歟'자는 마음에 의구심이 있으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응시자의 의중을 넉넉히 물어보는 시험의 질문에 적합하다고 하겠다.²²⁾

본론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의문점을 이어가며 구체화하는데, 집책의 경우 서론부에 제시한 경문 1을 보완할 수 있는 경문

臥香山八節之灘, 果皆妙契山水, 而深得仁知之樂歟? 馬遷秦隴之遊, 子由終南之觀, 其於山水勝概, 包括胸襟, 亦皆眞無歉於仁知, 而寓其樂歟? 今之樂山樂水者, 蓋亦多矣, 見一山一水之勝, 則輒起興而臨之, 聞一山一水之勝, 則不遠千里期遍遊覽之跡. 花朝月夕, 嘯詠其間, 竹杖芒鞋, 陟降信宿, 是果寓仁知之樂而樂其樂歟? 何以則山不登·水不臨, 而仁益敦·知益高歟? 不于山·不于水, 而樂其仁樂其知歟? 願與諸生下之.)

22) '歟'자는 사서의 과목에서도 동일하게 자주 쓰인 의문사이다. 윤선영(2019) 83면 참조.

2,3,4를 차례로 인용하거나 관련한 선유들의 설, 유명 시문(詩文) 등을 나열하여 서술한다. 전책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위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며, 이와 더불어 치세의 방도나 선현들의 덕정 관련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경문의 뜻을 물어보며 시제를 시작하지만 곳곳에 국가의 시무나 현안, 고대 성현들의 훌륭한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대책으로 묻고자 하는 바가 결국엔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관리를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는 의문의 내용을 정리하며 결사로 마무리한다. 당대의 상황이나 현실 비판 등 잠시 화제를 전환시킨 후, 의문으로 제기했던 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서술을 한다. 결사로 쓰이는 투석어는 주로 제생(諸生), 강구(講究), 원문기상(願聞其詳)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전책의 경우는 여장친람(予將親覽), 여채택이용지(予採擇而用之矣) 등의 말이 여기에 덧붙여진다.

이상에서 집책과 전책의 예시를 들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형식적인 면에서 각 부분마다 서술 요소에 큰 차이점이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나름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집책과 전책의 출제자 및 시험 목적이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책은 문과 초시 및 복시의 종장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각 단계별 합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응시자가 이 경문(혹은 경서)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책은 이미 복시를 합격한 33명이 최종 등수를 두고 겨루는 시험에서 출제되었다. 즉, 이미 응시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인재인지를 획득받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경문의 뜻을 밝혀 나가는 과정의 귀결은 곧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방도를 궁구하고 선현들의 치세를 본받고자 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책의 경우는 질문의 요지가 경문의 뜻에 집중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제시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반면 전책은 책문의 앞뒤로 왕 자신과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성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예시로, 1396년 식년문과(전시)의 책제에서 『서경』 「무일」의 황극(皇極)의 의미에 대해 물으며, “왕은 이르노라. 부덕하고 우매한 내가 조종(祖宗)이 쌓은 은덕에 힘입고 신민(臣民)이 추대하는 마음을 받아 왕위에 오르고 보니, 책임이 중대하여 구제할 방도를 모르겠으므로 두렵다. 우리러 전대를 본받아 소강(小康)을 이루고자 한다.”²³⁾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책의 서두와 말미에서는 요·순·우·탕 등 중국 고대 성군의 정치철을 본받고자 하는 내용, 벽이단(關異端) 등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내용이 시제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선왕들의 치세에서 손익을 물어 후대에 더욱 훌륭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했던 열망을 엿볼 수 있다.

(2) 선유설 인용의 범주와 방식

경책에는 질문의 핵심이 되는 경서를 중심으로, 각종 관련 문장들이 점철되어 있다. 흔히 13경으로 불리는 경서의 경문을 비롯하여, 경문을 주석한 해설서, 역사적 인물과 고사, 유명 작가의 시문, 철학자가 자신의 설을 담아 지인과 주고받은 편지 등 다양한 종류의 문장들이 이에 해당된다. 본 단락에서는 경책에서 선유설들을 인용하는 범주가 대략 어느

23) 尹祥, 『別洞集』 권2, 「策·殿策」, “王若曰, 惟予寡昧, 荷祖宗積累之德, 膺臣民推戴之心, 獲登寶位, 任大責重, 罔知攸濟, 是用惕然. 仰惟前代時憲, 幾致少康, … (하략) …”

정도인지, 이는 사서의 과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노라. 소옹(邵雍)의 시에 ‘하늘은 일(一)에서 조화를 나눈다.’라고 하였다. 일이란 숫자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조화가 분화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복희씨가 괘를 만들자 만 가지 조화가 시작되었는데, 획을 나누어 양효(陽爻)와 음효(陰爻)가 되었다. 천지가 자리를 정하자 만물이 생겨났는데, 또한 쌍쌍이 각각 셋다. 이러하다면 조화가 일에서 분화되었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도(河圖)』의 수는 일을 가지고 육(六)과 짝지우고, 『낙서(洛書)』의 수는 일을 가지고 구(九)와 대가 되게 하였다. 이 둘은 안팎의 짝을 이루는 글이요 조화의 근원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연(大衍)의 수는 중오(中五)에서 일어나고, 율려의 근본은 황종(黃鐘)에서 시작하니, 이들은 모두 조화의 묘법에 관계된다. 그럼에도 마치 일에서 근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일양(一陽)이 처음 동하는 것에서 천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한 번 구하여 처음 바뀔 때가 생성된 만물의 처음이 된다.’는 말은 과연 무슨 이치인가? 천지의 운행을 논하면서 사파(四破)에 귀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만물의 근본을 탐색하면서 오수(五殊)로 유추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디에서 근본하기에 이처럼 들쭉날쭉 다르단 말인가? 『장자』의 우언은 만 가지 소리를 구멍 하나로 설명하였고, 『노자』의 저서는 한 곳으로 모여드는 수레바퀴의 살대에서 모든 묘함을 비유하였다. 『노자』와 『장자』가 이단의 학문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조화의 근본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자막(子莫)이 일(一)을 고집하여 권도를 부리지 않은 것은 유교를 해치기에 알맞다. 그렇다면 우리 유가의 주일무적(主一無適) 역시 시행할 수 없는 것인가? 『중용』의 달도(達道)와 달덕(達德)을 행하는 방도는 하나이고, 『통서(通書)』의 정허(靜虛)·동직(動直)을 행하는 요령은 한 가지이다. 그렇다면 ‘조화를 일(一)에서 나눈다’는 의미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가? 요 임금과 순 임금이 서로 전수한 요결은 곧 ‘유정유일(惟精惟一)’이고, 공자와 증자가 서로 전수한 요결은 ‘오도일관(吾道一貫)’이다. 신지(莘摯)가 왕에게 권면할 때엔 일덕(一德)을 신신당부하였고, 주왕(周王)이 백성들에게 맹서할 때엔 일심(一心)을 절절하게 강조하였다. 이치는 하나이나 생각은 백 가지라는 일치백

려(一致百慮)는 『주역』 「계사전」에 실린 말이고, 현상은 만 가지로 다르나 근본은 하나라는 만수일본(萬殊一本)은 선유가 하신 말씀이다. 「태극도」를 완성하여 지극한 이치를 하나의 도면으로 밝혔고, 「정완(訂頑)」에 가르침을 남기시어 대본(大本)을 하나의 이치에서 밝혔다. 양휴(揚休) 선생은 일단(一團)에 온화한 기운을 모으고, 잠사 부자(蠶絲夫子)는 일원(一原)에서 우뚝한 공을 거두었다. 이는 모두 예로부터 학문을 하고 정치를 하는 대지(大旨)이다. 모두 '일(一)' 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조화의 묘(妙)에 또한 서로 발명하는 것이 있는가?24)

위는 1776년(정조 1) 증광시의 대거로 치러진 별시의 초시 일소에서 출제된 책문으로 일중(一中)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다. 비교적 긴 길이의 책문으로 약 11개의 소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문은 소옹의 시인 「관역음(觀易吟)」에 “하늘은 하나에서 조화가 나뉘고, 사람은 마음에서 경륜을 일으키네[天向一中分造化, 人於心上起經綸].”라고 한 곳에서 앞의 구절을 인용하며 시작되고 있다. 이 시의 제목에서 단서가 있듯이, 이 책문은 『주역』의 이념 속에서 일(一)과 중(中)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연속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소옹의 시에 이어 복희씨가 괘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계사전(하)」의

24) 尹愔, 『無名子集』 문고 제8책, 「一中」. 〈問. 邵子曰天向一中分造化, 一者不過數之始, 而乃爲造化之所由分者何歟? 伏羲設卦, 萬化攸始, 而分畫陽爻陰爻, 天地定位, 萬物肇生, 而亦且兩對各立若是者, 安在乎造化之分於一乎? 河圖之數, 以一而耦六, 洛書之數, 以一而對九, 此實爲表裏之書造化之原, 而有此不同者何歟? 大衍之數, 起於中五, 律呂之本, 始於黃鍾, 是皆關於造化之妙, 而似若不本於一者何歟? 一陽初動, 可見天地之心者, 是果何義? 一索始交, 方爲生物之初者, 是果何理? 論天地之運, 而歸之四破者有之, 溯萬物之本, 而推之五殊者有之, 是果何所本, 而若是其參差不一歟? 南華寓言, 齊萬吹於一竅, 玄妙著書, 喻象妙於一輻, 是雖爲異端之學, 而亦有得於造化之本歟? 子莫之執一無權, 適足以病斯道, 則吾儒之主一無適, 亦不能有施爲歟? 中庸之達道達德, 所以行者一也, 通書之靜虛動直, 所爲要者一也, 則亦可見造化之分於一中歟? 勛華相授, 乃是惟精惟一, 孔曾相傳, 只是吾道一貫. 莘摯訓王, 申申於一德, 周王誓衆, 切切乎一心, 一致百慮, 易繫攸載, 萬殊一本, 先儒有說. 圖成太極, 闡至理於一團, 銘垂訂頑, 明大本於一理. 揚休先生搥和氣於一團, 蠶絲夫子收奇功於一原, 是皆終古爲學爲治之大旨, 而都不外於一字, 則其於造化之妙, 亦有相發者歟?) 책문의 해석은 이규필 역, 『무명자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을 참고하였다.

구절을 인용하고 있으며, 「하도」와 「낙서」, 「복괘(復卦)」와 「진괘(震卦)」의 괘사, 『장자』와 『노자』의 비유, 『맹자』, 『근사록』의 중(中)과 경(敬)의 개념, 『중용』의 방도와 주돈이의 저술인 『역통서해(易通書解)』의 요령, 『서경』과 『논어』 속 선현들이 전수한 요결, 『서경』의 「함유일덕(咸有一德)」과 「태서(泰誓)」 속 이윤(伊尹)과 무왕의 당부, 『주자어류』 속 정자와 주자의 말씀, 주돈이의 「태극도」와 장재(張載)의 좌우명, 양휴 선생과 잠사 부자로 표현한 정명도와 주희의 비유까지 책문의 대부분이 선유설을 인용(음영표시)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 밖에도 1818년 식년문과 초시(강원도)의 책제²⁵⁾ 또한 살펴보면, 『서경』·「요전」의 대지를 『대학』과 연관시켜 질문하며 시작부터 선유의 설을 인용[問. 先儒曰, 堯典爲大學之宗祖, 其所謂宗祖之旨, 可詳言歟?]하고 있다. 이는 송대 학자인 진덕수(陳德秀, 1178-1235)의 설로, 그는 주희의 수제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어지는 책문의 뒷부분에서도 송대 학자 옹화(熊禾, 1253-1312)의 설[先儒或云宜作五截看]과 원대 학자 허형(許衡, 1209-1281)의 설[或云當作四件事]을 인용하고 있다. 옹화는 주희의 문인 보광(輔廣)에게 수학하였으며, 허형은 요설재(姚雪齋)에게서 주자학을 배운 주자학자이다.

이처럼 핵심 경문을 비롯한 사서오경의 관련 경문, 정·주자의 설을 기본으로 주자학자들의 주석을 마구 인용하는 방식은 조선 후기의 책문에서 주로 보여지는 경향이다. 물론 전기의 책문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지긴 하나, 후대로 갈수록 인용의 범주가 확장되고 책문 속 선유설 인용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²⁶⁾을 볼 수 있다. 이는 소과 생원시의 과목인 사서

25) 『臨軒功令』 31권, 〈問. 先儒曰, 堯典爲大學之宗祖, 其所謂宗祖之旨, 可詳言歟? 堯典一篇以欽字爲大綱領, 大學一書以誠意爲人鬼關, 果皆有授受之旨歟? ...중략... 堯典則先儒或云宜作五截看, 或云當作四件事, 大學則分爲三綱領八條目, 其於章句條目之間, 一皆符合而無差謬歟? ...하략...〉

의(四書疑)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패턴이다. 다만, 사서의 과목의 경우 조선 후기로 가면 경문의 구절보다 선유의 설들이 더욱 많이 인용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경책의 경우는 여전히 경문의 구절이 더욱 많이 인용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사서의 과목의 시제는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여러 모로 경책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초시 및 복시에서 고시된 집책에서 더욱 뚜렷이 보이는 양상이었다. 즉 두 과목간 시험을 출제하는 대상[시관], 시험의 요지[경문의 내용], 시험의 목적[경문 내용 확인]이 일치하는 데에서 이러한 결과가 기인한 것으로, 시험의 단계[초시와 복시, 소과와 문과] 및 종류[생원시, 증광시, 별시] 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나가며

이상에서 경문의 뜻을 밝히는 것을 요지로 하는 경책의 책제를 살펴보고, 출제 양상 및 내용 서술 요소 등을 의·의·시·부 등의 소과 시제들과 비교해 보았다. 책문의 주제가 워낙 다양했던 까닭에 경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과 시제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전체 책문 가운데서는 결코 낮지 않은 비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책을 아울러 출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출제가 집중된 경서 및 편장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았다.

경책을 출제 주체 및 고시 단계에 따라 집책과 전책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두 책제 간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었다. 집책의

26) 윤선영(2019), 111-112면 참조.

경우는 생원시의 사서의 과목과 길이 상의 차이점이 있을 뿐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모두 비슷하여, 사서의 시제가 곧 책문의 축소판인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사서의 과목을 대책으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 또한 수궁이 가는 바이다. 전책에서는 경문의 의미를 강구하면서도 결국엔 왕도정치를 중심으로 하여 태평 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경세론으로 이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선발을 목적으로 경문의 이해도를 시험함이 주목적인 집책과 방향성을 달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한계로 인해 미처 다 살펴보지 못한 자료들이 있다. 이는 주로 과문선집 등의 수험서와, 문집 및 방목 등의 시제와 일치하지 않는 시제를 기록하고 있는 시권 자료 등이다. 여기에 수록된 책제들을 보완하고 정리한다면, 책제의 다양한 출제 양상과 경책의 실제 등에 대해서도 더욱 근접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책문의 답안인 대책문(對策文) 또한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경책에 속하는 대책문의 문장 구조는 생원시의 답안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전책에서 주로 출제된 시무책과는 어떻게 다른지, 특히나 대책의 주요 구성 요소인 설폐(設弊), 구폐(救弊) 등의 조항은 어떻게 대체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후일의 연구로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京外題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9943).
- 金安國, 『慕齋集』, 한국문집총간 20,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1.
- 尹愔, 『無名子集』, 한국문집총간 256,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5.
- 尹祥, 『別洞集』,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4072).
- 『臨軒功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소장기호: 奎11437), 2005.
- 正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2~267,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5.
- 김광년, 「朝鮮 科試의 箴銘頌 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45집, 2022.
- 박선이, 『肅宗-正祖代 科策과 科表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 박재경, 『조선시대 책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윤선영, 『조선시대 과시의 사서의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 「조선시대 과거 생원시의 한 과목인 오경의 시제 소고」, 『남명학연구』 67집, 2020.
- , 「사서오경의 經文을 주제로 한 科詩 및 科賦 시제 소고」, 『동방한문학』 96집, 2023.
-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A Study on the Chackmun(策問) on the Theme of the Meaning of Gyeongmun(經文)

Yoon, Sun-young *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is in earnest by paying attention to the so-called Gyeongchack(經策), which has the theme of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Gyeongmun'. The scriptures of the 四 Book 五 were the main subjects of the past examination tense, along with historical figures, ancient poems, and famous writers. I studied the tense questions of the raw poetry subject, which directly tested the scriptures, and the tense questions of the poetry and department derived from the scriptures. This paper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transcriptive tense of major subjects(大科), led by countermeasures, as part of research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this.

Because the subjects of the book were so diverse, the proportion of Gyeongmun was lower than that of Sosugwa Tense, but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ever lower than that of the entire book. In addition, since the method of presenting various books was mainly based on the method of presenting various books, the scriptures and compilations in which the questions were concentrated were not clearly visible.

When the policy was divided into a collection and a complete policy according to the subject of the examination and the stage of the examination,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the two book systems. In the case of books,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length from the subject of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 E-mail: bacaaltto@korea.ac.kr

librarians in Saengwon-si, but it was similar in both formal and content, giving the impression that the librarian's tense was a miniature version of the book. Due to these similarities, librarians' subjects are often mistaken for countermeasures, which is also acceptable. In the previous book, the purpose of testing the understanding of Gyeongmun for the purpose of selecting officials was different from the main policy in that the meaning of Gyeongmun was sought, but in the end, it was expanded to the theory of Gyeongseong to achieve peace centered on royal politics.

Key Words

Civil service examination(科擧), examination question(試題), Daechak(對策), Chackmun(策問), scripture of Chinese classics(經文), Four books and Five classics(四書五經)

논문접수일: 2023. 11. 21, 심사완료일: 2023. 12. 16, 게재확정일: 2023. 12. 31.

『論語』의 치유적 독법 시론

—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를 중심으로

김승룡*

-
1. 經學은 지금 왜 하는가
 2. 經書와 治癒的 讀法
 3.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에 대한 試讀
 - 3-1. 集釋
 - 3-2. 辨字
 4. 공자의 마음을 읽다: 서운함조차 허용할 수 없었던 여림
 5. 맺음말을 대신하여
-

■ 국문요약

이 논문은 경서 속의 언술을 치유적으로 읽어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술 속의 감정을 읽고, 그 이면에 놓인 상처와 치유의 방식을 추적하여, 저자의 인간적 면모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치유적 독법으로 부른다. 이를 위해 『논어』의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구절을 살펴본다. 그 방법으로 集釋과 辨字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慍’이 가진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慍’은 화를 내다는 뜻이 아니었다. 불만스러움은 있어도 겉으로 표현해 내지 못한 채 안으로 담아 두는 것이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완성도가 높은 인간으로서 성숙해 나갔을 것이다. 『논어』는 바로 그런 자기치유의 과정을 보여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E-mail: laohu99@hanmail.net

주는 텍스트였다.

주제어 : 논어, 공자, 경학, 치유적 독법, 인간적 성숙

1. 經學은 지금 왜 하는가

이 글은 논어 전체를 읽어내는 독법을 추구하지 않는다. 어쩌면 특정한 구절에 한정된 논의에 그칠지도 모른다. 이처럼 많은 괄호를 쳐야 하는 미진한 논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혹 경서를 읽으면서, 경서 속의 글자를 대하는 우리가 너무 무겁고 진지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를 하곤 했다. 특히 경서는 이른바 성인의 언술이고, 언술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석을 활용하되 주석이 가진 철학적 맥락과 기저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느새 주석이 지닌 철학적 프레임 안에서 遊泳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많았다. 경서를 공부하는 동안, 경서를 자기방식으로 소화하기 이전에 경전의 주석을 자기의 것인양 받아들이게 되고, 나아가 주석의 입장에서 경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던 경우도 많지 않았던가 반성하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주석에 의존할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짙었다고 생각한다.

경학은 인간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이해하는 통로로서 경서가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의 어떤 지적 혹은 정서적 측면이 보편성을 띤 텍스트로 顯現되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거칠게 대별하자면 정서적 측면이 詩로, 서사적 측면이 書로, 원리적 측면이 易으로, 感而動하는 측면이 樂으로 나온 것이리라. 그래서 필자는 인간으로서의 경학자를 염두에 두며, 그의 인간학적 이해가 반추되어 나온 것이 경학담론이요, 그

해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아가 경학자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되 경서의 주인공(대개는 경전의 언술자들)을 다시 「인간」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읽어보려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도와 다르게 경서 속에 吐納되는 기운을 읽지 못한 채 독서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천천히 음미하기 이전에 의미를 해석해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쩌면 거대한 경학구조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 그 원인일 수도 있으리라. 해서 필자는 이 글에서 아주 미세한 지점을 시야에 두고 접근하고자 했다.

물론 그간 경서를 공부해 왔던 學人들은 다들 그렇게 해왔을 것이다. 이는 순전히 필자의 경험에 기인하는 각성일 뿐이다. 여하간 경서를 읽으면서 그 말을 해냈던 지식인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나보다 앞서 제출된 前輩들의 논의에 기대고 그것을 프레임으로 삼은 뒤, 그 프레임 안으로 그(經說의 주인)를 바라보고 있었음에 자성한다. 그래서 약간 우회적이지만, 그리고 뜬금없지만 치유적 독법을 소환하고자 한다.

2. 經書와 治癒的 讀法

누군가가 세상에 대하여 경전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말을 하고 글을 쓰며, 훗날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경전화는 훗날 확정되는 것이지, 당시의 언명들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공적이거나 사적인 대화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가끔 이를 망각하곤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經은 자기내면을 응시하는 작업을 동반한다. 사실 經이 활용되는 측면은 다양할 수 있다. 각각의 국면에 따라서,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經을 일상의 摘要를 위해 일기

로 적는 경우도 있고, 선전을 위해 써 붙이는 경우도 있으며, 입신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교류를 위한 사교의 수단으로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 나의 관점은 이런 경우들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범위까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비좁은 논의에 그치거나 아주 평범한 언급에 그칠 위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의도를 갖고 지어진 經說들조차 當者が 자신의 내면에 卽하여 지어진 것들이요, 주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언급들은 그 농도나 강도에 있어서 질적 수준이 다를 뿐일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필자는 '내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다못해 무미건조해 보이는 경언들조차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옛분들은 不平한 상황에서 鳴言한다고 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도 눈을 두고 있다. 마음이 평정을 이루지 못한 순간이 '不平'이라면, 이를 '상처'라고 부를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자책이 깊어 내상을 입은 경우도 있으리라. 여하간 이런 불편하고 부족하고 불리하고 불만스러운 상황을 '불평'이든 '상처'든 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상처를 다시 平靜의 상태로 되돌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흔히 '내적 自整'이라고 불리는데, 이 내적 자정을 이루는 순간을 '내적 치유'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바로 이 부분을 제시한다. 그 내적 자정으로 이르는 과정은 상처를 포용하여 회색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채 육신마저 병든 채 끝내 자멸하거나 自棄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는 經說을 읽으면서, 경언의 주인공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잠복되어 있는 상처를 自整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그 단서는 결국

겉으로 드러난 감정의 결이다. 감정은 논리를 감싸고 있거나 아니면 논리 속에 들어있기도 하다. 이 탐색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이면(경언의 속살)에 놓인 상처와 그것을 치유해가는 그만의 독자적 방정식을 볼 수 있고, 나아가 경언의 주인공이 상처를 해소하거나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는 결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 추적과정이 경서를 독해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반추할 기회를 확보하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안내하는 지침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독법을 잠정적으로나마 '치유적 독법'으로 부른다. 주석에 의거한 경언의 학문적 이해와 그것의 경학사적 의미를 묻는 논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경서를 둘러싸고 켜켜이 쌓여있는 해석들, 이미 先取되어 내 안에 地層化된 前見을 넘어서야 한다. 이 지점에서 集釋學이 요구된다. 또한 字學(辨字)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전자가 하나의 문장에 대한 해석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일임에 비해, 후자는 글자 하나하나에 積澱된 문화적 층차를 읽는 일이고, 字의 原義(시대적으로)를 추적해 내는 과정이다. 이 순간 우리는 원전에 들어있는 감정을 찬찬히 접근하고 원전의 결을 최대한 존중하며, '전견에 묻든 나'의 개입을 적절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국 '나의 눈과 머리'로 읽어내고 있으니, 끝내 나의 개입을 피할 수 없는 일이런가. 해석학이 피해나갈 수 없는 도그마적인 운명이 아닐런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치유적 독법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 무엇보다 내면을 응시하고 읽어낼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상처(좌절)로 요약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 내적 대응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순자의 能參을 적극 옹호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맹자』를 펼치자마자 등장하는 양혜왕은, 맹자의 仁義로운 정치

학을 위한 희생양으로 등장할 뿐이지만, 그의 치세에 수없이 축소되고 쇠약해지는 국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라는 것과 맹자를 불러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절박함을 이해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한때 패주를 자처하던 인물이 천리 밖에서 온 지식인에게 무참히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는 상황들을 너그러이 봐줄 수는 없는 것일까? 필자는 양혜왕이 안쓰럽고 이해되기도 한다. 여하간, 우리는 이 독법을 통해 경언의 주인을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고전 속 인간 이해를 넘어, 현대 學人들도 자신의 삶과 감정과 내면을 응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3.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에 대한 試讀

익히 알려진 『논어』의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라는 구절을 읽기 위하여 두 가지 방향, 즉 집석과 변자를 고민해 보도록 하자. 집석은 시대순으로 주해를 늘어놓으면서 경문의 해석들을 평등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 주해 사이의 우열을 논하지 않는 가운데, 주해자들 사이의 의견 가운데 특이한 점을 포착하고 그것의 장점을 살려서 읽는 것, 이것이 집석의 장점이다. 우선 집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3-1. 집석

㉠ 魏 何晏: 慍, 怒也. 凡人有所不知, 君子不怒. (論語注疏)

㉡ 梁 皇侃: 人謂凡人也. 慍, 怒也. 君子有德之稱也. 此有二釋, 一言古之學者爲己, 已得先王之道, 含章內映, 而他人不見知而我不怒, 此是君

子之德也。有德已爲所可貴，又不怒人之不知，故曰亦也。又一通云，君子易事，不求備於一人。故爲教誨之道，若人有鈍根不能知解者，君子恕之而不愠怒之也。爲君子者，亦然也。(論語集解義疏)

㊤ 宋 朱熹：愠，含怒意。君子，成德之名。尹氏曰，學在已知，不知在人，何愠之有。(論語集註) ○人不知而不愠，自是不相干涉。己爲學之初，便是不要人知，至此而後真能不要人知爾。若煅煉未能得十分成熟，心固有時被其所動，及到此方真能人不我知而不愠也。又曰，不愠不是大怒，心中略有不平之意，便是愠。此非得之深，養之厚者，不能如此。(朱子語類)

㊥ 宋 許謙：愠只是悶，猶言不樂。如南風詩中愠字只是熱之悶人。(讀論語叢說)

㊦ 明 王衡：羅近溪謂，愈學而愈悅，如何有厭。愈教而愈樂，如何有倦。故不愠人之不己知者，正以其不厭不倦處。(論語駁異)

㊧ 清 焦循：注言人有所不知，則是人自不知，非不知己也。有所不知，則亦有所知。我所知而人不知，因而愠之，矜也。人所知而我不知，又因而愠之，忌也。君子不矜則不忌，可知其心休休，¹⁾ 所以爲君子也。(論語補疏)

㊨ 清 阮元：人不知者，世之天子諸侯皆不知孔子而道不行也。不愠者，不患無位也。學在孔子，位在天命。天命既無位，則世人必不知矣。此何愠之有乎。(研經室集)

㊩ 楊伯峻：人家不了解我，我却不怨恨，不也是君子嗎。(論語譯注)

위 논의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이렇다. 앞선 주해

1) 『書』「秦誓」：“其心休休焉，其如有容。”孫星衍이 『尚書今古文注疏』에서 인용한 鄭康成의 주석에는 “休休，寬容也.”라고 했고, 孫星衍은 “鄭注見大學釋文。以休休爲寬容貌者，何氏注公羊云，‘休休，美大貌。’大即寬容之義.”라고 했다.

자들은 대개 ‘慍’을 ‘怒’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 하안, 황간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주희에 오면 ‘含怒意’라고 하여怒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안으로 머금어져 있음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주자어류』에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 주희는 마음 속에 대략 지니고 있는 불평스러운 기분 혹은 감정으로 해석했다.(心中略有不平之意, 便是慍)

이후로 허겸은 번민으로 해석하고, 초순도 너그럽거나 관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해석했다. 약간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慍을 두고 화를 (밖으로) 내다는 것과는 결을 달리하여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근대의 양백준은 원망하다는 의미로 풀어서 慍이 지닌 내향성을 놓친 듯한 느낌이다. 해석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정돈되어 하나의 의미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울대듯 요동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집석의 묘미는 이러하다. 이런 의미의 평등한 변주 속에서 우리는 글자의 외연과 내포를 찾아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번자를 통해서 ‘慍’의 의미를 더 추적해 보도록 하자.

3-2. 辨字: 慍, 怒, 怨

‘慍’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한자로 「怒」와 「怨」을 거론하고자 한다. 이들은 서로 혼용되기도 하고,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古辭辨』에 나오는 용례를 중심으로 의미의 차이를 해명해 보도록 한다. 『고사변』은 일종의 동의어를 모아서 先秦의 용례에 의거하여 의미를 구분하고 있는 책이다. 『논어』가 이 즈음에 생산된 것을 생각하면, 이 책의 용례는 『논어』 속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암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전적으로 의지해선 곤란할 것이다. 사전이 지닌 한계를 고스란히 받아안아야 하겠기 때문이

다. 허나 지금 辨字의 통로로선 유용하기에 이 글에서는 활용하도록 한다. 이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이 그 의미들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의 주요한 목표는 ‘慍’의 의미이다. ‘慍’은 기운이 돌치는 것이다. 그러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현대어로 심리적으로 불만스럽거나 마음이 번뇌하다는 뜻이다. 『國語』 「楚語」에 “저 백성의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마치 큰 강물을 막고 있는 것과 같다. 독이 무너지면 침범하는 것이 반드시 거대하리라(夫民心之慍也, 若防大川焉. 潰而所犯必大矣)”라고 했다. ‘民心之慍’은 백성의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이다.

이른바 從暵字인 蘊, 醞 등은 모두 안으로 품다, 갈무리하다는 뜻이다. 특히 慍은 隱습한 분노이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그것을 인내하며 發出하지는 않는 것이다. 혹여 드러나더라도 고작 뺨이 울그락불그락할 뿐이요 손짓이나 말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사마천의 『報任少卿書』에 “시작한 일을 아직 이루기도 전에 때마침 이런 화란을 만나서 그 이루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극형에 처해짐에도 서운해하는 기색은 없었다(草創未就, 會遭此禍, 惜其不成, 是以就極刑而無慍色)”라고 했다. ‘無慍色’은 결코 불만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怨氣가 隱藏되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논어』 「衛靈公」에 “자로가 서운해하면서 말하기를, 군자도 또한 궁색하게 되는군요?(子路慍見, 曰, 君子亦有窮乎)”라고 했는데, ‘慍見’은 불만이 말투에 배어나오는 것이다.

이에 비해 ‘怒’는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점은 ‘忿’과 같다. 『손자』 「謀攻」에 “장수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개미처럼 성벽을 올랐다(將不勝其忿而蟻附之)”라고 했는데, 장수는 거센 분노를 안고서 병사들에게 성벽을 타고 올라가 공격하도록 했다는 뜻이다. 『사기』 「廉頗藺相如列傳」에 “인상여는 옥벽을 지니고 문득 섰다가 기둥에 기대었는데 성난 머리카락이 관을 찌를 정도였다(相如因持璧, 却立, 倚柱, 怒髮上衝

冠)”라고 하여, 머리카락이 모자를 일떠세웠으니 怒氣가 盛大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회남자』 「天文」에 “화가 나서 부주산을 치받자 천주가 부러지고 지유가 끊어졌다(怒而觸不周之山, 天柱折, 地維絕)”라고 했으니, ‘怒’하여 산을 치받은 것이다. 그 격렬한 세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忿’과 ‘怒’는 약간 차이도 있다. 忿은 화기가 아주 크게 일거나 감정이 요동치되 이성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을 뜻한다. 『예기』 「대학」에 “몸이 성나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한다(身有忿懣則不得其正)”라고 했다. 怒는 상대적으로 화기가 盛하거나 심정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는 점만을 뜻한다. 그리하여 주로 怒는 벼락처럼 크게 내려치는 기세를 뜻하거나 매서운 형세를 표현한다. 이를테면 怒馬는 건장한 말을, 怒潮는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뜻하는 것 등이다.

한편, ‘恨’과 ‘憾’이 모두 자신에 대한 불만을 뜻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怨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표하고 나무라는 것이다. 『순자』 「天論」에 “수시는 치세와 함께 하고 재앙은 치세와 달리 한다. 하늘을 원망할 수 없으니 그 도가 그러한 것이다(受時與治世同, 而殃禍與治世異, 不可以怨天, 其道然也)”라 했고, 『사기』 「屈原列傳」에 “국풍은 미색을 좋아하나 거기에 빠지지 않으며, 소아는 원망하고 비방하되 어지럽히지 않는다(國風好色而不淫, 小雅怨誹而不亂)”라고 했다. 怨은 모두 埋怨(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토로하는 것), 抱怨(타하는 마음을 안고 있는 것), 責難(힐난하며 나무라는 것)의 뜻이다. 怨은 경미한 원망은 물론이요, 일반적으로는 원수처럼 원한을 맺는 것(仇恨)까지 뜻한다. 『맹자』 「양혜왕상」의 “군대를 일으켜 신하를 위태롭게 하여 제후들과 원한을 맺는다(興甲兵, 危士臣, 構怨於諸侯)”, 『사기』 「趙世家」의 “원한의 근거가 되지 말고 재앙의 계단이 되지 말라(毋爲怨府, 毋爲禍階)”가 그것이다. 怨은 원한을 맺는 것으로 많이 쓰였던 것이다. 정리

하자면 怨은 원수 보듯 원망하는 것이요, 恨은 서운해하는 遺憾으로서, 그 뜻을 대략적으로 나눌 수 있다.

4. 공자의 마음을 읽다: 서운함조차 허용할 수 없었던 여림

그럼 위의 집석과 변자에 기대어 공자의 不愠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그 안에 들어있는 공자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선 치유적 독법이 經書 속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음을 떠올리면서 읽어가도록 한다.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논어』 「學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의 말이다. 사람들은 나 아닌 존재에 대하여 그리 인정하길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식자연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오죽했으면 曹 丕는 ‘文人相輕’이라고 했을까? 글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다. 공자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다. 자신의 조국인 노나라에서도 그러했다. 결국 노나라의 귀족들의 견제로 인해 나라를 떠나서 떠돌게 되었다. 무려 최측근 제자들 70여 명을 거느린 채 열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사상과 학술을 알리고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노력은 그다지 성과를 보지 못했다. 아무도 그의 생각을 자신의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을 말했지만, 군주들은 병법의 운용을 통해 자신의 나라가 강성해지기를 원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공자는 허탈했고 좌

절했다. 간혹 군주들은 자신의 제자를 등용하려고 했다. 그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공자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으리라. 이때 공자가 취한 마음의 전략은 ‘不懼’이었다. 「성내지 않는 것」,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君子’를 위한 정신적 전제로 읽곤 한다. ‘군자’는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적 지식인이요,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지식인의 모델이었다. 지식인은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추고 세상의 변화와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변하는 사람으로서, 군자가 될 수도 있고 소인이 될 수도 있었다. 이 가운데 군자적 지식인이 되기 위한 전제로 ‘人不知而不懼’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을 ‘人不知’의 상황에 대한 공자의 마음치유로 이해하고자 한다. 지식인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비전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간혹 모욕을 느낄 정도로 자존감은 추락하기도 한다. 본래 지식인은 현실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법, 그래서 혹자는 지식인의 얼굴을 창백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공자는 그런 아픈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누구나 ‘怒’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밖으로 성내는 커녕 안으로 성난 마음도 품지 않았다. 그것이 ‘不懼’이다. 이 마음의 전략은 「학이」의 말미에 재차 반복된다.

不患人之不知，患不知人也。『논어』 「학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아파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알려주지 않음을 걱정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려주지 않음에 대하여 굳이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

다. 患은 외재의 사물로 인하여 내가 걱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患은 반드시 빈어를 필요로 한다. 상대적으로 憂는 속마음의 정서상태를 뜻하기에 굳이 빈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²⁾ 나의 밖의 것으로 인해 빚어진 마음의 걱정, 그런데 그것이 병증을 이루게 되었다.

君子病無能焉 不患人之不己知也 『논어』 「위령공」

(군자는 무능함을 고질로 여길 것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아파하지 마라)

공자는 患을 病과 같은 반열에 놓고 언급하고 있다. 病은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로서 만성적인 병증을 뜻하는 바, 특히 기아나 피로 등의 누적으로 인하여 견디기 어렵고, 너무 쇠약해져 기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쓰이는 疾은 통증이 더욱 심한 것으로 外傷의 성격이 강하다. 즉 심리적으로, 병은 우려하고 걱정하며 고뇌하며 그것이 고질화된 것을 뜻한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안으로 서운한 마음을 담고있는 慍, 그리고 무언가 나의 밖에서 자극해오는 것들에 대하여 부담과 걱정을 품는 患, 그리고 이제 그것이 누적되고 고질이 되어서 더욱 견뎌내기 어려워진 病, 이렇게 의미의 맥락을 추론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외부에 대한 마음쓸림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간단하다. 안으로 다독이는 것! 가벼운 불만조차 마음 한자락에 쌓아두지 말라! 不慍의 전략은 지극히 근원적인 셈이다.

공자는 ‘人不知’를 아파하는 것이 이미 병적 증세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던 것이다. ‘知’와 ‘不知’는 사람

2) 이를테면 『논어』 「子罕」의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가 그러하다.

에게 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이다. 그는 심플하지만 단호한 처방전을 내렸던 것이다. 患이나 病으로 되기 이전에 서운한 마음조차 마음에 허용하지 말 것이요, 나아가 그토록 여리고 소심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지내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군자(다운 지식인)가 되리라! 공자의 마음이다.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러하다. 자신을 무시한다 하여 저질러지는 범죄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전 속의 마음들은 지금-이곳 사람의 마음을 위무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며, 동조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할 수 있다.

5. 맺음말을 대신하여

고전은 그것이 지금의 현실에도 適合할 때, 適用될 때, 適中할 때 허공을 떠도는 귀신의 처지를 벗어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곧 幽界에서 明界로, 전설에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옛것이고 이름난 저자의 집필이라는 이유로, 혹은 여전히 찬양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의 고전」으로 불릴 수는 없다. 고전의 평가는 역사적으로 상대적이었다. 고전목록이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시 작성되고 읽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이 고전으로부터 치유의 자산을 추출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불편하고 아픈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댈 곳은 예전의 경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경험의 축적이 고스란히 남겨지고 積澱된 결과가 바로 고전이다. 그래서 고전은 상대적이다. 오랫동안 고전의 위치에 있었던 텍스트들은 그만큼 長久하고 지속적인 해결아

이디어를 제공해왔다.

목자는 聖人이란 천하의 난리를 다스리는 것을 일삼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의사처럼 천하가 어지러워진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도덕적이든 실용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그에 대하여 제한을 두진 않았다. 필자는 이를 원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다. 古典이란 세상 사람들이 부딪힌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텍스트로서, 비유하자면 사람의 병증을 치유하는 처방과 같다. 그래서 고전으로부터 지금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위로를 구할 자료를 끌어내는 것은 지금 허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논어』를 두고 치유적 독법을 운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적 효능에 대한 첨언 하나는 덧붙인다. 우리는 가끔 경전의 연구와 경학을 하는 학인의 삶 자체가 불일치하거나 간극이 있음을 확인하곤 한다. 논문은 친자연적인데 삶은 친문명적인 경우들, 글은 친여성적인데 삶은 駭여성인 경우들, 글은 호탕한데 삶은 치졸한 경우들, 학술적으로 진보를 말하면서 삶은 보수적인 경우들, 글은 동아시아를 이야기하되 삶은 민족 우선의 가리마에 덧씌워진 경우들이 그러하다. 필자 역시 그러한 엇갈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 필자가 성찰하기에, 이는 경서를 읽되 경언의 주인과 경언을 별개로 이해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즉 치유적 독법은 경서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후 지금 학인으로서의 삶과 글이 일치되도록 요구하는 현대적 효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소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³⁾

3) 제4장과 제5장의 논의는 필자의 「고전 속 아픔과 나의 아픔-고전과 치유의 접속」(『시민의 인성』 2, 당신의 서재, 2019)에 근거하여 집필되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고전을 통한 마음 치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논어』 『목자』 『장자』 등에서 치유의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목을 추려내고 해석을 가한 뒤, 이를 고전치유학으로 명명

〈참고문헌〉

『論語』

何晏, 『論語注疏』

皇侃, 『論語集解義疏』

朱熹, 『論語集註』

朱熹, 『朱子語類』

許謙, 『讀論語叢說』

王衡, 『論語駁異』

焦循, 『論語補疏』

阮元, 『研經室集』

楊伯峻, 『論語譯注』

王鳳陽, 『古辭辨』, 길림문사출판사, 1993.

김종기 외, 『시민의 인성』2, 당신의 서재, 2019.

한 바 있다. 사실 경학을 비롯한 고전학을 통하여 치유적 독법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 가운데 분고는 『논어』의 치유적 독법이 가능하였는지를 경학의 연구 방법론(주로 訓詁)을 통해 검증하고 학문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하여 집필된 것이다. 차후 심사위원들의 의견처럼, 논리적 설득력을 강화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논지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Therapeutic reading poetry of 『論語』:
Focusing on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Kim, Seung Ry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d the expressions in the classics in a therapeutic way. By reading the emotions in the speech and tracing the wounds and healing methods behind them, we seek to confirm the author's human side. This is called therapeutic reading. For this purpose, let's look at the phrase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In that way, 集釋 and 辨字 were used. As a result, we were able to examine the meaning of '愠'. '愠' did not mean to be angry. Although there was dissatisfaction, it was kept inside rather than expressed outwardly. Confucius was a person who did not feel disappointed even if others did not acknowledge him. He would have matured into a more complete human being through the process of self-heal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was a text that showed the process of self-healing.

Key Words

Analects of Confucius, Confucius, Classical Classics, therapeutic reading, human maturity

논문접수일: 2023. 12. 12, 심사완료일: 2023. 12. 25, 게재확정일: 2023. 12. 31.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 Classical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s, Pusan National University / E-mail: laohu99@hanmail.net

〈공자의 말들: 몇 가지 새로운 읽기〉에 대한 토론*

이수정, 함영대**

이수정:

인사 - 잘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30수년) 학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토론자 역할이 얼마나 성가시고 신경 쓰이는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발표문을 아주 꼼꼼히 읽으시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주셔서 그 정의와 실력이 여실히 전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나이든 퇴계가 젊은 고봉에게 첫 편지를 받았을 때 이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그들처럼 이 우연한 만남이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영대:

재인사 - 이수정 교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자상하고 또 솔직하셔서 후학들에게 내용과 태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학술대회의 좋은

* 2023년 11월 11일 개최된 한국경학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발표문 「공자의 말들: 몇 가지 새로운 읽기」에 대하여 발표자(이수정)와 토론자(함영대)의 학술 토론을 수록한 것으로, 학술대회 현장에서 이루어진 토론에 더하여 대회 이후에 이루어진 논의도 반영하였음을 밝힘.

** 이수정: 창원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함영대: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부교수

토론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논제는 더욱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공부의 방법으로 좋은 시도라 생각되어 간략한 답변의 재 답변을 올립니다.

함영대:

이수정 교수님의 공자와 『논어』에 대한 탐색은 우리가 잘 아는 H.G. 크릴 교수의 『공자, 인간과 신화』만큼이나 공자와 논어에 대한 성찰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공자와 『논어』의 본의를 알기 위한 지적 탐험과 그 결과물로서의 깨우침이 느껴집니다. 다만 공자를 ‘성현’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은 여전히 그 관점이 냉정한 관찰대상으로서가 아닌 흠모 내지는 위인으로서 보고자 한 것이라는 느낌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동양 문화권에서 공자가 지닌 위상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논어』 해석의 문제는 충분히 公論을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석의 다양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싶은 구절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지적 여정을 따라가며 삼가 토론을 청합니다.

이수정:

인물과 언어를 포함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지지자...호지자...낙지자...”도 그 일례입니다. 예컨대 사과에 대해 우리는 냉정한 관찰대상으로 삼아 그 성분을 분석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그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읊을 수도 있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태도들은 각각 하나의 세계고 선택입니다. 내가 공자를 성현/위인으로서 흠모하고자 한 것은 말하자면 그런 선택을 한 것

입니다. 말하자면 공자의 언어들에 맛있게 먹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7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이 세상에 공자 같은 그런 사람-언어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 토담이 허물어진 퇴계의 도산서원에서 놀기도 하며 지낸 성장배경이 알게 모르게 작용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공자의 철학은 '냉정한 관찰대상'으로 삼는 그런 지적 접근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한 어떤 것이라고 나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함영대:

공자라는 인간에 대한 검토에서 우리는 연구대상을 항상 냉정한 관찰 대상으로만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생님의 성찰은 후학도 깊이 동감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존경의 대상으로 위인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위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흠이 되는 가라는 질문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연은 공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공자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스승에 대해 찬탄했습니다. 안연의 마음을 두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전의 본의를 탐색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학자의 숙명은 감정을 내리고 조금은 더 엄격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영대 질문 ①: '各於其黨'의 '黨'의 해석에 대해

[원문]子曰, 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 (『論語』「里仁」7章)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잘못은 부류에 따라 제각각이니, 그 사람의 과실을 보면 인(仁)한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이수정 교수님 견해] 사람의 잘못이란 각자 자기(말)의 정당함에 기댄다(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잘못을 보는 것, 이것이 곧 어짙을 아는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과연 “2,500년간 공자의 이 말을 이렇게 읽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자부하실 정도로 그 해석에 청의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黨’의 字義는 일반적으로는 ‘黨與’의 그것으로 이 구절은 통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류 선입견에 휩쓸려 정당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 所以然을 안다면 그것으로 인해 仁을 알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黨’의 자의를 ‘當’또는 ‘讜’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곧 자기 관점, 자기 정당화에 의해(선생님께서서는 독선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자기 관점, 자기 정당화 자체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자신의 관점과 정당화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게 되는데 그 원초가 문제가 있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나 우려합니다. 黨與의 문제와 자기 관점의 문제는 그 논의 층차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선입견으로 인한 사리분별의 미흡 문제는 공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기 판단력의 기초를 부정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수정 답변 ①:

좋은 지적이고 당연한 지적입니다. 예상했던 이의제기라 오히려 고맙기도 합니다. 이런 지적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동의합니다. 단, 공자가 말한 당黨이 내가 느낀 대로 당讜이 맞다면, 우리는 ‘인지과’라는 공자의 지적이 함교수님의 지적처럼 ‘자기 판단력의 기초’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어’ 즉 각자가/모두가 자기 말만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기반/준거로 삼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남을/타자를 고려하지 않고 따라서 그 남에 대한 사랑 즉 인이 멀어지게 된다는 그 부분을 즉 문제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관점/자기정당화/자기판단력의 기초는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내 말이 절대로 옳다’라는 각자의 고집/독선입니다. 따라서 저도 저의 이 말(해석)이 ‘절대로 옳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의 옳고 그름보다도 토론자와 발표자의 상호의가(인仁이) 백배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함영대:

경전해석에서 결과론적인 유사성이 그 문맥에서 해당 자의(字義)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에서 돌출하는 개성적인 접근을 시도할 경우, 해당 해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글자의 경전적 용례나 공자의 언어습관이 제시된다면 더욱 설득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영대 질문 ②: ‘仁’에 대한 공자의 설명에 대하여

공자는 問仁에 대해 樊遲에게는 ‘愛人’으로도 쉽게 설명해 주었지만 仲弓에게는 ‘己所不欲, 勿施於人’으로 좀 더 그 의미를 심층화했으며, 顏淵에게는 ‘克己復禮’라고 일러주고, 그 구체적인 조목을 묻는 안연에게 禮가 아니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매우 엄격한 仁의 실천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 제자들의 수준에 맞는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공자에게서 仁은 하나의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 최고의 수준은 거의 ‘公法’의 수준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구절에서의 仁은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공통의 가치에 가까워야 논리적 정합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편견에 대한 논의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이수정 답변 ②:

역시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 사랑과 ‘공법’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를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소위 공법을 포함하고 그것조차도 초월하는 인간관계의 원리 중의 원리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애인’이든 ‘기소불욕물시어인’이든 ‘극기복례위인’이든 기본적인/공통된 것은 ‘기己’와 ‘인人’의 대비이고 그 ‘인’을 위한 ‘기’의 통제이니 이런 게 공법이 아니면 뭐가 공법이겠습니까. 공자가 말한 사랑(愛人)은 당연히 이성 간의 연애가 아니라 자기(己, 소위 예고)에 대한 통제 그리고 타자(人)에 대한 근본적인 인정과 존중 그리고 고려와 배려이니 굳이 사랑과 공법을 구별하여 층위를 둘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함영대:

네, 이 부분은 좀 더 입장을 세워 토론할 필요를 느낍니다. 포괄적인 사랑과 공법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포괄적인 사랑은 좀 더 느슨한 형태의 권면하는 말이고, 엄격한 공법의 진행은 하면 안된다는 단호한 금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공자의 仁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층차를 구분하여 말씀주시는 것이 좀 더 공자의 본지를 전달하는 데 좀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함영대 질문 ③: ‘年四十而見惡焉’의 해석에 대해

[원문] 子曰. 年四十而見惡焉, 其終也已. (『論語』「陽貨」26章)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사십이 되어도 미움을 받는다면 거기서 끝난 것이다.”

[이수정 교수님 견해] “나이 사십이 되어서도 나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다 끝난 것이다.”

이 구절은 통상 ‘나이 사십이 되어도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를 두고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보인다’로 읽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근거는 다양한 정황의 다른 사례나 ‘최악은 나이와 상관 없기 때문에’ ‘사십이 특별히 그 기준이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쁜’이라는 뜻이다’는 것입니다. 다소 미진한 설명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공자의 이 말은 ‘四十’이라는 인간의 나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자는 자기 인생을 반추하는 자리에서四十과 관련하여 ‘不惑’을 이야기했고, (공자를 배우고 싶어 한 맹자가四十에 不動心을 말한 것에 비추어 공자의四十도 어느 정도는 부동심의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後生可畏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후생을 지목한 바 있는데 그는 바로 ‘四十五而無聞’인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에게四十은 사회적 발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위상을 어느 정도 구축해야 할 마흔의 나이에 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각성을 촉구하는 말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나쁘게 보인다’는 해석이 주는 모호함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식대상의 문제인지 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

니다. 만약 악을 행하다는 의미로 공자가 말하고자 했다면 ‘行惡’이라고 하면 될 일이지 굳이 ‘미움을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 ‘見惡’이라고 쓸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수정 답변 ③:

통상적 해석의 변경에 대해 ‘다소 미진한 설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만일 들어보시고 그 취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한마디 설명이라도 이미 충분할 수 있습니다. ‘40’이라는 나이와 관련해 ‘무문’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종야이’를 ‘그 인생이 어렵지 않겠느냐’로 해석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책에서 따로 논의한 바가 있으니 혹 기회가 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쁘게 보인다’는 해석이 주는 모호함, 특히 인식대상의 문제인지 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지적해 주셨는데, 날카로운 좋은 지적입니다. 나쁘게 보인다는 것은 당연히 양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호한 것은 불가피합니다. 인식대상이 객관적으로 진짜 나쁜지 어떤지 인식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객관적으로 진짜 옳은지 아닌지 원천적으로 양자 모두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향인개호지 하여... 개오지 하여...’라는 저 유명한 구절에서도 드러납니다. 공자 본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지만) 그저 ‘건전한 이성’ 혹은 소위 ‘공동감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게 ‘나쁘다’고 보이는 게 ‘견약’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공자는 복합적인 의미에서 ‘다 끝났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견약’이 드러난 ‘행약’이 아닌 것은 물론 말할 것

도 없습니다.

함영대: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見惡’이 정녕 “나쁘게 보인다”라고 해석되기 위해서는 경전이나 일반 문장에서 이렇게 해석된 사례가 있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見惡의 경우 “악을 보다, 미움을 받다.”는 해석으로서의 사례 외에 ‘나쁘게 보인다’는 사례로 해석된 전례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수정:

같은 한문이라도 선진시대의 언어와 송대 이후의 언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의 언어는 그 자신의 사상적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영대 질문 ④: ‘辭達而已矣’에 대한 해석과 경전해석의 방법론

[원문] 子曰, 辭達而已矣. (『論語』「衛靈公」40章)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뜻이 통하게 할 뿐이다.”

[이수정 교수님 견해] “핑계가 달통했을 뿐이구나.”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주자가 정리한 ‘辭, 取達意而止, 不以富麗爲工’이 정곡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판단은 주자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전대의 ‘凡事莫過於實, 辭達則足矣, 不煩文豔之辭.’의 의견을 계승한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 구절을 두고 辭가 ‘使臣專

對之辭'라는 보충주를 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대개 경학적 전통은 기존의 해석을 참고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적층적인 지적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의 의견은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시면서도 선택에 있어 얼마간은 임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명대의 철학자 탁오 이지도 자신의 경학저작 『四書評』에서 매우 직관적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 그것도 하나의 경학적 전통에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말을 두고 '평계가 달통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돌출적인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이어서 그 해석의 저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한 말씀을 더 청해 듣고자 합니다.

이수정 답변 ④:

주자나 전대의 의견이나 다산이나 기존의 해석을 참고하는 전통은 저도 당연히 압니다. 다만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별스럽게 튀려는 의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관련 책에서 다른 대부분의 장구는 기존의 해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해석에 대해 함교수님은 '다소 돌출적인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러실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도전적인 새 해석에 대해서는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석한 배경을 나름 설명하였으니 그 배경(특히 공자의 이 말이 일반적인 언어론이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자의 관심사와 공자의 관심사 사이의 괴리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달이이의'를 '평계가 달통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자학적 관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해석학적 관점에서 즉 현실을 바탕으로 읽은 고전해석(아, 그때 그게 지금 이거로구나, 혹은 아, 지금 이게 그때 그거로구나,

하는 것, 가다머의 이른바 지평융합(Horizontverschmelzung)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대:

학문적 성숙이 이루어진 중후한 학자의 개성적인 의견의 제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옹당 새로운 지평의 확대를 위해 개성적인 의견은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경학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지적 작업이 될 것입니다. 단지 굳이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이 구절이 너무도 유명하고, 또 후래에 많은 해석이 적층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의견을 덧붙였다면 종래의 견해와 변별되면서도 어느 정도는 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주장이 좀 더 효과적인 의견제시가 아닐까 하여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석자 개인의 성찰에 의한 의견의 제시 역시 경전 주석의 하나의 전통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옹당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영대 질문 ⑤: ‘道聽而塗說’에 대하여

[원문] 子曰, 道聽而塗說, 德之棄也. (『論語』「陽貨」14章)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덕(德)을 버리는 것이다.”

[이수정 교수님 견해] “도를 듣고서 덧칠해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

저는 고전학의 탐구자들은 다양한 전공을 지적 탐색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것이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사고의 경로를 제공하여 고전해석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색의 방법론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상의 논리 전개는 어느 정도 타당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하신 ‘道聽塗說’은 이미 하나의 숙어가 된 것으로 여기서 道와 塗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모두 ‘길(일반적인 의미의 도로)’입니다. 『논어집해』에서 “聞之于道路，則傳而說之.”라고 이해한 것이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를 ‘道’와 ‘塗’에 대한 字義에서 新義를 개척한 것은 저로서는 다소 과도하게 생각됩니다. 충분히 자기화하지 못하고 듣는 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道’의 ‘塗說’에 대한 경계로 전환되는 것은 전래의 의미를 대체로 수긍하는 저로서는 전혀 생경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도’를 덧칠의 의미로 이해하려면 최소한의 그러한 어휘의 쓰임이 제시된 용례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답변 ⑤:

‘道聽塗說’은 이미 하나의 숙어가 된 것으로 여기서 道와 塗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모두 ‘길(일반적인 의미의 도로)’입니다. 『논어집해』에서 “聞之于道路，則傳而說之.”라고 이해한 것이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새 해석이 생경하게 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숙어화된 의미에 대해 의문을 느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글자도 애당초 그게 아니거니와 그 문장 자체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심각한 오독이라고 봅니다. 애당초 누군가에 의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칠 도塗가 길 도途인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게, 이게 과연 문장으로서 성립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공자식 어법인가. 일단은 글자 그 자체로부터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저는 마치 저 자신이 공자의 환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이른바 ‘해석학적 빙의’) 문제 그

자체를 곱씹어 봅니다. 저도 명색이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철학교수를 지냈으니 영 바보는 아닐진대, 부디 저를 좀 납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대:

오랜 전통을 지닌 숙어라 할지라도 그 근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자의를 제출하여 그 의미를 일신시키는 것은 ‘鷄鳴狗盜’나 ‘尾生之信’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된 사례에서 보듯 고전의 해석에서는 그다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道聽塗說’과 같은 숙어는 너무도 익숙한 것이고, 대체로 그 의미에 동의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구절에 비해 논란은 거의 없었던 곳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면 그 근거의 제시가 좀 더 면밀하게 논증되어야 일반적인 독자들도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대:

이수정 교수님의 새로운 해석에 동감하는 의견을 많이 제출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새로운 의견은 꾸준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음에도 저 역시 이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지닌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새롭게 경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수정 교수님의 발표에 다시금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보수적인 관점’이든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든 공통된 것은 공자에 대한 관심 내지 애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자체가 공자가 그만한 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사소한 어구의 해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과 말이고 그의 삶일 것입니다. 그 방향 즉 제

대로 된 인간과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정正 혹은 역易이라는 글자로 그것은 압축됩니다. 2500년 아득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공자가 아직 여전히 살아 있어 이 자리에 임재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서양철학을 전공한 문외한임에도 이렇게 고명한 학회에서 영광스러운 발표 기회를 주신 학회 선생님들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좋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신 함영대 교수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함영대:

이렇게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학술대회의 품격을 높여주신 이수정 교수님의 학자적 면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회가 좀 더 넓은 학문분과의 고명하신 선생님들과 교류해야 할 필요성을 선생님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학회 회칙

제 1 장 總則

제1조 (名稱) 본회는 韓國經濟學會라 한다.

제2조 (目的) 본회는 韓國 및 東亞細亞 經濟의 종합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事業) 본회에서 수행할 事業은 다음과 같다.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의 開催

學會誌 發刊

經濟 研究의 국제 교류

기타 필요한 事業

제 2 장 會員 및 任員

제4조 (會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하며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한다.

명예회원은 경제학 연구에 공헌이 많은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된다.

회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會長) 본회는 會長 1인을 둔다.

會長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管掌하고 對外的으로 본회를 代表한다.

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하고 그 任期는 2년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제6조 (副會長) 본회는 副會長 약간 명을 둔다.

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며 회장 有故 時 그 직무를 代理한다.

副會長은 會長이 위촉한다.

제7조 (監事) 본회는 監事 2인을 둔다.

監事は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監査하여 總會에 보고한다.

監事は 總會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理事) 본회는 總務理事, 研究理事, 涉外理事, 出版理事 각 약간 명을 둔다. 理事는 會長이 選任한다.

회장은 필요시 이사 외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顧問) 본회는 총회의 추대에 의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 장 機構

제10조 (總會) 總會는 會員으로 구성한다.

定期總會는 年 1회로 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會員 1/10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會

長이 이를 召集한다.

總會는 豫算·決算 및 事業計劃의 認准, 會長·監事의 選出, 會則의 改定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總會의 안건은 출석 회원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會則의 改定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1조 (分科委員會) 본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연구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運營委員會) 運營委員會는 會長, 副會長, 理事로 構成하며, 본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제13조 (編輯委員會) 編輯委員會는 委員長과 약간 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審議 執行한다.

編輯委員은 會長이 위촉하며 그 任期는 2년으로 한다.

編輯委員長은 편집위원 중에서 會長이 선임한다.

學會誌 간행을 위한 논문 審査 運營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內規를 정하여 공정히 운용한다.

제 4 장 財政

제14조 (財政) 본회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 有志者의 贊助金, 기타 收入金으로 한다. 단, 會費는 年會費와 終身會費로 구분되며 內規로 정한다.

附 則

제1조 본 회칙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慣例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通過日로부터 發效한다.

제3조 이 회칙은 2014년 3월부터 시행한다.

한국경학학회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名稱)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 學會誌 論文 投稿에 관한 規程이라 한다.

제2조 (目的) 이 규정은 韓國經學學會의 學會誌 『經學』에 게재할 論文의 投稿에 관한 절차를 定하고 관련 업무를 規定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著作權) 本 學會의 學會誌인 『經學』에 掲載된 論文 등의 著作權은 本 學會가 소유한다. 著作權에는 디지털로의 複製權 및 電送權을 포함한다. 다만, 掲載된 論文 등의 筆者가 本人의 論文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學會는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이를 承認한다.

제4조 (논문의 성격) 本 學會의 學會誌인 『經學』은 經學과 關聯이 있는 전공 학술 논문을 비롯하여 관련 글, 소식 등을 收錄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학술성을 지닌 역주도 할 수 있다.

- 1) 논문은 다른 學術誌(학위 논문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학술성을 지닌 역주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3) 論文 掲載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 하지 않는다. 단, 기획 논문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4) 투고 논문이 표절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 간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 (발행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2회로 하되, 6월 30일과 12월 31

일에 발간한다. (규정 수정, 2023년 6월 30일)

제6조 (투고 시한) 원고 투고 시한은 5월 중순과 11월 중순으로 한다. (규정 수정, 2023년 6월 30일)

제7조 (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제8조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제한하지 않으나 200매를 超過할 경우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논문 提出處) 투고 원고는 학회 이메일(studyclassic@naver.com)로 제출한다.

제10조 (게재료) 研究費를 받아서 수행된 論文을 掲載할 경우, 편 당 30만원의 掲載料를 投稿者가 부담한다.

제11조 (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본 학회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도 수록할 수 있다.
- 2)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의 순서로 작성한다. 단 본격 논문이 아닌 서평 등의 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로 한다.
-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제1저자와 연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 ○○○(제1저자)·○○○(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 ○○○·○○○(연결저자)].
- 7)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 8)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 Words 포함)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저자표시의 경우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만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 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단 그 논문의 성격상 중문초록이 의미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문초록을 추가할 수 있다.
- 9) 脚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②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다음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20면.

홍길동(2000) 참조.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홍길동 외(2000).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③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조선인(1988); 한국인(2000) 참조.

홍길동(2000; 2001a; 2001b) 참조.

홍길동(2001b), 66~67면; 조선인(1988), 35~36면;

한국인(2000), 42~47면 참조.

④ 공동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예) 홍길동·조선인(2000).

⑤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조선인·한국인(2000).

홍길동 외(2000).

⑥ 原典 資料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저자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書名 및 卷數, 작품 제목(작품 제목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1』 卷17, 「爲李仁榮贈言」, 372면.

『正宗大王實錄』 卷32, 正祖 15년 2월 丁巳. 201~202면.

⑦ 서양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135.

Henderson, Gregory(1957), p.19.

James, Palais(1975), *ibid.*, p.107.

Henderson, Gregory(1957), *op. cit.*, pp.20~21.

10) 參考文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 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각 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하고,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되, 그 배열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③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丁若鏞,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1987.

『朝鮮王朝實錄』 46 『正宗大王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57.

④ 연구 논저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여러 명일 경우 모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논문 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하되, 논문은 수록된 책 속의 처음과 끝 페이지를 명기하고 단행본은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예) 홍길동(1998), 『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 편(1999), 『편서명』, 한국출판사.

홍길동(2000), 「논문 제목」, 『서명』, 한국출판사, 25~37면.

홍길동(2001a),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215~245면.

홍길동(2001b), 「논문 제목」, 『經學』 제1집, 한국경학학회, 64~85면.

⑤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 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⑥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예) 홍길동(2002), 「논문 제목」, 한국한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4월 5일~6일.

⑦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1975), *Politics and Polic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Henderson, Gregory(1957),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VI, No.3. pp.15~29.

11)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통일한다.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장편소설, 서사시, 전집류, 학회지 명 등 - 『 』

- ② 작품명, 논문(석사·박사 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중단편 소설,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
 - ③ 강조, 간접 인용 - ‘ ’
 - ④ 직접 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호 생략), 대화 - “ ”
- 12) 본문 및 각주에서 한문 원문을 인용할 경우, 기본적인 구두점(쉼표·마침표·물음표·느낌표·따옴표)을 가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적 원칙에 따라 여타의 부호를 추가 표기할 수 있다.
- 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名稱) 이 규정은 韓國經濟學會 編輯委員會 規程이라 한다.

제2조 (目的) 이 규정은 韓國經濟學會 회칙에 따른 編輯委員會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規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제3조 (構成) 編輯委員會는 委員長과 약간 명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제4조 (編輯委員의 委屬) 편집위원은 세부 전공 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 1) 학문적 연구 업적 및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공익적 활동
- 2) 세부 전공 분야의 포괄성(한중일의 문학, 역사, 철학 등 한국 경제학의 제분야를 망라함)
- 3)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
- 4) 學者로서의 名望과 人格

제5조 (編輯委員長의 選任)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 중에서 會長이 선임하되,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編輯委員會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7조 (編輯委員의 任期) 편집위원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編輯委員會의 任務)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審議 執行한다.

- 1)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會 規程과 學會誌 論文 投稿에 관한 規

程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제9조 (編輯委員會의 召集) 편집위원회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隨時로 召集한다.

제10조 (編輯委員會의 成立)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闕席한 경우에는 編輯委員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1조 (編輯委員會의 議決)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다만, 贊反 同數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審査委員)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審査委員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 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으로 한다.

제13조 (匿名성과 秘密 維持) 審査用 原稿는 반드시 匿名으로 하며, 審査에 관한 諸般 事項은 編輯委員長 책임 하에 對外秘로 하여야 한다.

- 1) 匿名성과 秘密 維持의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인해 심사위원에게 重大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闕席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 (審査 節次)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編輯委員會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의 判定 所見을 編輯委員會에 제출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투고 논문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를 결정한다.
- 4)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 所見을 검토하여 修正 要求 事項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심사 결과 '게재 불가'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 所見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6) '게재 가' 및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投稿者는 論文審査書를 수령한 후 所定期日 內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7)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判定을 받은 논문 중에서 修正 要求 事項이 성실하게 이행되었거나 해명된 論文에 한하여 掲載를 최종 결정한다.

제15조 (審査의 基準)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2) 항목별 평가는 ①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②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③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④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⑤ 자료 검증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기준마다 5가지의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 3) 게재 여부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한다.
- 4)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게재 여부 결정의 條件)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각 審査委員의 심사 결과 '게재 가'의 경우 3점, '수정 후 게재'의 경우 2점, '게재 불가'의 경우 0점을 부여한다.
- 2)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8-9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가'로 판정한다.
- 3)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6-7점인 경우 최종 결과를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다.
- 4) 각 審査委員의 合計 점수가 3점 이하인 경우 최종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編輯委員會에서 掲載 與否를 최종 결정한다.
- 6)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 이상 이어서 해당 호에 모두 수록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 부여받은 점수에 근거하여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17조 (異議 申請) 투고자는 審査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異議申請書を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異議申請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에서 異議申請의 受諾 與否를 결정한다. 수락한 異議申請에 대한 조치 방법은 編輯委員會에서 결정한다.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경학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경학』에 발표되는 논문과 그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대상) 『경학』에 투고한 연구자는 모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4조 (적용 범위)

- 1) 이 규정은 『경학』 공모 논문 심사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이 규정은 『경학』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도출과 출판,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연구의 계획,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4)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5)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 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제6조 (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 - 연구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개·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① 타 연구자의 발상,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

는 행위.

-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학위 논문 포함)의 내용을 출처나 인용의 표기를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구성하는 행위.
 - ⑤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제보자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
 - 6) 피조사자 - 제보 또는 연구 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 단,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7) 예비 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 8) 본조사 -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 9) 판정 -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제7조 (편집위원 윤리 규정)

-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전 심사 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심사위원 윤리 규정)

-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에 대해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과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관 분야 전공자에게 회장이 위임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 피제보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4)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후 호선으로 선출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① 예비 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 통보
- ②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보호
- ③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편집위원회의 부의 사항

제10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본 학술지 투고 논문 가운데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예시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는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 2) 예비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연구 부정행위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알리

는 절차를 말한다.

제12조 (예비 조사의 절차)

-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예비 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 내용이 제4조 각 항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성,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 ③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3) 예비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예비 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5) 예비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기초 정보
 - ② 연구 부정행위 혐의 조사의 대상이 된 논문 및 관련 조항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 (본조사의 절차)

- 1) 본조사는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본조사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가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고지해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 활동을 거쳐서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개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신원이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승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하고도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조사 결과 보고)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 내용
 -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⑥ 연구윤리위원 명단과 기초 정보

제18조 (판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편집위원회로 이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 1)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한 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3)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가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예비 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총무진이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 (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과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1) 연구자의 학회 제명 및 논문 투고 금지
- 2)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 논문 삭제
- 3)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23조 (연구윤리 규정 시행지침)

-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經學 論文 審査書

대상 논문						
심사위원	심사자 : 소 속 :					
평가	평가 등급	A(5)	B(4)	C(3)	D(2)	E(1)
	평가 지표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자료 검증					
평가 기준	계재: 20~25, 수정 후 계재: 17~19, 계재 불가: 0~16 (계재불가 :15)					
판정 소견 또는 계재 시 수정 요구 사항						
위와 같이 심사 판정합니다. 202 심사위원 : ㉞						

한국경학학회 임원

고 문 : 김언중(고려대 명예교수),
이기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최석기(경상대), 이강재(서울대)

회 장 : 이영호(성균관대)

부 회 장 : 김승룡(부산대, 겸 편집위원장),
김용재(성신여대, 겸 학술위원장),
엄연석(한림대), 박순철(전북대),
정우락(경북대), 서대원(충북대)

총무이사 : 함영대(경상국립대), 이시연(성균관대)

연구이사 : 양원석(고려대), 김수경(공주대)

섭외이사 : 원용준(충북대), 전성건(안동대), 이승률(중국 산둥대)

출판이사 : 신원철(안양대), 윤선영(고려대)

감 사 : 노경희(조선대), 당윤희(건국대)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원)

- 1) 대학에서 경학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거나 번역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 2) 경학 연구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
- 3) 경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기관회원) 경학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 또는 공공도서관.

3. (특별회원) 그 밖에 경학에 관심이 높고 본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이나 단체.

— 입회 안내

본 학회 홈페이지의 입회 안내문을 따라 회원 가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개인회원: 연 5만 원, 종신회비 50만 원

기관회원: 연 5만 원

혜택: 학회지 증정, 학술대회 초청

계좌 번호: 우리은행 1002-064-102173 이영호

* 학회 입회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studyclassic@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원고 모집 안내

한국경학학회에서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 학회 학회지 『경학』에 게재할 원고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성격/분량

- 학술 논문—고전의 정리 및 경학과 관련한 연구 성과물(번역서에 대한 학술적 비평도 포함)/ 원고지 130매 이내
- 연구사 정리—기존 경학 연구 논저에 대한 연구사 정리
/ 원고지 100매 이내
- 서평 : 경학 연구서 REVIEW—경학 연구 비평 또는 학술 회의 관전 소개
/ 원고지 50매 이내
- 원로 회고 —경학 연구에 참여한 노학자의 경학과 관련한 자유로운 주제
/ 원고지 제한 없음

2. 원고 제출: 학회 E-mail (studyclassic@naver.com)

3. 원고 마감: 매년 5월 중순, 11월 중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국경학학회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김승룡(부산대 한문학)

편집위원 김용재(성신여대 동양철학)	박순철(전북대 중문학)
양원석(고려대 한문학)	당윤희(건국대 중문학)
노경희(조선대 한문학)	전병철(경상대 한문학)
전성건(안동대 동양철학)	서대원(충북대 동양철학)
원용준(충북대 동양철학)	김수경(공주대 한문학)
함영대(경상대 한문학)	노명동(홍콩침희대 경학)
김배의(대만사대 중문학)	강지은(대만대 한문학)
정선모(남경대 한문학)	

편집이사 신원철(안양대 중문학) 윤선영(고려대 한문학)

편집간사 이동학(고려대 한문학)

經 學 6

2023년 12월 31일 인쇄

202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처 도서출판 한모임

편 집 한국경학학회

회장 이영호

E-mail: studyclassic@naver.com

제 작 도서출판 한모임

ISSN 2713-9638

